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5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6월 1일) 2019년 7월 3일 수요일

"문화재청 불교정책 보전주체 무시 심각"

조계종 중앙종회 제215회 임시회… 결의문 채택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이 스님들의 문화재위원 겸직과 관련된 문화재청 제안을 불가피하게 수락할 전망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에 분과별 1명씩 총 8명을 배정하던 스님들을 5명으로 줄이면서 불교계 반발이 커지자 이 같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계종 중앙종회는 문화재청의 일방적인 문화재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불통 행정에 불편한 심기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는 6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제215회 임시회를 열고, 문화재위원 논란과 관련해 문화재청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단 문화재청 제안을 총무원이 받아들일 것을 주문했다.

다수의 종회의원들에 따르면 비공개로 다뤄진 '문화재청의 불교문화유산정책에 대한 논의의 건'에서는 먼저 총무부가 문화재위원 논란에 대한 경과보고를 했다. 이에 종회의원들은 문화재청의 불통 행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중앙종회는 결의문을 채택, 일명 문화재청의 '불교 홀대'에 비판 입장을 표명했다. 중앙종회는 결의문에서 "불교문화와 연관성이 적거나 없다는 핑계로 일부 분과서 불교계를 배제한 것은 문화재청의 정책이 불교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분야로만 한정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재청의 그릇된 시각과 왜곡된 인식을 볼 수 있는 단면"이라며 "조계종 중앙종회는 문화재청의 각성을 요구하며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종회는 또한 "문화재와 문화유산이 올바르게 보전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관료적 시각과 입장이 아니라 지극한 정성과 관심, 애정이 바탕 된 노력과 행동, 그리고 보전 주체의 의견수렴이 꼭 필요하다"며 "중앙종회는 모든 불자들의 대의기관으로 문화재청의 불교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향후 제대로 된 정책이 수립 · 집행되는지 분명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서는 스님 문화재위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종단 교육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종회의원 B스님은 "문화재청의 결정에서 비롯된 논란이지만 종단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항간에 스님 문화재위원의 자질을 문제 삼는 얘기가 있었다. 이런 문제제기가 없도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종헌기관 모독 조사위 구성

중앙종회는 이외에 공석인 종헌개정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심우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아울러 인사심의위원인 현민 스님의 사직에 따라 후임으로 종호 스님을 선출했다.

214회 임시회서 총무원장이 제출한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관련 종헌개정안과 관련 종법개정안은 총무부가 여론수렴 부족을 이유로 이월을 요청함에 따라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또한 본사주지의 연령 상한을 만 70세에서 만 75세로 높이는 내용의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찬성 17표, 반대 38표로 부결됐다. 이는 제16대 중앙종회서도

소통 없는 문화재위원 감축에
조계종 내부 비판 여론 높아
스님 문화재전문가 양성 위한
종단 교육체계 정립도 주문

본사주지 연령상한 개정 부결
종헌특위 위원장엔 심우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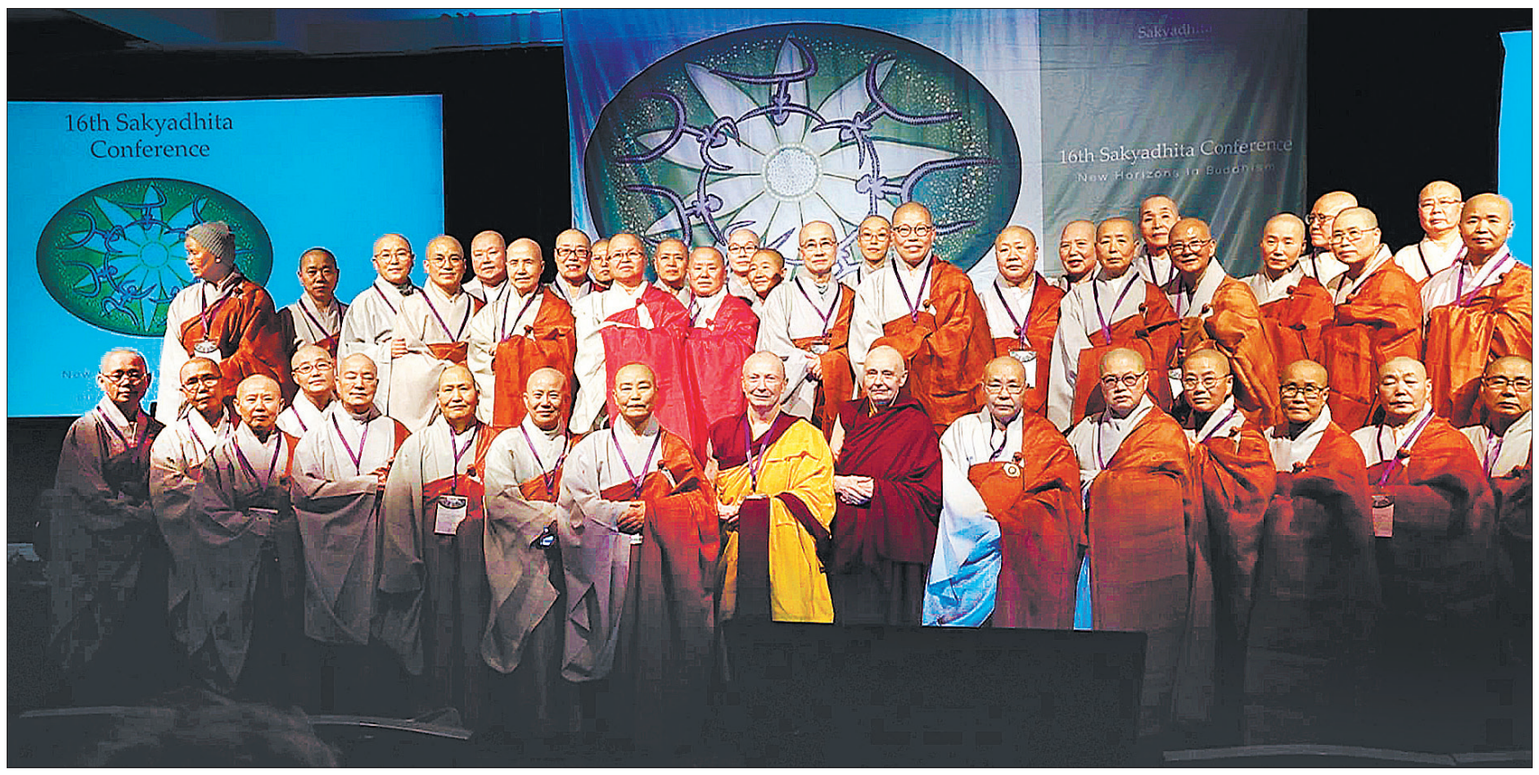
부결된 안건으로, 나이 상한을 높일 시 원로의원이 본사 주지를 겸직할 수 있게 되는 등 일부 문제제기가 뒤따랐다.

지난 4월 30일 입적한 법계위원 종진 스님의 후임으로 추천된 자광 스님(동국대 이사장) 위촉 동의의 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소청심사위원 등목 스님의 후임으로는 도륜 스님(봉정사 주지), 종립학교관리위원 성행 스님의 후임으로는 설도 스님(도갑사 주지)이 선출됐다.

한편 회의서는 이례적으로 '종헌기관 모독 진상조사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사유는 지난 4월 직지사서 열린 중덕 법계산림에서 교수사들이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비하발언을 했다는 것.

이에 일부 종회의원들이 찬반의견을 주고받았으나 중앙종회는 결국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에는 호법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정 스님이 선임됐으며, 위원 선출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세계 여성 불자 '한자리에' 제16차 샤카디타 세계불교여성대회가 호주 블루마운틴에 위치한 페라몬트 리조트에서 6월 24일 개막했다. 서양권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대만, 태국, 네팔, 독일, 미국, 호주 등 10개 국가에서 비구니 스님들과 여성 불자 등 2000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불교 참가자들은 광명진언과 찬불가로 한국의 전통음악과 현대 음악의 콜라보를 선보이며 개막식의 열기를 더했다. 평화와 화해를 향한 불교적인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는 이번 대회는 6월 28일까지 진행됐으며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들로 꾸며졌다. 사진제공= 샤카디타 코리아 · BTN불교TV

학교법인 동국대 제40대 이사장 법산 스님

제320회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선출… "학교 발전에 최선"

신임 이사에 우송 스님 선임

학교법인 동국대 제40대 이사장에 동국대 이사이자 명예교수인 법산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자광)는 6월 27일 제320회 이사회를 열고 차기 이사장으로 법산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7월 2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자광 스님의 후임으로 선출된 법산 스님은 7월 21일부터 이사장 임기가 시작된다. 임기는 법산 스님의 이사 만료일인 2020년 2월 17일까지다.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된 법산 스님은 "동국대에서 교육자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지금처럼 학교가 안정적이었던 적이 없다. 이 모든 게 현 이사장 자광 스님의 덕화"라면서 "자광 스님과 이사, 총장께서 학교를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만큼 이를 잘 이어받아 학교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산 스님은 동국대 교수로서 평생을 봉직한 교육자이자 수행자이다. 1961년 정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한 법산 스님은 1963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 구족계를 수지했다. 법산 스님은 1971년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석 ·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박사 학위는 〈보조선의 연구〉로 대만 중국문화대학에서 1985년 취득했다. 유학 시절 대한불교 홍법원을 설립해 해외포교를 실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1986년부터 2011년까지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과 불교학 발전에 매진했으며 동국대 정각원장, 불교대학장, 불교문화연구원장 등 학내 소임도 두루 맡았다. 불교학자로서 한국선학회장, 한국정토학회장, 보조사상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승가학원 이사, 동산반야회 법주 등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는 오는 7월 20일로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지원 스님의 후임으로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임원 취임과 서울캠퍼스 외국인 유학생 현황 보고를 받았으며, 유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학교에 당부했다.

기타사항에서는 퇴임을 앞둔 이사장 자광 스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자광 스님은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학교 정체성을 살리고 전쟁터 같았던 학교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중점을 두고 소임을 봤다"면서 "이제는 동국대가 옛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 이를 위한 로터스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후임 이사장과 총장, 학내 구성원들이 해결할 숙제다. 앞으로도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이기흥 조계종 중신회장, IOC 위원 선출

IOC 134차 총회서 투표로 최종 선출 확정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현 대한체육회장, 사진)이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IOC는 6월 26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134차 총회에서 이기흥 회장 등을 IOC위원으로 최종 선출했다. 이기흥 회장은 전체 64표 중 기권 2표, 찬성 57표를 획득했다.

이기흥 회장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자격으로 선출된 최초의 IOC 위원이자, 통산 11번째 IOC 위원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기흥 회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대한민국 체육을 새롭게 시작하는 각오로 혁신해 스포츠 강국을 뛰어넘어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그동안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종단의 여러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항상 초발심을 잊지 않고 불자들의 기대에 부흥하고자 노력하겠다"며 조계종 신도대표기구의 수장으로서의 각오도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지은이 **혜담 스님**

부산 금정산 범어사에서 광덕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승가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일본 불교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칠불선원, 해인사 선원 등에서 참선 수행, 해군 군종법사 대위 전역하였다.
불광사 불광법회 지도법사·조계종 총무원 홍보실장·소청심사위원·호법부장·재심호계위원을 역임하였으며, 불교신문 논설위원·경향신문 정동칼럼 필진으로 깨달음의 글로써 대중과 소통하기도 했다.
역서 및 저서로 『대품반야경(상·하)』, 『반야불교 신행론』, 『新 반야심경 강의』, 『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셔라』, 『방거사 어록 강설』,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 등이 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상(無常)한 물질이나 명예, 권력이 아닌 삶의 참된 의미를 찾는 이들의 필독서!

진리란 무엇인가? — 붓다와 마음, 진리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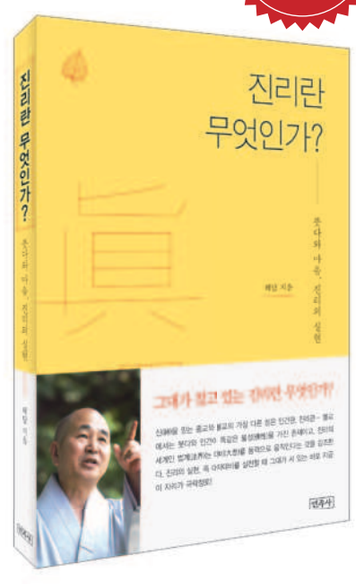
화제의 신간

선(禪)의 관점에서 불교 진리를 밝히다!

**보통 불교의 진리라고 하면 삼법인, 사성제, 십이연기 등 불교 교리를 연상한다.
이 책은 반야·공 사상 연구와 수행·교화에 힘써 온 혜담 스님이 선(禪)의 입장에서 선불교 전체를 망라하여 붓다와 마음, 불교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생명'을 주창한 광덕 스님의 말씀이 이 책 집필의 원동력!

신(神)을 믿는 종교와 불교의 가장 다른 점은 인간관, 진리관… 불교에서는 붓다와 인간이 똑같은 불성(佛性)을 가진 존재이고, 진리의 세계인 법계(法界)는 대비(大悲)를 동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강조한다. 진리의 실현, 즉 대자대비를 실천할 때 그대가 서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가 극락정토!



혜담 지음 ‖ 248쪽 ‖ 13,800원 ‖ 변형신국판

도서출판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EMAIL minjoksabook@naver.com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입니다. 불서의 명가 민족사 도서를 법보시 하실 분은 문의 바랍니다.

대흥사 주지후보에 법상 스님

71표 중 66표 얻어… "교구 내 화합 중시"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해남 대흥사 주지에 법상 스님<사진>이 당선됐다.

해남 대흥사는 6월 26일 경내 보현전에서 본사주지후보 선출 산중총회를 열고, 법상 스님을 제23대 주지후보로 선출했다. 정상 스님(대흥사 주지 직무대행)이 의장을 맡아 진행한 선거에는 산중총회 구성원 93명 중 71명이 참여했다. 법상 스님은 66표를 얻었으며, 경쟁후보였던 법조 스님은 4표를 얻었다. 무효는 1표.

법상 스님은 당선소감을 통해 "선거를 통해 많은 대덕스님들과 화합의 시간이 됐다"며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스님상은 무엇인지 성찰하면서 교구스님들과 산중화합을 중시하면서 교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상 스님은 1992년 은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3년 송광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3년 통도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2003년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조계종 호법부 상임감찰, 호법과장, 포교원 신도국장, 무안 법천사 주지, 대구 안일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제17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했다.

대흥사=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핵심보직 친인척관계 방지 강화

진각종 종의회, 임시회서 종헌 · 종법 개정

진각종 前총인 회정 정사와 그의 아들로 인해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진각종이 핵심보직간의 친인척 관계 방지를 위해 종법을 개정했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관천)는 6월 20일 진각문화전승원 4층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417회 임시종의회를 열고, 종헌과 종법을 일부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리원장 · 종의회의장 · 현정원장 · 교육원장 · 회당학원 이사장의 겸직불가 조항에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를 포함했다. 또한 '통리원장 · 종의회의장 · 현정원장 · 교육원장이 4촌 이내 친인척 관계가 될 수 없다' 는 조항에 총인과 회당학원 이사장,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추가했다.

임시회서는 총인 선출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진각종은 오는 7월말까지 현행 규정대로 총인 추대위원회서 차기 총인을 추대해야 한다. 아울러 종의회는 '교육원장은 총인이 추천해 종의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는 규정을 '종의회에서 선출' 하기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현정원장 역시 '종의회에서 선출해 총인이 임명한다' 는 내용을 '종의회에서 선출' 키로 하면서 총인이 갖는 권한을 사실상 축소했다.

윤호섭 기자

"캄보디아 아이들과 특별한 교류"

종단협, 남방교류사업 일환으로 씨엠립 방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는 6월 19~24일 한국전통문화 남방교류사업 일환으로 캄보디아 씨엠립을 방문했다. 단장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 스님과 천태종 · 진각종 등 회원종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30여 명으로 꾸려진 방문단은 첫날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를 순례하고 씨엠립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인 왓보사원을 참배했다. 왓보사원에는 왕실 고문인 핀셈 스님이 주석하고 있다.



방문단은 둘째 날 로터스월드 씨엠립지부(지부장 선문) 아동센터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등 약 200여 명의 어린이들과 미니운동회 · 한국전통문화 체험활동을 실시했다.<사진> 운동회는 바구니 공 넣기를 시작으로 포대자루 달리기,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투호 등의 경기가 진행됐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는 단주 만들기, 연꽃컵등 만들기, 에코백 그림 그리기, 다보탑 · 석가탑 모형 만들기 등이 마련됐다.

윤호섭 기자

태고종 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 당선

6월 27일 단독후보로 무투표… 임기 즉시 시작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총무원장에 당선된 호명 스님(사진 왼쪽)과 중앙선관위원장 월봉 스님. 편백운 스님 측이 집회 신고를 내면서 총무원 청사 앞에 경찰들이 배치됐다.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호명 스님이 6월 27일 무투표 당선됐다. 호명 스님은 태고종 총무원인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앞 이면도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월봉 스님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았다. 당선증 즉시 임기가 시작됐지만 전임 집행부인 편백운 스님 측이 총무원 청사 출입을 막아 공식적인 행정업무를 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날 태고종 총무원사 앞은 편백운 스님 측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 인원이 몰리면서 혼잡을 빚었다. 이면도로 집회신고를 편백운 스님 측에서 가장 먼저 하면서 중앙선관위의 당선증 교부식은 경찰벽을 사이에 두고 치러졌다. 행사에는 중앙선관위원장 월봉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 호법원장 지현 스님 등 100여 명의 대중이 참석했다.

호명 스님은 제27대 총무원장 당선증을 받은 뒤 종단화합을 위해 편백운 스님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호명 스님은 "종단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였다. 과거에도 어려운 시기가 많았지만 지금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누란의 위기는 어두운 터널을 대하듯 막막하기만 하다"며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숱한 어려움을 이겨 왔듯이 태고종의 저력은 엄중한 난관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명 스님은 이어 "이번 선거는 전임 집행부의 지속적인 선거 방해에도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종단의 안정을 염원하는 대중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소납은 조속한 종단 안정과 종도화합, 종단 위상을 바로 세우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편백운 측서 청사 출입 막아
길거리서 당선증 수여식 개최
호명 스님 "화합 위해 대화"
편백운 스님 "인수인계 없다"

새 총무원장 선출에 태고종 원로회의도 환영입장을 표명하며, 종단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원로의장 덕화 스님은 해동불교대학장 대은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호명 스님은 많은 행정경험을 갖추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지키는 스님으로서 어려운 종단은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 평가받는다"며 "태고종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종도여러분이 원력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호명 스님은 총무원장 당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청사 출입을 위해 섣불리 접근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명 스님은 "편백운 스님과 끝까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겠지만 먼저 화합을 전제로 접촉하겠다. 편백운 스님도 대화에 나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편백운 스님은 당선증 교부식 직후 입장문을 내고 "호명 스님의 총무원장 당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편백운 스님은 "불신임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호명 스님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즉각 제기했다. 결코 인수인계란 없다. 제26대 집행부는 합법정통이기에 종무행정 정상화를 통해 정상적인 업무를 개시하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종단과 종도의 피해를 감안해 합리적인 출구를 찾을 수 있는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51민사부(재판장 박범석)는 편백운 스님이 앞서 제기한 선거중지가처분에 대해 6월 2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의가 실체적 ·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남북교착상태, 외부요인 기대 말아야"

민추본, 정책기획위 집담회
민간교류서 불교역할 모색



조계종 민추본 정책기획위원들이 남북교류를 위한 불교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북한과의 3차 회담을 희망하는 등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불교계가 민간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는 6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서 '남북교착국면에서의 민간, 불교의 역할' 을 주제로 정책기획위원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의 낙관을 전망하긴 어렵지만 불교계가 단순한 민간지원이 아닌 사회여론 환기와 남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것들이 과거처럼 물량지원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북한은 현 우리 정부의 근본적인 스탠스가 어떤가를 문제 삼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지금의 민간역할도 달리 생각해야 한다. 정부주도의 교류가 한계가 있기에 민간차원에서 사회여론을 형성해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대북제재가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제3국을 통한 민간지원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는 "불교계가 외부요인에 기대 일을 풀어나가려 하면 결국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질성 회복이나 평화통일과 같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중심으로 교류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과거 만해 스님 신계사 다례재처럼 남과 북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 성철 스님이 수행하셨던 북한사찰을 순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외래교수는 "현재 남북관계가 냉온탕을 오가는 시기는 지났다. 이제는 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 진통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정부도 민간 대북교류를 제어하기보다는 보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추본도 금강산 방문을 적극 추진해 경색된 관계를 풀어가는 촉진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집담회에는 본부장 원택 스님을 비롯해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권영경 前통일교육원 교수,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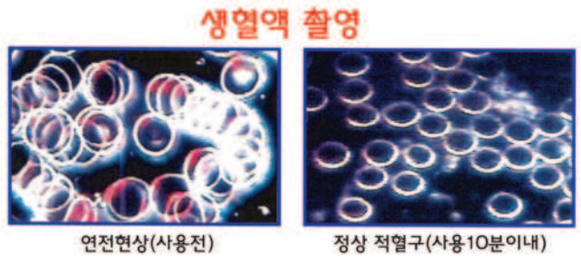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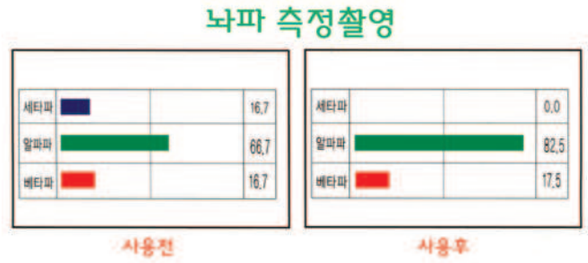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검버섯 제거 현상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봉은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7월 개관

불교문화 체험 및 불교 사회기여 이바지

강남 입지로 잦은 국빈 방문
다도, 사찰음식 등 체험공간
1인실 및 다인실, 회의실 갖춰
관장에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
건강강좌도 진행, 지혜 전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템플스테이 체험관 다실 툇마루에서 시설을 설명하고 있다. 템플스테이 체험관은 봉은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의 도심을 내려다 볼 수 있다. 내외빈들의 방문이 잦은 상황에서 주요인사들의 템플스테이 공간으로 중점 활용될 예정이다.

국내외 외빈들이 서울 강남에서 한국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탄생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템플스테이 체험관 개관을 앞두고 6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설을 공개했다. 그동안 영빈관으로 알려진 템플스테이 체험관은 공식 명명 후 7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서울 봉은사는 강남 중심인 무역센터와 아셈 등과 인접한 위치적 특성으로 매년 해외 국빈들의 방문이 잦은 사찰이다. 최근 하인츠 피셔 오스트리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젤코 라이너 크로아티아 국회 부의장, 제난 라마단 쿠웨이트 장관 등이 방문했다. 템플스테이에 대한 수요도 많아 2018년 봉은사 템플스테이 참가자가 1만4026명으로 2017년에 비해 13%가 증가했다. 이 중 약 70%가 외국인인 상황.

이런 가운데 템플스테이 체험관은 국내외 주요인사들이 사찰문화와 사찰음식, 다도 등을 경험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할 예정이다. 이미 기자간담회에 앞서 6월 20일 2019서울국제도서전으로 내한한 휴고 세쳐 국제출판협회 회장과 말레이시아, 체코, 독일, 브라질, 헝가리, 스웨덴,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에서 온 출판업계 종사자 및 작가 들이 템플스테이 체험관에서 템플라이프를 체험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그동안 봉은사를 방문한 외빈들이 한번쯤은 한국사찰에서 숙식하며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싶다고 했는데, 봉은사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며 "많은 이들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가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VIP들 뿐만 아니라 이주민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템플스테이 체험관은 전통사찰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현대인들의 수요에 맞게 1인 1실 3실과 가족 참가자를 위한 다인실이 겸비되어 있다. 각 숙실마다 화장실과 휴식공간이 배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다실과 회의와 강의가 가능한 다목적실도 구성돼 있다. 봉은사 템플스테이 체험관은 봉은사 자부담 8억5000만원에 불교문화사업단 10억원의 예산으로 건립됐다.

한편, 체험관에서는 각 주제에 맞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스님과 함께하는 건강 강좌다.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12강으로 진행되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이 강좌는 현재 템플스테이 체험관 관장으로 추대될 조계종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문관 수행으로 총무원장 임기 후 조용한 행보를 이어 온 자승 스님은 봉은사 옛 요사채였던 심검당에 주석하며 대중과의 만남을 시작할 예정이다.

원명 스님은 "전부터 종단을 위해 고생하셨는데 퇴임 이후 사중생활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 회주로 모시고자 했다. 본인이 고사하시고 이른바 '밥값을 해야 하지 않냐' 고 하셔서 관장으로 모시고자 한다"며 "전 총무원장 스님을 모시는 것은 봉은사와 종단 위상을 높일 것이다. 총무원장을 두 번 하신 경륜이 봉은사에서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이밖에 봉은사 템플스테이 사무국장 석두 스님이 진행하는 스님과 함께하는 요가 강좌도 7월부터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쌈짓돈부터 고액까지, 불교 기부 확대

아름다운동행, 개인단위 후원 증가 공개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에 개인 단위의 고액 후원자가 증가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 후원자인 서울 팔정사 주지 진우 스님은 최근 아름다운동행이 탄자니아에서 운영 중인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에서 공부하는 탄자니아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1000만원을 기부했다.

부산 영화사 주지 명준 스님은 조계종이 진행 중인 '백만원력결집' 모금사업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백만원력결집은 부처님 깨달음의 성지인 부다가야에 한국 사찰을 세우고, 청년들에게 법을 전할 군법당과 도심포교당을 세우는 등의 종단 목적사업이다.

진우 · 명준 스님 1000만원 기부
탄자니아 학생, 안과 수술 등
다양한 계층 돕기 나서

7년간 저소득층 안질환 수술비 지원 '개안수술' 사업을 위해 7000만원을 기부해 온 백경남 동국대 명예교수는 최근 아름다운동행에 1000만원을 다시 기부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동행의 개안수술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숙자 씨는 탄자니아 사업에 2016년부터 매년 200만원씩 후원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은 탄자니아에서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운영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대상 영양죽 지원 '해피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숙자 씨는 올해 6월에도 이 사업에 200만원을 기부했다. 현재 이숙자 씨는 매년 1000만원을 자선단체 곳곳에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뿐만 아니라 매달 사무국에는 이른바 쌈짓돈을 후원하는 이름없는 후원자들도 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이들은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며 보시행을 실천했다.

이런 불자들의 후원에 대해 아름다운동행 측은 "사회 각계각층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꾸준히 전개하여 이러한 후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조계종이 지난 2008년 설립한 불교계 최초 공익기부재단으로 병원, 요양원, 학교, 유치원 등 불교계 시설건립 기금과 국내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업기금 모금을 위한 '팔만사천결사' 모금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계종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설립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지원을 위한 '더불어(魚)저금통 모금 캠페인 등도 활발히 벌이는 중이다.

(02)737-9595 노덕현 기자

"동국인 마음 담아 고인 기립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故최종근 하사 추모석 제막

고인 복무 중 모은 1천만 원
유가족 동국대 경주캠에 기부

청해부대 입항 행사 중 순직한 故최종근 하사의 모교인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그를 기리는 추모석이 세워졌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6월 25일 교내 진흥관 앞에서 청해부대 복무 중 순직한 故최종근 하사 추모 식수 및 추모석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추모행사는 유가족과 고인이 근무했던 청해부대 간부와 동료병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와 직원, 경영학부 교수와 학생, 학군단 후보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6월 25일 교내 진흥관 앞에서 청해부대 복무 중 순직한 故최종근 하사 추모 식수 및 추모석 제막식을 개최했다.

추모 나무와 추모석은 故최종근 하사가 공부하던 진흥관 앞 화단에 설치됐다. 추모 식수한 나무는 '살아서 천년, 죽어서도 천년'을 산다는 뜻을 가진 '주목'이며, 추모석은 경주 남산서 부처님을 조성하던 자연 화강석에 추모 내용을 붓으로 쓰고 정으로 새겼다.

또한 유가족들은 고인이 군 복무 중 받은 급여와 수당을 모은 1000만원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기부했다.

유가족 대표인 故최종근 하사 부친은 "위령제를 열고, 추모 식수와 추모석을 조성해 아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신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감사드린다"며 "학교 가는 것을 참 좋아했던 아들을 생각하며 아들의 모교에 기부했다. 앞으로 종근이가 생각날 때면 아들 나무를 찾아오고 싶다"고 말했다.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추도사를 통해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사랑하고 학우들에게 항상 웃음으로 대했던 고인을 영원히 우리 곁에 두게 됐다"면서 "우리 '최종근 학생'은 그가 다니던 경영학부 학우들이 공부하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추모했다.

한편, 故 최종근 하사는 2016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영학부에 입학했으며 해군 복무 중 지난 5월 24일 순직했다. 신성민 기자

자유를 원하면 출가하세요

조계종 교육원 하반기 출가자 모집 공고

8월 28일까지 등록 권장
등록 시 내년 2월 수계

조계종이 올해 하반기 출가자 모집에 들어갔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출가, 자유와 자비의 길' 캐치프레이즈로 2019년도 하반기 출가자 집중 모집을 공고했다. 출가자 집중 모집은 '출가 절벽시대' 대응책으로 조계종 교육원은 매년 2차례 출가 집중안내 기간을 정하고 출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는 하반기 집중등록기간으로 이 기간에 등록하면 행자생활을 거쳐 내년 2월 사미 · 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있게 된다. 출가대상은 만13~50세(1970년 12월 31일까지) 누구나 가능하다.

등록 절차는 전국 조계종 사찰 중 원하는 사찰을 선택하고 사찰에 거주하는 스님과 출가에 대해 상담후 출가하면 된다.

조계종 출가 스님에게는 필요한 주거 · 교육 · 의료 등 일체 혜택과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입원진료비 · 요양비 등이 지원된다.

소년출가자, 청년출가자의 경우에는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불교대학 입학 시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대학원 진학 시 장학지원, 군승 지원 시 특별 선발한다. 특히 소년출가자는 6개월간의 행자교육과정이 면제된다.

출가에 대한 문의는 조계종 교육원(02-2011-1801)에서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인 출가상담은 출가상담전화(1666-7987)로 출가상담사 스님과 상담을 할 수 있다. 조계종 출가 사이트(monk.budd hism.or.kr)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성민 기자

템플스테이

2020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선정 공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는 한국불교문화자원을 활용한 불교문화 대중화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템플스테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사찰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기본 요건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지정요건)

① 운영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또는 1개동 이상의 전통가람 구성의 기본적 당우를 갖춘 사격의 사찰
2. 템플스테이 참가자 20인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사찰
3. 템플스테이 운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법사 및 실무자가 배치된 사찰
4. 템플스테이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찰

●선정절차 안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현장실사	최종선정	예비운영기간
2019년 7~8월	2019년 8월	2019년 9월	2019년 9월	2020년 1~12월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 심사	→ 서류심사 합격 사찰의 주지스님을 대상으로 면접심사 (선정위원회 개최)	→ 면접심사 합격 사찰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평가	→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선정	→ 예비운영기간 (경상보조금 미지원)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별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근거
1차 서류심사	운영사찰 지정 관련 기본요건 충족 확인	제출서류
2차 면접심사	대표자(주지스님)의 템플스테이 운영계획 청취	면접심사 평가표
3차 현장실사	사찰의 참가자 수용태세 확인	현장실사 평가표

●서류제출 안내
···제출기간 : 2019년 7월 1일(월) ~ 7월 19일(금)
···제출서류 : ① 2020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붙임'자료 포함)
② 서류양식 다운로드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www.templestay.com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 : www.kbuddhism.com
···제출방법 : 원본 및 파일 제출
① 원본제출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② 파일제출 : suko@templestay.com으로 제출
···제 출 처 : 03145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4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윤석호
···서류심사 결과발표 : 공문을 통해 개별 안내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의 사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서 내 첨부 자료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한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문 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윤석호, 02)2031-2031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단장 원경

‘보시 · 공양’으로 백중 참의미 되살린다

전국사찰 백중기도 입재
8월 15일 회향 · 법회 예정

총림, 본사 특색있는 법회 개최
나눔문화 확산하는 행사 진행
승보공양 · 공승법회도 눈길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백중기도입재를 맞아 조계사 신도들이 영가 천도와 중생 구제를 서원하고 있다.

전국사찰이 백중을 맞아 다양한 행사로 분주하다. 조계종 8대 총림을 비롯해 전국 교구본사와 사찰들에서는 백중을 앞두고 백중 기도 입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선지식 법회 등 법공양을 비롯해 공승재 등도 진행한다.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부처님 법과 양식을 베푸는 백중의 참 의미를 되살리는 행사다.

최근에는 지역 축제로서 다양한 백중행사도 열리고 있다. 백중 회향에 맞춰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거나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행사도 열린다.

선지식 법회로 법공양 활발

팔공총림 **대구 동화사**(주지 효광)는 백중을 맞아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법사로 백중49일 기도를 진행한다. 6월 28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을 법사로 입재가 이뤄졌으며, 7월 4일 원로의원 지성 스님, 7월 11일 임휴사 회주 무공 스님, 7월 18일 동화사 前 주지 성문 스님, 7월 21일 보현사 회주 자광 스님, 8월 1일 동화사 前 주지 허운 스님, 8월 8일 팔공총림 유나 지한 스님을 지도법사로 6재까지 진행된다. 이어 8월 11일 108순례와 백중방생법회가 진행되며, 8월 15일 영가봉송을 하는 회향법회가 종정 진제 스님을 법사로 진행된다. 회향법회 후에는 동화사 다비장에서 구품연화대 다비식도 봉행된다.

금정총림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를 연다. 5월 22일 입재한 이후 범어사 설법전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진행되고 있으며, 8월 18일까지 이어진다.

7월 2일 범어사 부주지 범산 스님, 7월 9일 계명암 주지 선재 스님, 7월 16일 동화사 금당선원 유나 지환 스님, 7월 23일 성주사 회주 흥교 스님, 7월 30일 법륜사 회주 선래 스님, 8월 6일 정암사 주지 상운 스님, 8월 13일 범어사 교수사 지오 스님, 8월 18일 회향법회 금정총림 방장 지유 스님의 법문이 진행된다.

8월 15일까지 열리는 영축총림 **양산 통도사**(주지 현문) 백중 49재 기도에도 스님들이 대거 참여해 설법을 진행한다.

6월 28일과 30일에는 대구 보현사 회주 자광 스님과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이 법사로 설법했으며, 7월 7일 2재 통도사 서축암 감원 우진 스님, 7월 14일 통도사 포교국장 양관 스님, 7월 21일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 7월 28일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8월 4일 통도사 강주 인해 스님, 8월 15일 회향법회는 영축총림 방장 성파 스님이 진행한다.

이와 함께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인천불교회관 연화사, 부산 흥법사 등 도심 사찰에서도 제방 스님을 초청하여 선지식 법회를 회향일인 8월 15일까지 매주 연다.

보시 · 승보공양 등 백중문화 전개

도심 기도와 수행 사찰에서도 다양한 백중행사가 열린다. 특히 승보공양과 보시 바라밀 등 백중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6월 28일 백중 입재와 함께 조계종이 진행하는 백만원력결집 불사에 적극 동참하는 백만원력결집 보시바라밀을 시작했다.

7월 4일 백중 초재부터 8월 15일 7재까지 서울 북부, 동부, 서부, 포교본부 등 다양한 신도조직에서 백만원력 결집 동참을 위한 보시운동이 전개된다. 조계사는 백만원력결집 불사에 10만 구좌를 약정했으며, 먼저 6월 28일 진행돈 백중 입재에서는 조계사 대중 스님들이 8520구좌를 약정하는 전달식이 진행됐다.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법원)도 6월 28일 초재부터 8월 15일 7재까지 진행된다. 7월 21일 혜민스님 초청법회가 진행되며, 회향일인 8월 15일에는 큰 법당에서 ‘우란분절 49일 기도 회향 및 승보공양 법회’가 봉행된다.

용인 법륜사(주지 현암)는 5월 19일 자비도량참법기도로 백중기도에 입재했다. 8월 15일 회향시까지 108배를 통한 참회기도가 진행되며, 회향일에는 수행정진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공승법회가 함께 진행된다.

한편, 불교의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백중은 조상과 부모 등의 영가 천도를 위해 기도를 함과 동시에 백중의 유래가 된 효 정신을 실천하는 날이다. 이와 함께 일체 중생의 극락왕생도 함께 기원하며 중생 구제를 위한 보시와 나눔활동도 펼친다. 불교계에서는 음력 7월 15일 다양한 음식과 가사 등을 지어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기도 한다.

불교상담개발원, 자살예방 프로그램 공모

대상 2000만원 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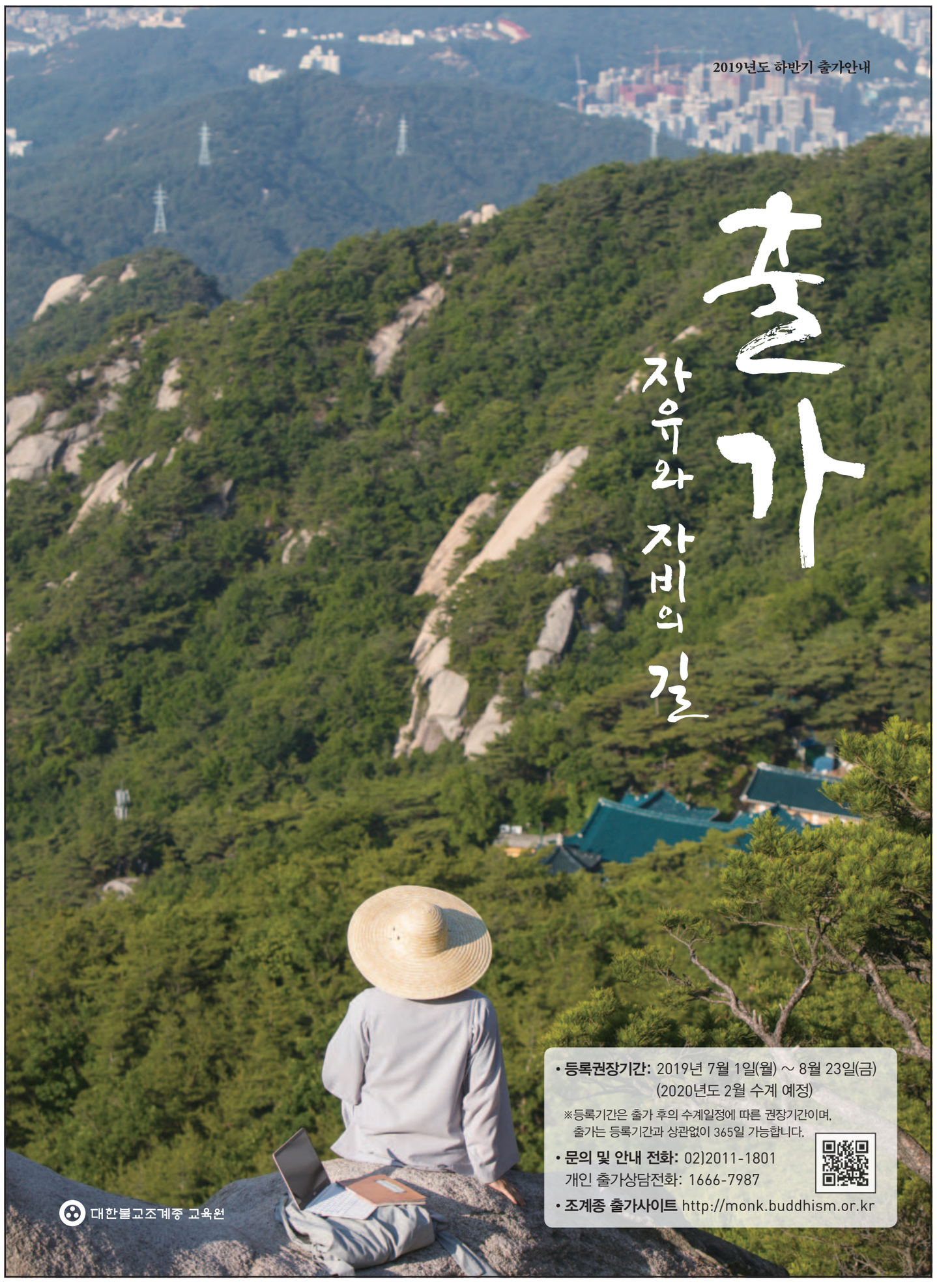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선업)이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몸 · 마음 · 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 공모는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생명존중 · 자살예방 ‘몸 · 마음 · 쉼’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번 공모 프로그램은 유가족, 자살시도자,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을 활용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으로 명상지도사, 자살예방 강사 및 교육생, 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www.kbcd.org)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참가신청서와 프로그램 설명서, 워크북 등이다. 프로그램 설명서와 워크북은 8부 제본해 발송하고 사전사후 효과 검증을 위한 측정도구도 함께 동봉하면 된다. 등기우편과 이메일(jabi7378@naver.com)로 모두 접수해야 한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몸 · 마음 · 쉼 자살예방 명상프로그램 워크북으로 제작, 배포된다. 이와 함께 불교상담개발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운영을 위한 홍보 및 전문가의 자문, 강사비 등도 지원된다. 대상은 2000만원, 최우수상 1000만원, 우수상에는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수상자는 7월29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은 “이번 공모를 통해 자살 위험군 대상자를 비롯해 유가족 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불교계 프로그램이 탄생하길 기대한다”며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과 김대환 (주)로드FC 대표가 6월 26일 열린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격투가들도 ‘생명나눔운동’ 동참한다

생명나눔 · 로드FC MOU 체결
김남명 위원 ‘명예 전당’ 헌액

국내 최대 격투기 단체인 로드FC가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와 (주)로드FC(대표 김대환)는 6월 26일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 이사 명신 스님을 비롯해 김대환 로드FC 대표, 홍보대사 배우 김하영 씨, 정현숙 생명나눔 후원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생명나눔과 로드FC는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로드FC는 △선수 · 회원대상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 △관객 대상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생명나눔은 △법인 소식지 ‘행복한 빈손’을 통한 로드FC 홍보 △로드FC 선수 및 회원 대상 장기기증 홍보 교육 △로드FC 요청 시 심의 통한 환자 치료비 · 안구 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은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나누기 위한 로드FC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생명나눔문화가 더욱 널리 알려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생명나눔은 김남명 홍보위원을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제포교사회, 템플스테이로 외국인 포교

6월 14일 벨기에 대사
1차 템플스테이 참가

조계종 포교원 산하 국제포교사회(회장 김성림)가 연등회 참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를 추진한다. 국제포교사회는 해마다 연등축제 기간 동안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들, 주한 미군 가족, 외국인 스님들과 관광객을 비롯한 전 세계의 외국인을 초청해 연등행렬 관람을 이끄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2017년부터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글로벌 서포터즈’의 교육도 담당하고 있다.

국제포교사회는 연등회를 통해 맺어진 외국인들과의 인연을 국제포교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먼저 6월 14일 서울 진관사에서 1차 외국인 템플스테이가 ‘템플라이프’ 형식으로 진행됐다.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이 벨기에 대사에게 단주를 달아주고 있다.

1차 외국인 템플스테이에서는 올해 3월 벨기에 국빈 방문 시 마틸드 왕비의 사찰 방문에 동행한 피터 레스쿠이에(Peter Lescouhier) 벨기에 대사를 비롯해 벨기에 대사관 지원 13명이 참가했다.

국제포교사회는 여기서 더나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7월 6~7일 강화 연등국제선원에서 제2차 외국인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노덕현 기자



올여름 무더위, 사찰서 날릴까?

2019 어린이 · 청소년 불교 여름수련회 일정

"여름 무더위에 피서를 고민했는데, 아이들이 사찰에서 물놀이도 하고 숲길 명상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어려서 사찰에서의 경험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여름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피서를 고민하는 이들의 고민해결을 돕는 불교계 여름수련회가 열린다. 도심사찰부터 산중 전통사찰까지 어린이들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물놀이도 즐기는 자리다.

무더운 여름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사찰에서 쌓은 추억은 이들이 불자로 자라는 씨앗이 된다. 이를 위해 전국 주요사찰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선원장 자우)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13회 여름캠프를 진행한다.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서는 어린이명상부터, 영어게임, 숲속 놀이와 곤충탐험대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자연 속에서의 영어게임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불교영어를 익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로자나국제선원장 자우 스님은 "아이들 스스로 참여 의사를 보일 정도로 선호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양산 통도사(주지 현문)도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6~28일 초등부를 대상으로 여름수련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템플스테이 동안 통도사는 천혜의 자연 경관 속에 어린이를 위한 쉼터를 제공한다.

일정은 입재식을 통한 새 친구 사귀기,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재 탐방, 천연염색, 스님과의 차담 등으로 색다른 문화를 맛본다. 특히 마지막 날 진행될 수계식에서 통도사는 자신의 성장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일상생활 가운데 적용하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통도사 여름수련 템플스테이는 재방문율이 높고 예약을 받기 시작하면 이틀 만에 90%가 완료될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도 스님과 함께하는 '영어야 놀자' 템플스테이를 8월 2일~4일 여름방학을 맞아 진행한다. 외국인 스님과 청소년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영어야 놀자'는 초등학교 3학년~6학년 까지 신청가능하다. 프로그램은 영어로 배우는 사찰예절, 프리토킹 및 게임, 미니 올림픽, 물총놀이 등이다.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부산 범어사는 여름특별프로그램으로 중 · 고등부를 위해 '청소년 단기출가'를 8월 9일~11일 동안 개최한다. 단기출가는 108배, 새벽예불 및 명상, 금정산 산행, 공동체 놀이 등이 진행된다.

범어사는 "단기출가를 통해 명상으로 자신을 살펴보며 사찰 습의로 배려와 인성을 키우고 108배와 산행으로 자신을 이기는 힘을 얻을 것이다"며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도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술사와 함께하는 썸머캠프'를 8월 2일~4일 진행한다.

홍법사는 "쉼과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특히 봉녕사 어린이도 함께 초청해 새로운 인연 맺기 프로그램으로 도반의 의미도 되새긴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을 위해선 '싱잉볼 명상과 크리스탈 만다라로 만나는 힐링캠프'를 7월 20일~21일 개최한다.

강화 전등사(주지 승석)의 경우 삼랑성 숲속에서 아이들이 마음명상을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즐거운 물놀이와 사찰의 법당을 화려하게 장엄하듯 단청체험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예쁜 목어필통 만들기, 차담 및 발우공양 등 다양한 불교문화 경험과 사진참선 등 독특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전등사 신도 자녀의 경우 20% 할인 혜택도 있다.

전등사 측은 "아이들이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일상에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전국지원에서 어린이 청소년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어린이회, 학생회, 청년회 등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여름수련회는 청소년들이 마음수행에 대해 익힐 수 있는 기회다. **노덕현 기자**

2019 전국사찰 어린이 · 청소년 여름수련회 일정

사찰	일시	내용	연락처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	8월 8~10일	어린이명상, 영어게임, 숲속놀이, 곤충탐험대	(02)6012-1731
서울 조계사	7월 21일	어린이수영, 명상, 체험 및 만들기	(02)768-8523
서울 진관사	7월 27~28일, 8월 3~4일	태극등만들기, 타종 체험	(02)388-7999
서울 금선사	8월 6~8일	숲속 명상, 마인드래치, 별보며 잠들기	(02)395-9955
광명 금강정사	7월 26~28일	구름산 숲체험, 나도 요리왕, 신나는 물총놀이	(02)899-7366
강화 전등사	7월 23~25일, 8월 6~8일	사찰예절, 숲체험, 물놀이	(032)937-0152
용인 법륜사	7월 26~30일	찬불가 율동대회, 물놀이, 만다라만들기, 차담	(031)332-5703
용인 화운사	8월 10~11일	영어 템플스테이, 불교영어 강좌, 촛불명상	(031)714-6707
수원 용주사	7월 26~28일, 8월 1~5일	감성 오감 프로그램, 채움명상, 온몸 깨우는 48배	(031)235-6886
수원 수원사	8월 3~4일	오자미 걷기명상, 신나는 물놀이, 행복한 마음나누기	(010)9420-9670
공주 마곡사	8월 2~4일	보물찾기, 연꽃등 만들기, 장구치며 민요배우기	(010)7110-6226
공주 영평사	8월 2~4일	자애교육, 성장일기 쓰기	(044)854-1854
보은 법주사	8월 9~11일	부모은중경 불료교리, 계곡 물놀이, 탁구대회, 숲체험	(043)543-3615
세종 영평사	8월 2~4일	사찰 예절교육, 108배, 우리문화 바로알기, 구절초이야기 놀이, 물놀이, 촛불발원제	(044)854-1854
예산 수덕사	8월 1~3일	창의력 토론, 애니메이션 오세암, 사과농장체험 및 점심	(041)330-7789
경주 골굴사	7월 28일~8월 17일	선무도, 승마, 국궁	(054)775-1689
김천 직지사	8월 2~4일	다르마 드림캣처 , 버츄(미덕) & 빙고놀이 , 신나는 물놀이	(010)6356-6084
영천 은해사	7월 26~28일	만다라그리기, 색종이 인드라망 명상, 소리명상, 나에게 쓰는 편지	(010)6255-4722
성주 심원사	7월 28~31일	향 테라피, 가야산 생태학습, 마인드 스케치	(054)931-6887
대구 동화사	8월 5일~ 8일	스님과 함께하는 탁발공양, 새벽예불, 소리명상 선요가, 108배	(010)3534-8079
양산 통도사	7월 26일~28일 초등부 8월 5일~7일 중 · 고등부	조별장기자랑, 천연염색, 스님과 차담	(055)384-7085
부산 미타선원	7월27일~28일 (청소년 대상 명상 캠프)	마음등불프로그램(명상, 마음나누기, 공감경청 연습)	(051)253-8686
부산 범어사	8월 2일~4일 초등부 8월 9일~11일 중 · 고등부	초등부-영어로 설명하는 템플스테이 중 · 고등부-사찰문화탐방, 발우공양, 108배, 금정산 산행, 명상	(051)508-5726
부산 혜원정사	7월 26일~28일	'팔정도와 놀다' (물놀이, 조별 놀이, 퀴즈대회)	(051)866-7771
부산 홍법사	8월 2일~4일 초등부 7월 20일~21일 중 · 고등부	초등부-마술사와 함께하는 썸머캠프 중 · 고등부-크리스탈 만다라와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힐링캠프	(010)8643-6974
하동 쌍계사	7월 26~28일	영어 자타카, 한문 명심보감, 숲해설 및 생태놀이, 다도 예절 및 명상	(010)6399-1901
김제 금산사	8월 9~11일	영어토론, 모악랜드 물놀이, 간식만들어 먹기	(063)548-4441
순천 송광사	8월 10~12일	예불, 수계 및 육바라밀 교육	(010)8830-1921
영암 도갑사	7월 27~29일	숲속놀이터, 물속놀이터, 탑돌이	(061)473-5120
해남 미황사	7월 28일~8월 4일	108배와 사경(연등의식), 다도, 한문교육	(061)533-3521
제주 관음사	7월 20일~8월 4일	소금만다라, 마음챙김 명상	(010)5219-8561

2019 한마음선원 어린이 · 청소년 여름수련회 일정

사찰	일시	내용	장소
본원	7월 26~28일	어린이회 '내 한생각에 우주가 들썩들썩'	광명선원
본원	7월 19~21일	학생회 '파도는 바다를 여의지 않는다'	태안
광명선원	8월 9~11일	연합수련회 '내 마음의 선장'	통영지원
부산지원	7월 13~14일	어린이회 '미리 마음 내고 움직인다'	부산지원
	8월 9~11일	학생회 '미리 마음 내고 움직인다'	부산지원
광주지원	8월 9~11일	연합수련회 '내 마음의 선장'	통영지원
	8월 2~4일	학생회 '명칭 미정'	여수
울산지원	7월 13~14일	어린이회 '마음 꽃 활짝'	울산지원
	8월 2~4일	학생회 수련회	울산지원
대구지원	7월 27~28일	어린이회 '주인공에 관해요'	대구지원
	8월 2~4일	학생회	여수
중부경남지원	8월 9~11일	연합수련회 '내 마음의 선장'	통영지원
	8월 3~4일	학생회 수련회	여수
진주지원	8월 3~4일	어린이회 · 학생회 '행복한 나의꿈을 찾아서'	진주지원
포항지원	7월 13~14일	어린이회 '부처님과 함께 놀아요'	포항지원
청주지원	8월 9~11일	연합수련회 '내 마음의 선장'	통영지원
통영지원	8월 9~11일	연합수련회 '내 마음의 선장'	통영지원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를 검색하시면 상세 일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maumtour.com 02·720·9600

한국인을 위한 2019년도 *선착순 마감

달라이라마 친견법회

11월 1일부터 출발, 법문일정 : 11월 4일-6일(3일간)

주 관 |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 역경원 주 최 | 여수석천사 진옥스님

▶ 법회 행사는 보시금 3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 11/1 출발 달라이라마 법문 8일 ------ 230만원
B 11/2 출발 법문 + 델리관광 8일 ------ 230만원
C 11/2 출발 법문과 남인도 순례 11일 275만원
D 10/31 출발 법문과 인도 성지 15일 ---- 310만원
E 11/2 출발 법문과 부탄 순례 11일 ---- 410만원

황금빛 불탑의 나라 특가

미얀마 성지순례 7일

9월 20일 출발 ~ 9월 26일 도착

178 만원

* 10명 이상 모집시 출발
*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양곤-바간-만달레이-
삔다야-헤호(2박)-양곤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구법의 길을 따라서

실크로드·돈황 10일

9월 20일 출발 / 10월 14일 출발 259 만원

*10명 이상 모집시 출발 *15명 이상 인솔자 동행

주지 진산식 '나눔'으로 회향

통도사 현문 스님, 행복드림 사업에 3000만원

"화려하고 권위적인 취임식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 환원이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잘 활용되고 소중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이 주지 진산식에 필요한 일체 비용을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 나눔 활동에 기부했다.<사진> 앞서 방장 성파 스님이 지난해 4월 방장 추대식에 필요한 기금을 희귀병 소아암 환우를 위해 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불지종가다운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성금 전달식은 6월 20일 양산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됐으며, 통도사는 성금 3076만원을 전달했다. 주지 취임식 비용 3000만원과 불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76만원을 더한 것이다. 성금은 현문 스님을 대신해 통도사 총무국장 문성 스님과 사회국장 송정 스님이 전달했다.



성금은 (재)양산시복지재단이 실행하는 '우리동네 행복드림' 사업에 활용된다. 우리동네 행복드림 사업은 저소득 냉난방 지원, 아동 환우 치료비, 밧줄 추락사 노동자 유가족 돕기 등 양산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행복 지원 사업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현문 스님에게 감사드린다. 스님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고 성금을 잘 사용하겠다. 지역사회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중증장애인 삶의 질 향상 최선"

전주 금선백련마을 개원 3주년 기념법회

전주에서 유일하게 불교계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시설인 금선백련마을이 개원 3주년을 맞았다.

사회복지법인 송광(이사장 도영) 산하 금선백련마을(대표 덕산)은 6월 21일 전주 금선암에서 개원 3주년 기념법회 및 사찰음식 시식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도영 스님과 덕산 스님, 최종문 완산경찰서장, 이용규 완산경찰서 발전위원장, 유정희 자연음식문화원 대표, 김영돈 금선암 신도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도영 스님은 "금선백련마을이 짧은 기간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금선암 불자들이 후원자가 돼 남다른 원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며 "특히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인들을 가족같이 보살핀 직원들의 노고가 크다"고 치하했다.



덕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개원 3주년을 맞기까지 후원자들의 성원이 큰 힘이 됐다"며 "완산경찰서 경불회 등 후원자들의 성원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생활인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소원 청년회, 다문화가정 지원 나서

생필품 등 20여 가구 지원

사단법인 미소원 청년회(회장 박미주)는 6월 22일 부산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랑나눔 미소나눔' 생필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청년회는 200만원 상당의 성금으로 마련한 여성 생리용품 및 생필품을 다문화가정 20여 가구에 지원했다.

박미주 회장은 "지난 미청 맛집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회향한 것이다. 행복한 나눔의 가교 역할을 청년회가 담당했는데 앞으로도 나눔을 위한 심부름꾼으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규모 수계, 佛都 부산 달군다

조계종부산연합회, 7월 6일 삼귀의 · 오계 수계법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암에 걸린 한 부산 원오사 불자가 임종을 앞두고 가장 바란 일은 계를 받는 일이었다. 그는 계를 받은 후 정확히 일주일 뒤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지난해 조계종부산연합회가 주최한 수계법회에 참여한 불자의 이야기다. 부처님 가르침을 죽을 때까지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가 바로 참된 불자다. 올해도 지계를 목숨처럼 여기고 사랑하며 지킬 것을 다짐하는 수계법회가 열린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는 7월 6일 오후 3시 '제2회 삼귀의 · 오계 수계법회' 를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 이벤트홀(5층)에서 개최한다.

삼귀의 · 오계 수계법회는 불자들에게 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계를 받아 불자로서 살아가는 근본을 일깨우기 위해 개최된다. 초심으로 돌아가 계를 실천하는 것이 불교중흥의 시작이자 열쇠란 의미다.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원허 스님은 "부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불도로, 한국불교의 중심이다. 계를 수지하고 강조하는 것은 불제자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계를 받아야 불자로서 의무가 생기고 자격을 갖춘다. 법복을 비로소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계법회는 불자로 살 것을 발원하고 신심을 다지며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계법회는 대종오타로 시작을 알려 〈천수경〉으로 도량결계를 진행한다. 삼귀의례 후 전계사 스님이 입장할 예정이다. 3사는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 갈마아사리 수불 스님(조계종부산연합회 초대 회장), 교수아사리 수진 스님(조계종부산연합회 2대 회장)이며, 존증아사리는 지현 스님(송광사 율주), 경성 스님(해인사 율주), 심산 스님(조계종부산연합회 3대 회장), 정현 스님(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 원범 스님(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 덕문 스님(통도사 율원장), 만초 스님(전법도량 의장)이다. 인례는 영산 스님(통도사 염불대학원장)이 담당한다.

부산항 여객터미널 컨벤션서
1200명 선착순 모집해 봉행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 나서
직접 불자들에게 계첩 수여



조계종부산연합회는 7월 6일 오후 3시 '제2회 삼귀의 · 오계 수계법회' 를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수계법회 모습.

의식은 △개식 △거향찬 △대비주 △청성 △청사 △개도(삼귀오계 설명) △삼귀의 △오계 △관정수 영상 시청 △관정수 전달 △참회 △관정 △수삼귀의 △오계 선계상 및 계백작증 △발원 △회향 △법어 및 인사말 △회향게 △폐식 순으로 진행된다.

수계법회에서 사용할 관정수는 3대 관음성지인 보리암, 보문사, 낙산사에서 조계종부산연합회 스님들이 직접 채수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삼보일배하며 관음성지에 올라 물을 받았다"며 "오직 환희의 법석으로 참가하는 모든 이가 계를 받아 부처님의 불자로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계법회 동참인원은 1200명으로 선착순 접수하며 1인 참가비는 2만원이다. 수계자는 수계첩, 소형매트, 에코백을 받는다. 참가 복장은 흰색 상의에 편한 바지를 입으면 된다. 의식에 앞서 조계종부산연합회 3대 · 4대 회장 이 · 취임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수계를 받아 불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사회적 모범이 되는 불자가 되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수행자인 동시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맑고 밝은 사회에 보탬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051)501-7554

"어르신 생일에 외로움 없기를"

부산 동명불원 신도회
5년째 생신잔치 펼쳐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부산 동명불원 불자들이 어르신을 위한 특별한 생일 파티를 매달 정기적으로 열어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 동명불원(주지 승찬)은 6월 21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을 위한 생일잔치를 개최했다.

생일 축하무대를 위해 용호어린이집 아이들은 생일을 맞은 어르신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축하인사를 전했다. 머리 위에 앙증맞은 고깔모자를 쓴 어르신들이 함박웃음을 짓자 얼굴엔 주름이 펴졌다. 함께 자리에 참석한 지역 어르신들도 박수를 치며 축하했고, 선물 증정식도 이어졌다. 동명불원은 떡, 과일, 고기 등 모든 음식을 손수 마련해 복지관 지하 식당에 푸짐한 잔칫상을 마련했다.



동명불원이 6월 21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을 위해 마련한 생일상.

동명불원은 복지관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달 셋째 주 금요일마다 생일잔치를 열고 있다. 동명불원 생일잔치는 5년 전 지역 독거어르신들이 외롭게 생일을 맞지 않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됐으며, 동명불원 신도회 5개팀이 릴레이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용흥종합사회복지관에는 지역 저소득 어르신 180여 명이 매일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달 생일자를 찾아 동명불원은 생일잔치를 제공하고 건강을 기원한다. 이번 달 생일을 맞은 어르신은 총 10명이다.

모든 참석자를 대표해 김한동 어르신은 "매달 생일을 맞는 사람들을 위해 생일상도 푸짐하게 차려주고 축하해줘 너무나 감사하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성재곤 동명불원 신도회장은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길 기원하고 이렇게 함께 봉사해주는 모든 신행단체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서외숙 동명불원 신행단체 심우회 회장과 이갑숙 총무는 "동명불원에서 모든 불자의 마음을 모아 잘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봉사를 통해 행복해지는 건 바로 우리다. 즐거워해주시는 어르신들에게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과학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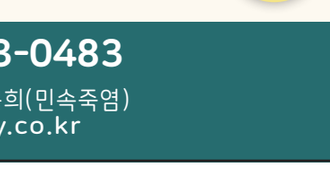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일행삼매 연구소(소장:처명)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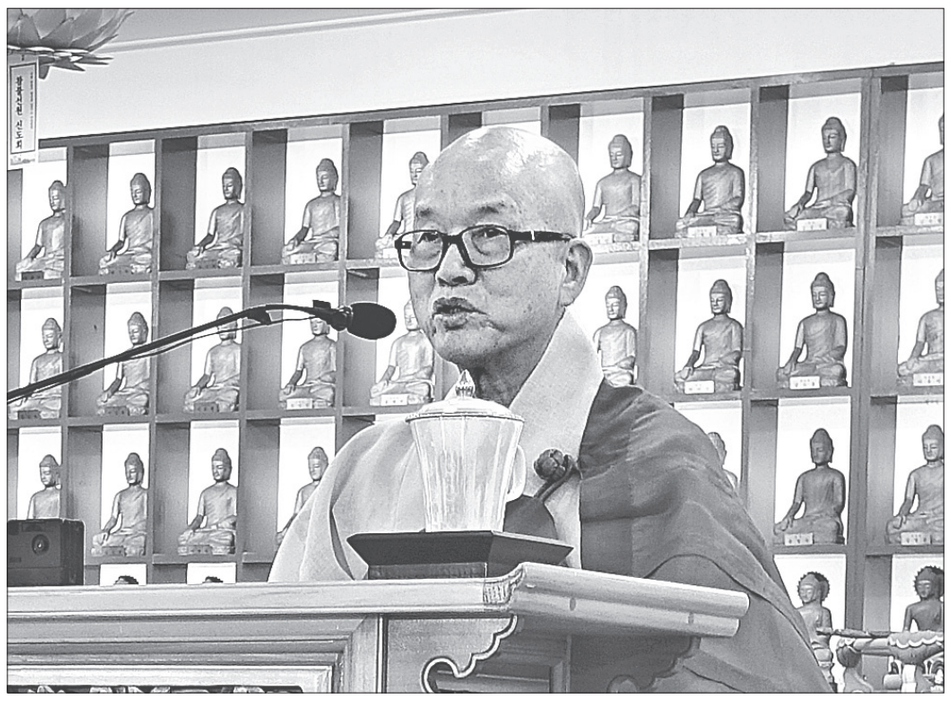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참선아카데미 대강좌

禪, 언제나 할 수 있어야 한다

주제 : 선종의 아름다움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의정 스님



의정 스님은… 1973년 봉선사에서 운경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4년 법주사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인천 용화선원에서 송담 스님을 스승으로 안거 수행했으며, 2000년 양평 상원서 용문선원을 사제들과 복원해 선원장으로 취임했다. 조계종단 수행지침서 〈간화선〉 편찬위원과 선원청규 편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보리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를 도입, 이후 중국에서는 대를 거치며 선종이 형성됐다. 6조 혜능으로부터 본격화된 선종은 현재 대승불교에서 독특한 수행가풍을 정립했다. 특히 한국불교에 간화선이라는 한국 특유의 수행법이 정착하는 시초가 됐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가 운영 중인 제2기 참선아카데미 대강좌에서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의정 스님은 6월 21일 법사로 나서 중국에서 시작된 선종의 역사와 선종의 특징, 화두수행의 가치 등을 설명했다.

정리=윤호섭 기자

부처님의 사상은 철저하게 불살생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원칙 아래 열심히 수행하고, 수행으로부터 얻은 지혜를 중생에게 회향하는 것이죠. 이 정신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불교역사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시불교부터 초기불교, 부파불교 등을 거쳐 대승불교가 탄생했고, 대승불교의 중심에는 '선종'이 있습니다. 선종은 불교에서도 조금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선종의 아름다움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부처님이 계셨던 인도는 한 마디로 수행자들의 천국입니다. 인도는 날씨가 매우 더워서 냉장고가 없던 시절엔 먹고 남은 음식을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적당히 만들고, 적당히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들이 발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사람들도 버릴 수밖에 없는 음식을 수행자에게 공양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했죠.

부처님은 손수 발우를 들고 제자들과 탁발을 다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좌선하다가 6시가 되면 밖으로 나섰습니다. 다만 탁발할 수 있는 집을 7집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탁발한 것을 가지고 돌아와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부처님은 탁발이 끝나고 제자들이 찾아와 궁금한 걸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법문하고, 남은 시간엔 좌선을 했습니다. 〈금강경〉에도 잘 나오는 부처님의 일상이죠.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를 가져옵니다. 중국은 당시 유교와 도교가 지배하는 사회였는데요. 중국 승려들은 부처님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탁발에 나섭니다. 하지만 유교사회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무위도식하는 걸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것은 스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어렸을 때 스님들이 탁발하러 나온 것을 보고 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탁발에 어려움을 겪은 중국 스님들은 결국 산중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8세기경에 선종의 6조 혜능에 의해 최초로 조사선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혜능 스님의 손자뻘 되는 마조 도일이 완성합니다. 또한 마조의 제자인 백장 혜해 선사 때 와서 겨우 선종이 독립합니다. 이전까지 선종 스님들은 처소가 없어 율종 스님들에게 얹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율종 스님들은 하루 4번 예불하고 계율을 지키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선종과는 수행방법이 맞지 않아 고생이 많았죠.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하게 된 선종은 백장 혜해 선사를 중심으로 총림선원을 만들고, 백장청규를 제정합니다. 선종 최초의 규범인데요. 1천여 명의 스님이 함께 살아야하니 규범이 필수적이었죠. 또한 선원에 맞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후로 청규는 중국과 일본에서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기로는 중국에 11개, 일본에 9개 정도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엔 청규가 단 1개입니다. 그마저도 201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 너무 많이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대승불교 중심 자리 잡은 '선종'
선수행 발달 따라 수행법 확립
계 · 정 · 혜 삼학 따로 보지 않고
경계 흔들리지 않는 상태 중요

한국에 청규 만들어진 배경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이었습니다. 당시 중국불교는 20~30년간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고, 한 세대가 붕괴돼버렸죠. 그러면서 선원서 지켜야할 규범이라든가 발우공양, 좌선 등 문화를 잊게 됐고, 중국불교는 한국에 와서 다시 배워갔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불교, 그리고 21세기에 맞는 청규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우리에게 배워가니 말입니다.

불교와 수행법 모두 발전

어쨌든 고생 끝에 탄생한 선종과 육조의 조사선은 불교의 혁명으로 평가됩니다. 그렇게 선종을 '최상승 불교'로 여기게 됐죠. 선종이 탄생한 이후 불교는 수행방법에서도 발전을 이룹니다. 이전까지 계 · 정 · 혜 삼학을 따로따로 여기던 것을 선종은 하나로 봤습니다. 계율을 지켜 선정을 닦고, 그래야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같이 이뤄진다고 본 겁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인 간화선도 그렇습니다. 남방불교의 관법과는 접근이 조금 다른데요.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기에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동시에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혜쌍수의 중요성도 점차 확산됐죠.

간화선은 화두를 통해 수행합니다. 요즘은 화두수행이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말이 많은데 선사들이 그동안 수행에 전념하느라 포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간화선을 몰라서 이해가 부족하고, 결국 오해가 생겨난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60세가 될 때까지 꼼짝 않고 선방에만 있었습니다. 적어도 수행자가 그 정도까지는 수행력을 푹 익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 주위에는 70세, 80세가 넘어도 선방에만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행 욕심이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해서지요.

아무튼 화두 의심을 품으면 선정과 지혜가 동시에 옵니다. 선수행은 어디에도 없는 수행방법이었습니다. 불교가 발달하고 진화해왔듯이 수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까지 화두수행을 뛰어넘을 만한 수행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1400년이 지나 화두수행이 생겨난 것처럼 이제는 또 다른 수행법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육조 스님이 돌아가신지 130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좌선은 불교의 근본적인 수행이지만 육조 스님은 오래 앉아 있는 걸 좌착이라고 했습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 일상에서 선정을 닦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그래서 마조 스님은 평상심이 도(道)라고 했습니다. 도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차를 마시면서 '이뭣고' 화두를 들고, 배고플 때 밥 먹으면서 '이뭣고' 화두를 들면 되는 겁니다.

원력을 갖고 수행하라

하루는 백장 스님에게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곤충이 죽는데 죄가 됩니까?" 백장 스님은 "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답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묻자 "삼구(三句)를 통과한 사람은 죄가 없고,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장 스님의 주요 선이론이 삼구인데요. 일구는 일체법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구는 일체법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없는 것이고요. 삼구는 일체법을 의지하지도 않고, 의지한다는 생각도 없어 마음이 허공 같아진 상태입니다. 물론 허공 같아져도 그렇다는 생각조차 내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렇기에 거기에 무슨 죄가 붙고 안 붙겠습니까. 그래서 백장 스님은 삶 전체가 청정자성이기 때문에 아직 깨닫지 못한 이는 발심하라고 당부합니다.

청규에 나오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선종에서는 선농일치라고 해서 선과 노동을 일치화했는데요. 노동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자기완성을 위한 노동을 했습니다. 백장 스님의 제자인 황벽 희운 선사는 한동안 사숙인 남전 보원 선사를 모셨습니다.

당시 봄이 되면 모든 대중이 산에 올라가 나물을 뜯었는데요. 나물을 다듬으러 가는 황벽 스님을 보고 남전 스님이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황벽 스님은 나물 다듬으러 간다고 대답했죠. 남전 스님은 다시 나물을 무엇으로 다듬느냐고 물었습니다. 황벽 스님은 대답은 않고 칼을 번쩍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표현한 겁니다. 그냥 다듬는 게 아니라 나와 화두가 일체화되고, 그런 상태에서 칼로 나물을 다듬는 것이죠. 나와 칼이라는 사물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물아일체죠. 수행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화두 일치로 무념이 되고, 사물과 일체가 되는 경계를 말합니다.

중국 북송 때의 시인인 소동파는 경계를 무념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수행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은 평생 천만가지의 경계에 부딪힙니다. 칠정이 경계를 따라 계속 일어나고, 결국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분별도 없는 무념, 나와 화두가 일치되는 그 상태를 최고로 봅니다.

요즘 우리사회는 이기주의에 빠져서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 단체는 단체, 국가는 국가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수행밖에 없습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다른 세상의 보살 900만 명과 사바세계에 왔을 때 그 보살들은 중생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고집불통인 중생들을 어떻게 교화하면서 사냐고 묻습니다. 유마거사는 큰 원력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원력으로 살아야 한 중생이라도 구제할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집니다. 이 땅은 부처님의 정토인데 중생들은 부처님 가르침과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그렇기에 큰 원력을 갖고 사는 이는 누구보다 행복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고 또 수행하면서 현실을 정토로 만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몸 - 마음 - 쉼
자살예방 프로그램 공모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생명존중·자살예방 «몸·마음·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합니다.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 시 수상금 및 특전을 드리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응모기간 2019년 6월 26일 부터 ——— 7월 20일 까지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응모주제
유가족, 자살시도자,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을 활용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응모자격
명상지도사, 자살예방 강사 및 교육생, 자살예방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 프로그램 설명서 / 프로그램 워크북
  -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www.kbcd.org) [문체부 자살예방 프로그램 응모] 에서 양식 다운받아 사용
  - 프로그램 설명서 및 워크북은 제본(8부)하여 우편으로 발송
- 사전사후 효과검증을 위한 측정도구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발송과 이메일 발송 모두 제출
  - 우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운사길59, 불교상담개발원 1층, 공모담당자 정승혜 팀장 | 02-737-7378
  - 메일 : jabi7378@naver.com

우수 프로그램 선정 및 수상

대상	2,000,000원	1개
최우수상	1,000,000원	1개
우수상	500,000원	2개

선정발표
- 2019년 7월 29일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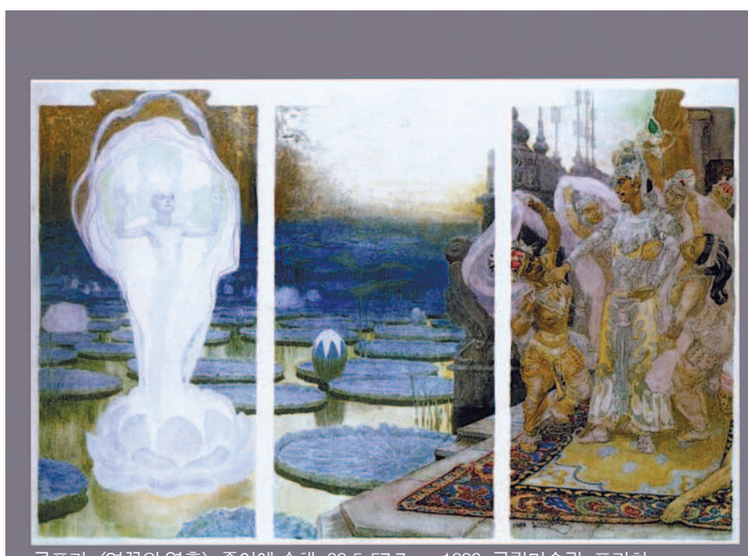
선정 프로그램 특전
-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홍보 및 전문가의 자문, 강사비 등 운영비 지원
- 〈몸 · 마음 · 쉼 자살예방 명상프로그램〉 워크북 제작 및 배포
- 불교상담개발원과 공동 사업 전개

생명의 근원, 연꽃으로 표현하다



김원숙의
불교와 미학

⑫ 쿠프카



쿠프카, 〈연꽃의 영혼〉, 종이에 수채, 38.5x57.7cm, 1898, 국립미술관, 프라하





František Kupka
1871-1957

◀쿠프카, 〈생명의 시작〉, 종이에 에칭, 34.5x34.9cm, 1900, 퐁피두센터, 파리

하얀 연꽃 위로 눈부시게 밝은 빛 줄기가 솟구쳐 오르고, 그 속에서 하나의 생명이 탄생한다. 아기와 탯줄로 이어진 모태는 황금빛으로 온 연못을 비추며 빛을 발산하고 있다. 물 위를 뒤덮으며 떠 있는 수련의 잎들은 저 멀리 짙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짙은 어둠, 그 적멸 가운데 홀연히 나타난 아기의 형상은 보는 이들의 마음에 신비하고 거룩한 심상을 불러 일으킨다.

서구서 흔히 연꽃 이미지는 창조와, 여성성, 그리고 성적인 결합과 연관되었으나, 이 그림에서는 연꽃이 생명의 기원, 그 자체에 대한 상징이다.

힌두교엔 다양한 유파가 있어 모든 신화가 일관적으로 서술되지 않지만 많은 힌두 신화에 따르면, 우주의 혼돈 속에 비슈누가 잠들어 있을 때 그의 배꼽에서 연꽃이 피어올라 창조의 신 브라흐마가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근대 이후 동, 서양의 교역이 활발해지며 동양 종교가 서구 사회에 전해졌고, 회화적 표현이나 비평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연꽃에 대한 동양 종교적인 이미지가 차용되기도 했다. 연꽃과 수련은 엄밀히 다른 식물이지만, 종교, 신화에서 우의적으로 서술되는 연꽃은 이 둘을 모두 포괄하는 어떤 개념으로 흔히 쓰인다. 물 위에 떠있는 잎들과 꽃의 형태로 볼 때, 이 그림 속의 연꽃은 수련이다.

이 그림 〈생명의 시작 The Beginning of Life〉은 화가 프란티세크 쿠프카(František Kupka, 1871-1957)가 1900년에 제작한 에칭 작품이다. 체코 출신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화가로는 아르누보 양식의 대표적인 작가 중 하나인 알폰스 무하(Alphonse Maria Mucha)가 있는데, 열 한 살 아래인 쿠프카 역시 무하 만큼이나 비중있는 체코 출신 예술가이다.

체코는 쿠프카가 태어난 1871년에는 보헤미아 왕국 동부 지역에 속해 있었으나,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오스트리아 연합국의 패배로 귀결됨에 따라 슬로바키아 지역과 함께 체코슬로바키아로 독립하였다. 5남매 중 장남이었던 그는 빈곤한 집안 살림을 해결하기 위해 13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말 안장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쿠프카는 이 일을 썩 내켜 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생계 유지를 위해 정규교육을 그만두게 된 이 상실의 경험으로 인하여 쿠프카는 일평생 철학, 종교, 과학 등 서적의 탐독을 비롯한 여러 방면으로 자기 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이후, 간판 그리는 일로 약간의 돈을 벌어 가며 보헤미아 지역을 떠돌아 다니던 쿠프카는 1889년 프라하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미술 수업을 받았으며, 1892년에 비엔나미술아카데미에 입학했다. 이 시기에 그는 전공인 미술뿐만 아니라 해부학에서 철학, 그리고 자연과학 일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스스로 습득했으며, 특히 동양의 종교와 신지학(Theosophy)에 몰두하였다.

신지학의 창시자인 엘레나 블라바츠키(Helena Blavatsky, 러시아, 1831~1891) 또한 자신의 사상을 형성하는데 있어 불교사상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신지학 운동은 종교라기보다는 지와 깨달음에 대한 하나의 태도 혹은 사상체계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에 영향을 받은 미술가로는 칸딘스키, 클레, 몬드리안, 고갱이 있으며, 절대주의 미술로 잘 알려진 말레비치가 있다. 쿠프카의 작품 세계 역시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 기인하여 신비주의적이고 영적인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1896년 파리에 정착한 쿠프카는 카바레의 포스터를 제작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및 카투니스트, 디자이너 등 여러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작품 활동을 지속하였다. 빈한한 환경 속에서 예술가로서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그는 사회 정치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점차 무정부주의 그룹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었으며, 여러 사회 풍자적인 카툰, 일러스트로 신문, 출판에 참여하여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다.

파리에서 야수파, 상징주의, 후기인상파 등 다양한 미술사조를 접하며 실험적 습작을 하던 그는 1909년 미래파 선언을 접하고 영감을 받아 점차 추상주의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하였다. 흔히 추상회화의 선구자로 바실리 칸딘스키를 거론하지만, 모든 미술사가와 평론가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 추상화의 출발점에 프란티세크 쿠프카 혹은 이탈리아의 아르날도 코랄디니(Arnaldo Corraldini, 1890~1982)를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스스로 여러 분야의 방대한 사상과 지식을 탐색하였고, 현대 미술의 태동기와 격변기에 예술의 중심지 파리에서 활동하였던 쿠프카의 작품세계는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쿠프카의 생애 전체를 통틀어 제작한 작품들을 보면, 이것을 한 사람이 제작한 그림들이 맞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로 상이한 화풍의 그림들이 많다.

작가의 이름을 모른 채, 〈생명의 시작〉을 접하는 우리나라 관객은 이것을 아시아 어느 작가의 작품으로 여길지도 모른다. 적어도 현대 추상회화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체코의 화가가 그렸다고는 믿기 어려운 작품이다. 〈생명의 시작〉은 그가 비엔나의 아카데미를 떠나 파리에 도착한 이후, 동양철학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상징적이고 우화적 주제에 집중하며 작업하던 시기의 작품이다.

연화화생(蓮花化生)! 〈무량수경(無量壽經)〉에서는 "중생이 수명을 다하였을 때 무량수불과 여러 대중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 그 부처를 따라 그 나라에 왕생하여 바로 칠보의 연꽃 속에서 저절로 화생한다"고 이른다. 연화화생은 삼계(三界)의 육도윤회(六道輪廻)를 벗어나 연꽃을 통해 극락정토에서 왕생하는 기원을 의미한다. 연화화생의 심상은 현재 전해지는 불교관련 문화재나 고전 문학 작품에 때때로 등장하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꽤나 익숙하다. 예를 들어 심청전에서 인당수에 몸을 던져 죽은 줄로 알았던 심청이 연꽃 속에서 다시 살아서 나타나는 장면도 연화화생의 변형으로 여겨진다.

동양미술에 대한 관심
초현실주의 미술로 승화

쿠프카의 〈생명의 시작〉에서 읽을 수 있는 연화화생의 이미지는 이보다 2년 앞서 제작된 〈연꽃의 영혼 The Soul of the Lotus〉에도 나타난다. 이 작품들에서 그는 영적인 시야를 제시하기 위해 자연을 재구성한다. 배경은 여전히 연꽃이 가득한 그 연못이지만, 〈연꽃의 영혼〉에서 인물은 완전한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반면, 〈생명의 시작〉에서는 태아의 모습으로 묘사하여 오로지 연꽃에서 탄생하는 생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처럼 〈연꽃의 영혼〉에서 시작된 창조에 관한 도상과 주제는 〈생명의 시작〉으로 확장되어 쿠프카의 작품에 반복하여 나타났다. 또한 쿠프카는 〈생명의 시작〉에서 원의 형태가 지니는 불교적 탄생의 의미를 연결시키고 있다. 이것은 대개 관자재보살의 도상에 등장하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그의 예술가로서 동양 미술에 대한 관심과 생명의 근원에 대한 열망을 이해할 수 있다.

쿠프카가 활동하던 무렵의 파리에서는, 근대 이후 진행된 박물관의 성행과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아시아의 여러 문화적 소산물을 부분적으로나마 직접 접할 수 있었다. 1879년 에밀 기메(Emile Guimet)에 의해서 설립된 기메 미술관(Musée Guimet)은 프랑스 최초로 인도와 동아시아의 유물들을 전문적으로 전시하였다. 쿠프카는 이미 동양 사상을 습득하였으나, 화가로서 작품 제작에 필요한 불교적 도상을 직접 접하기 위해서는 파리의 기메 미술관의 소장품들을 눈여겨봤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기메 콜렉션은 쿠프카 뿐만 아니라 콘스탄틴 브랑쿠시와 마르셀 뒤샹과 같은 20세기 초 예술가들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현대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칸딘스키, 몬드리안, 말레비치 등이 불교 사상에 심취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다. 그 당시 서구사회는 오랜 경제적 번영과 근대 자연과학이 이룩한 성과에 힘입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일종의 지적 낙관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대의 시작인 20세기에 이르러, 자연과학의 양자역학에서 제시된 불확정성의 원리는 우주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관한 심리학적 이론 등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미지의 영역을 새로이 제시했다. 또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사회 정치적인 격변과 파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의 막연한 유토피아적인 몽상을 디스토피아적인 악몽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쿠프카는 초현실주의와 추상미술을 추구하는 비구상미술단체인 '추상-창조(Abstraction-Création)' 그룹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였다. 이 시기에 특히 그는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추상 작업을 진행하였다. 추상 미술의 흐름에서 혁신적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가들만큼 크게 주목 받지 못하다가, 쿠프카는 1936년 뉴욕 현대 미술관 (Museum of Modern Art)에서 큐비즘과 추상 미술 회고전에 포함된 바 있었고, 파리 죄드폼 미술관 (Galerie du Jeu de Paume) 에서 무하와 함께 전시회를 가지기도 했다.

쿠프카가 살던 시대는 혹독한 비극의 시기였다. 인류에게 참혹한 고통을 안겨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전쟁만큼이나 끔찍한 경제 공황이 일상을 덮쳤다. 보다 아름다운 삶을 열망하였을 쿠프카는 〈생명의 시작〉과 〈연꽃의 영혼〉으로 대표되는 상징주의시기 이후 시대적 아픔을 겪은 뒤, 본격적으로 추상미술의 세계로 걸어 들어간다. 현대 추상미술의 근저에는 '자연과 사물의 충실한' 재현을 탈피한 '본질에 대한 순수한 직관'에의 추구가 존재하였고, 표피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알아서 깨닫는 것들보다는 내면세계의 영성과 신비에 대한 모색이 있었다. 쿠프카와 현대 미술의 선구자들에게 불교의 사상은 기존의 타성적인 예술관을 타파하고, 누구도 걸어가지 않았던 새로운 예술의 길을 보여 주었다. 당대 체코출신 어느 유명 작가의 말처럼, 쿠프카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자' 였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
나 또는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없으며
고통과 기쁨에 동요되지 않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사람,
어떤 상황에나 만족하며 자신을 제어하고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
…
이런 사람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며
세상 또한 이런 사람을 흔들지 못한다."

〈바가바드 기타〉 중에서

〈미술학자〉



주장 설파서 참된 논쟁 열린다



임종욱의
붓다와 마주한 인생독법

⑫ 불교와 유교의 논쟁



그림 · 박구원

세상사는 연기와 같다

백인백색이란 말이 있듯이 사람은 얼핏 비슷하게 생긴 듯해도 자세히 뜯어보면 저마다의 개성과 생각을 가지고 산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고 이해하는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이런 다양함은 삶이든 세상이든 우리의 삶을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이끈다. 차이란 토론의 씨앗이자 발전의 원동력이며 통섭(統攝)의 발판이다.

그런데 이런 순기능도 서로 그 입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나온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그러니 네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우긴다면 대화는 일찌감치 물 건너갔고 멱살잡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라서 제 주견(主見)에 대해 트집을 잡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너그럽게 수용하기보다는 공격할 태세부터 갖추게 되어 있다.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鄕)이나 무릉도원, 유토피아는 누구나 꿈꾸는 이상향이기는 한데, 그것이 정말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면 '꿈꾼다'는 수식어가 아예 붙지도 않았을 것이다.

예로부터 남해는 신선(神仙)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쉽게도 모두가 신선은 아니다. 이곳에도 서로마다 입장이 다르고 이해관계에 얽혀 이게 옳으니 저게 그르니 하면서 언쟁이 벌어질 때도 있다. 한때 남해의 주산(主山) 망운산에 풍력발전을 위한 발전용 날개를 세워야 되냐 마냐를 두고 다투더니, 근래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건설을 두고도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웠다. '발전'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부(可否)의 선택이 달라진 탓이겠지만, 군민들이 지혜를 모아 올바른 판단에 이르길 기대한다.

다툼은 이런 거대 담론에서만 빚어지는 것도 아니다. 개인 사이 사소한 문제에서도 충돌은 따라온다. 남해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인데도 주차 문제는 심각하다. 교통이 불편해 집집마다 차 한두 대씩은 가지고 있어, 때로 내 가게 앞에 주차하지 말라, 공용도로인데 왜 주차하지 못하느냐, 이런 입씨름이 벌어지기도 한다. 대개 친인척 관계로 얽혀 있어 극단적인 감정싸움으로 치닫지는 않지만, 감정은 묘한 물건이라 없어진 듯해도 앙금은 쉽게 가셔지지 않는다.

나도 성격이 원만한 편은 못 돼 남해에 산 지 7년째인데 그 동안 척을 진 사람들이 꽤나 있다. 이런 사람들과는 말도 섞기 싫어 아예 만나지 조차 않는다. 상대편 주장을 들어보면 내게도 분명 잘못은 있을 것이다. 나로서는 나의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그들과 대립하지 않은 것으로 위안을 삼지만, 너울가지가 넓지 못하고 대화와 설득에 능하지 못한 결점은 상처만 남길 뿐이니 고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다.

백 년도 못 사는 인생을 싸움만으로 일관한다면 그 인생을 두고 잘 살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기억만 남기기란 불가능하더라도, 타고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되진 않더라도, 죽어 육신은 먼지가 되고 생각은 안개처럼 사라져도, 그 사람 이름값은 하고 살았다는 평은 들어야 하지 않을까? 연기처럼 가뭇없이 스러지는 사람의 숙명 앞에서 '겸허'라는 말의 뜻을 되새겨본다.

우리 서로 잘해 봅시다

원융(圓融)의 화엄장(華嚴藏) 세계를 지향하는 불교에서는 다툼이나 논쟁이 없었을까? 분별과 대립이 극복된 이상적인 불국토 실현이 궁극의 목표인 불가의 터전이라면 없어야 당연한데,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인다.

우선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논쟁과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고난 뒤부터 부처님의 내면적 갈등은 시작되었다. 이 번뇌를 털어내고자 부처님은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했다. 그리고 세상을 주유(周遊)하면서 방법을 찾았고, 갖가지 수행법을 시도해 보았다. 자신의 몸을 학대해 깨달음을 얻으려는 고행법(苦行法)까지 감행했지만, 해탈의 삼매경은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따져보면 논쟁의 연속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많은 외도(外道)들이 권유한 대안을 실천하며 따져보았고, 그 결과 올바른 길이 아님을 절감했다. 부처님은 수행법을 두고 외도들과 논쟁을 벌인 셈인데, 우선은 수용했지만 첩경이 아님을 알자 버렸다. 부처님이 정각(正覺)을 이룬 뒤에도 숱한 마군(魔軍)들이 달려들어 부처님을 회유하고 공격했다. 그러나 이들 외도들과 마군마저도 모두 귀의했으니, 부처님은 남다른 논쟁가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듯하다.

대승(大乘)을 택할 것인가 소승(小乘)을 택할 것인가도 논쟁의 대상이었다. 불가 수행자의 최종 목표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일 터인데, 소승이 '상구보리'에 주로 뜻을 두었다면, 대승은 더 나아가 '하화중생'에 이르는 곳까지 가고자 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사람들의 견해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교종(敎宗)과 선종(禪宗)의 구분도 논쟁거리였다. 부처님의 말씀을 좇을 것인가, 부처님의 마음을 좇을 것인가를 두고 벌인 대립이었다. 말씀의 깃발 아래 깨달음의 성채를 쌓자는 논의가 나왔

불교는 논쟁의 역사
논쟁은 상생의 시작
유 · 불 충돌도 회통

고, 마음을 보아 성불(成佛)의 문을 열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 배척하는 분열이 아닌 선교일여(禪敎一如)로 통합하자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졌다. 말씀이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불이(不二)의 해법을 수용했던 것이다.

선종에서 보자면 돈오(頓悟)와 점오(漸悟)의 문제도 논쟁의 초점이었다. 오랜 수행과 명상을 통해야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람들과 근기(根機)가 고양되면 일순간 깨달음에 들 수 있다는 주장을 편 사람들이 자신의 논리를 내세웠다. 사실 이 논쟁에서도 방점은 '오(悟)'에 찍히는 것이라 방법론의 울타리를 벗어난 싸움은 아니었다. 그래서 간화선(看話禪)이 주창되었지만, 여기서도 점수(漸修)라는 또 하나의 언덕을 마련해 논쟁을 중재했다.

조주 스님이 제안한 무자(無字) 화두 역시 시비의 속박에서 자유롭지는 않았다. 만물실유불성(萬物悉有佛性)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조주는 개[犬]에게도 불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바람과 먼지에도 있다는 불성이 어찌 개라 해서 없을 수 있는가? 이 궤변 같은 선언은 많은 수행자들을 당혹감에 빠뜨렸다. 조주의 깊은 오의(奧義)를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화두를 들고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논쟁인가.

네가 없어져야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서로 버티면 한쪽이 소멸되지 않고는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서슬 시퍼런 칼부림과 비릿한 피비린내가 뒤따르는 제로섬 게임의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 강자독식이 섬뜩한 투쟁은 결국 양자 모두의 파멸을 가져오는 가장 극악한 논쟁 방식이다.

이렇게 보자니 불교에서 벌어진 논쟁은 상멸(相滅)이 아닌 상생(相生)의 몸짓이었음을 알게 된다. 부처님 이후 태어난 모든 불자(佛子)들은 부처님이 갈파한 상생의 논쟁법을 배우고 익혔다. 그래서 다양한 논쟁이 있었지만, 서로 뺨을 때리는 파국이 아니라 서로 손을 잡고 품는 미담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이런 논쟁이야말로 모두가 이기는 논쟁이 아닐 수 없다.

나는 너를 이기고야 말겠어

유교의 창시자 공자 역시 논쟁의 상수(上手)였다. 뒤를 이은 맹자(孟子, 기원전 372?-기원전 289?)에 오면 상대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극렬한 논쟁가의 정수를 보여 주었다.

〈논어〉에 보면 공자가 얼마나 열띤 논쟁가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곧잘 나온다. 공자라고 해서 적이 없을 수 없었고, 그런 이들에게까지 공자는 충서(忠恕)의 가르침을 실천하지는 않았다. 그 첨예한 예로 소정묘(少正卯)를 죽인 일을 들 수 있다.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니 나는 썩 믿지는 않지만, 〈사기(史記)〉나 〈공자가어(孔子家語)〉, 〈순자(荀子)〉 등에는 소개되어 있으니 다소 난감하긴 하다.

소정묘는 공자와 동시대를 산 노나라의 대부(大夫)였는데, 그 역시 제자를 모아 자신의 사상을 전파한 교사였다. 그런데 그의 주장이나 이론이 공자와는 대척점에 서 있었다. 중국의 학자 양영국(楊榮國)은 소정묘는 당시 신흥 지주계급의 이익을 대변했고, 공자는 노예제를 기반으로 한 구체제(舊體制, ancien regime)를 옹호한 지식인으로 규정했다. 범박하게 말하자면 소정묘는 진보 성향의 사상가였고, 공자는 보수성이 강한 사상가였다.

공자는 지금의 법무부장관 쯤에 해당할 대사구(大司寇)가 된 지 이레 만에 소정묘를 체포해 5대 악(大惡)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처형한 뒤 시체를 사흘 동안 궁정에 내걸었다고 한다. 나와 의견이 다르면 공존(共存)은 언감생심, 죽이고야마는 유가의 극단적인 이단 배척의 뿌리는, 아무리 좋게 봐도, 공자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이런 성향 때문에 유가는 다른 종교는 물론 다른 민족까지도 화이론(華夷論)에 사로잡혀 박멸해야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유가의 극악한 이단 구분 악습은 조선의 멸망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지금의 일부 왜곡된 개신교의 논리와도 맥이 닿아 있는 듯하다.

여담인데 내가 처음 쓴 소설 〈소정묘 파일〉은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구상된 작품이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감히 일독을 권한다. 절판의 칼날을 피하진 못했지만, 도서관이라면 어딘가는 꽂혀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유가는 특히 논쟁을 즐겼다. 맹자의 성선(性善)과 순자의 성악(性惡) 논쟁이 있고, 조선시대 때는 전반기는 이기(理氣) 논쟁으로 침을 튀겼고, 후반기는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 논쟁으로 세월을 보냈다. 사상사적으로 볼 때 이 두 논쟁은 조선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대립이었는데, 결국 이(理)의 우월성이 인정되었고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는 논리가 우세승을 거두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는 조선의 불행이었고, 우리 역사의 불행이었다.

의견이 충돌할 때, 이것은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이지 어느 편이 틀린 것은 아니다. 타인의 논리를 존중하고 나의 주장을 설파하는 데서 참된 논쟁의 길은 열린다. 이렇게 열린 귀 열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적의와 멸절(滅絶)이 아니라 화해와 화쟁(和諍)의 눈길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소설가〉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社)大韓佛敎 蓮曹溪宗

종도모집

부처님 지혜광명 시방세계 무명중생 온 누리를 두루 밝게 비추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포교와 기도 불사에 전념하시는 대중스님께 社)大韓佛敎 蓮曹溪宗에서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입종서류

①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④ 사.암 내, 외 사진첨부
⑤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전법사증] 발급
⑥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社)大韓佛敎 蓮曹溪宗 문화관광부등록번호 2018-2호

총무원장 : 지명 혜광 전화 : 054-481-3110 / HP : 010-7109-3111
총본산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산동로 465-11 팩스 : 054-481-3123

본종단 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사업, 장례문화사업, 요양원 등

걸림없이 자재… 大자유 누린 괴짜 선사



정운 스님의
禪의 르네상스 이끈 선지식들

⑫ 무애도인 등은봉과 천연

선(禪)은 당나라 때, 최고로 번성했다. 당시에 최고의 선지식과 수행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나라 때 선지식인 마조도일 · 석두희천 · 경산 법흠 · 남양혜충은 서로를 격려하는 도반이었고, 서로서로 제자를 보내어 지도하였다. 즉, 자신과 인연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 선사에게 제자를 보내어 지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번에는 마조와 석두 문하를 오고가며, 공부한 괴짜배기 선사들을 소개한다.



중국 하남성(河南省) 남소에 위치한 단하사의 삼문식 패방. 단하천연 선사가 주석하며 선풍을 펼친 도량이다.



단하사 조사전에 조성된 천연선사상.

거꾸로 열반 등은봉 선사

등은봉鄧隱峯은 '등鄧' 씨의 아들로 성을 붙여 등은봉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마조도일(709~788)의 제자 가운데 가장 괴짜배기인데, 그에 관한 기록에는 '어린 나이임에도 스스로 결단하여 하고 싶은 일만을 하므로 부모의 말도 소용없었다' 고 한다. 이는 후대에 은봉의 성품이 확고한 주체성을 가진 인물임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은봉은 생몰연대 미상으로 그에 관한 기록은 〈송고승전〉 21권, 〈조당집〉 15권, 〈경덕전등록〉 8권 등에 전한다.

등은봉이 마조 문하에서 수행해도 깨달음에 진전이 없자, 마조에게 작별인사를 한다. 마조가 먼저 물었다.

"어디로 가려는가?"

"석두에게로 갑니다."

"석두의 길은 미끄럽다고 하더구나."

"꼭두각시인 셈치고, 한번 잘 놀아보렵니다."

여기서 마조가 '석두의 길이 미끄럽다' 고 말한 것은 근기가 낮은 사람은 석두 희천(700~791)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경고하지만, 석두 선사는 제자들이 함부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허용치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은봉은 처음 마조선사를 찾아가 공부했으나 깨달음을 얻지 못하자, 마조 문하에서 나와 석두 선사를 찾아갔다. 은봉은 그곳에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은봉은 석두에게로 갔다가 마조에게 되돌아오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두 선지식을 몇 차례 오고가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자, 사형인 남전 보원(南泉普願, 748~834)에게 머물면서 마조의 스승됨을 알고, 마침내 등은봉은 마조 문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마조와의 재미난 일화가 〈마조어록〉에 전한다.

어느 날 은봉이 수레를 밀고 오는 것을 본 마조는 다리를 뻗고 앉아 길목을 막았다. 은봉이 말했다. "스승님 발을 움츠려 주십시오."

그래도 마조가 말을 듣지 않는다. "한번 뻗은 다리는 움츠리지 못한다."

"이미 나아간 것은 물러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끝낸 은봉이 마조의 다리위로 수레를 그대로 밀고 나갔다. 다리를 다친 마조는 도끼를 들고 법당으로 들어가 외쳤다. "아까 내 다리를 상하게 한 놈은 어디 있느냐?"

이에 은봉이 나와 마조 앞에서 고개를 내밀자, 마조가 도끼를 내려놓았다. 은봉이 마조의 법을 받은 것은 8세기 후반으로 마조의 노년기에 해당된다. 은봉이 원화(元和) 중엽(808~820)에 오대산으로 가는 도중, 오원제(吳元濟)가 난을 일으켜 관군과 항쟁하는 상황을 만났다. 은봉은 살육전쟁을 막기 위해 주장자를 들고 양쪽 진영을 날아다니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군사들이 싸움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선사가 날아다녔다는 것은 조금 과장되어 보인다. 이런 표현으로 선사에 대한 존경과 신이함을 묘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훗날 은봉은 남전산(南泉山) · 대위산(大潙山) · 형악(衡岳) · 청량산(淸凉山) 등 곳곳을 두루 행각하며 수행하다가 오대산(淸凉山)에서 입적하였다. 은봉의 기이한 행적중 하나가 거꾸로 입적한 일이다. 은봉은 입적할 때, 거꾸로 죽은 사람으로 고금에 널리 알려져 있다. 열반할 당시의 일화가 〈경덕전등록〉 8권 '은봉장' 에 전한다. 그는 입적할 무렵, 제자들에게 물었다.

"앉아서 죽은 승려가 있느냐?" / "예."

"서서 죽은 승려가 있느냐?" / "예."

"거꾸로 서서 죽은 제자가 있느냐?" / "없습니다."

"그럼, 나는 거꾸로 서서 죽어야겠다."

이렇게 말한 뒤, 은봉은 물구나무 선채로 열반하였다. 제자들이 입관하기가 어려워 애를 먹고 있는데, 그 여동생 스님이 와서 은봉을 살짝 건드리며 말했다.

마조 · 석두 문하 오가며 수행
은봉, 물구나무 선 채로 열반
'단하소불' 공안 유명한 천연
집착 · 관념 자유로웠던 선지식

"오빠는 살아생전에도 괴팍한 행동을 많이 하더니, 죽어서도 이러십니까?"

은봉은 바닥에 똑바로 누웠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열반에 관한 재밌는 일화로 널리 회자되고 있다. 이는 생사해탈의 자재로움을 보인 선사의 모습이다.

목불 태운 천연 선사

선사 가운데 '천연스럽다' 고 해서 그대로 이름이 된 인물이 단하 천연(丹霞天然, 739~824)이다. 천연은 출가 동기부터 심상치 않은 인물이었다. 천연은 어려서 유학을 공부하고, 방온(龐蘊, ?~808) 거사와 함께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장안을 향해 가는 길녘, 한 선사에게서 "세속에서 명예를 추구하는 관리로 선택되는 것보다 수행해서 부처에게 선택되는 것(選佛場)이 어떻겠냐"는 말을 듣고 방거사와 함께 발길을 돌려 마조를 찾아갔다.

마조가 물었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천연은 쓰고 있던 복두를 쳐 올렸다. 이를 본 마조는 곧 그의 근기를 간파하고 웃으며 말했다. "자네의 스승은 석두 선사로군."

"석두라니요?"

"여기에서 남악산을 향해 700리 가면, 석두라고 하는 곳에 석추 장로가 살고 있으니, 그곳으로 가서 출가하게."

단하천연은 석두 문하로 들어가서 3년여 간 부엌일을 하였다. 하루는 석두희천이 천연을 삭발시키고자 행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내일 아침 공양을 마친 뒤, 법당 앞에 풀이 무성하니 풀을 깎아야겠다."

이튿날 다른 제자들은 제각기 낫과 괭이를 들고 나왔으나, 천연만은 삭발할 칼과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석두 앞에 꿇어앉았다. 선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웃으며 그의 머리를 깎아 주었다. 머리를 깎아준 뒤, 정수리가 봉우리처럼 볼록 솟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천연(天然)스럽구나."

불교에서 스님들의 머리카락을 무명초(無明草)라고 한다. 그런데 천연이라고 불린 또 다른 전거가 있다. 단하천연이 훗날 마조 문하로 다시 들어가 머물며 '천연' 이라는 법호를 얻은 내용이 〈전등록〉14권에도 전한다. 단하 천연이 인사를 드리기 전, 그는 승당 안에 안치되어 있던 보살상의 머리 위에 걸터앉았다. 대중들이 놀라 이 사실을 마조에게 고했다. 마조가 승당으로 가서 보고 말했다. "역시 나의 제자로다. 천연스럽기 그지없구나!"

'천연' 이라는 법호가 석두계와 마조계 어록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전하는 것은 천연의 법력이 선종사에서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천연은 깨달음을 얻은 뒤 무애자재한 행을 보이며, 여러 곳을 행각하였다.

그는 낙경(洛京)의 남양 혜충 국사를 친견하기도 하였고, 천태산의 화정(華頂) 선흥사(善興寺)에서 3년을 보냈으며, 우두종의 경산 법흠에게서도 진리를 구하였다. 이렇게 볼 때, 천연은 당대의 선지식들을 모두 친견했다고 볼 수 있다.

불교사에 천연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는 '단하소불(丹霞燒佛)' 공안이다. 천연이 만행하는 도중, 추운 겨울날 낙동(洛東) 혜림사(慧林寺)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승려들은 사찰에서 하룻밤 묵거나 잠시 기거할 수 있는 점이 승가의 불문율이다. 필자도 중국 사찰 순례를 하면서 절에서 자주 머물렀다.

천연 선사가 그 절에 너무 늦게 도착했는지, 밥도 먹지 못하고 잠을 자려니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천연은 법당에서 목불(木佛)을 내려다 쪼개서 불을 피워 따뜻하게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사찰에서는 난리가 났다. 승려들이 예불을 하려고 보니, 불상이 없었다. 마침 부엌에 있던 원주 스님이 타다 남은 목불을 발견했다. 원주는 대중들을 불러 모으며 소리쳤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소란스럽게 웅성거리자, 천연선사는 천연덕스럽게 문을 열고나오며 말했다. "소승은 이 절의 부처님이 법력이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부처님 몸에서 사리가 나오나 했더니, 사리가 나오지 않더군요."

원주 스님은 너무 기가 막혀 화냈다. "나무 불상에서 무슨 사리가 나옵니까?"

그러자 천연 선사는 태연스레 말했다. "사리도 나오지 않는 부처인데, 불 좀 피워서 몸 좀 녹였거늘 무슨 큰 죄라도 됩니까?"

목불(木佛)은 불을 지나지 못하고, 진흙 부처는 물을 지나지 못하며, 청동 부처는 용광로를 지나지 못하는 법이라고 했다. 형상에 집착해 그것이 최상이고, 최고라는 분별심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다. 저 공안은 관념을 두거나 집착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지, 법당의 부처를 함부로 훼손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면서 제자들에게 '사리를 섬기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는 말씀도 한번쯤 상기하자. 이교도들이 가끔 이 내용을 역이용하고 있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 배짱 두둑한 이야기가 있다. 천연이 천진교(天津橋) 위에 드러누워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그곳의 유수(留守) 정공(鄭公)이 일어날 것을 종용하였다. 당연히 관리가 지나가니 일어나서 예를 표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천연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딴청부리자, 정공이 천연에게 물었다.

"왜 사람이 지나가는데 일어나지도 않습니까?"

"일 없는 게 중이요."

정공은 천연에게 귀의해 옷 두벌을 보내고 날마다 양식을 보내주었다고 한다. 은봉과 천연, 출가해 이 정도 걸림이 없어야 진정한 대 자유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창 종

– 사단법인 국제불교승가회 –
대광불교조계종

종정 보승 덕산 총무원장 도현

임원진

원로원장 원성 | 원로부원장(부산교구원장) 지현 | 종회의장 서암 | 교육원장(경남교구원장) 도엽
국제포교원장 정담 | 감사원장 원종 | 사정원장(전남교구원장) 보운 | 호계원장 혜원
법사단 회장 금강심 | 사단 이사장 김태형 | 이 사 손진구, 강유석, 이정문, 김도엽 | 감 사 진은정, 신은숙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장례문화 및 납골당
- 사업승려 등 수행자 복지사업 교정 다문화 전통문화사업

입종안내
- **구비서류 :** 승려 및 법사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사진 3매 / 법당 안 사찰건물, 사찰간판 각1매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1부
- 입종 종도는 승려증(법사증)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 한해서 위촉장 및 추대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사암의 재산권에 대하여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본 종단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한 종무행정을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평생교육원 운영 원장 도엽스님
- 창원문성대 출강 / 평생교육실습전문기관
- 동양 심리상담 2급 지도자 과정 http://www.boepo.co.kr

선포불기 2563(2019)년 7월1일

문화관광부등록 제7호
(법인등록번호 231021-0002747)

총본사 - 회룡사
경남 사천시 사남면 가천안길44-66 / 010-4001-8476

총무원 - 용주사
경남 밀양시 초동면 초하로 634-19 / 010-4505-7435

낙원상가에서 영남권으로 옮긴 후
초간편 염불전문시스템 하나로 영남권 대·소사찰 석권!

가장 실수없는 선택법 : 초간편 본품으로 법당에서 염불을 해본 후 선택

장기할부 / 카드환영 / A/S를 생명같이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299만원이면 명산대찰 수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 대표 박 공 희 소리 구경값 한잔

욕구 많으면 고통도 많다



新 불교사자성어

㉓ 오음성고(五陰盛苦)

오음성고(五陰盛苦), 오음(五陰)이 치성한 데서 오는 괴로움을 '오음성고(五陰盛苦)' 라고 한다. 오음은 오온으로서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의 가리킨다.

불교에서는 인간, 즉 사람은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색(色) · 수(受) · 상(想) · 행(行), 식(識)으로서 이것이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 요소이다. 색은 우리의 몸 · 육체 · 신체를 가리키고, 수상행식 네 가지는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다. 수(受)는 느낌 · 감정 · 감각 등 감수성을, 상은 생각 등 사유 작용을, 행은 생각의 형성과 진행 상태를, 식은 분별 · 인식 · 판단력 등 의식 작용을 말한다.

이와 같이 인간은 이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했는데, 이 다섯 가지를 크게 나누면 앞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육체와 정신, 두 개로 귀결된다. 따라서 육체와 정신 둘을 모두 갖고 있어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사람이 아니다. 육체만 갖고 있으면 목석이고, 정신만 갖고 있으면 귀신이나 다를 바 없다.

오음성고(五陰盛苦)란 육체적 · 정신적인 욕구와 욕망을 말한다. 인간은 누구나 부(富)에 대한 욕구,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구, 성욕과 명예욕,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 · 짜증 · 고민 등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오음성고, 또는 구부득고(求不得苦)라고 한다. 욕구 불만족에서 오는 괴로움이다.

욕구는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욕구하는 바는 개인에 따라서 다른데, 소비하는 것을 좋아해서 고가품이나 사치품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체력이 왕성해서 성욕이 강한 사람이 있다. 이런 육체적 · 본능적인 욕구는 금욕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억제하기 힘든 면이 있다. 인내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큰 괴로움의 하나인 것이다. 그것을 통칭 '오음성고' 라고 한다.

남녀는 구조적으로 서로를 갈구한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본능, 또는 연애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이성을 사랑하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순수하다고 할 수 있다. 흉이나 수치가 아니다. 누구나 이성에 대한 욕구는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은 많은 괴로움을 겪는다. 우울을 느끼다가 그것에 잠기고,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

욕구가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괴로워하게 되는데, 욕구가 많으니 고통도 많다.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것으로 모든 욕구가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20평짜리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 얼마 동안은 행복하고 즐겁다. 그러나 1~2년이 지나면 좀 더 넓은 평수를 원하게 된다.

욕구란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이다. 그것은 종점 없는 기찻길과 같고, 궤도를 순환하는 일과 같다. 우리는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한다. 충족을 느끼다가도 모자라게 보이고, 가득 채웠다고 생각하다가도 비었다고 느끼는 것이다. 육체를 갖고 있는 한 끝나지 않는 것이 욕구와 욕망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더 즐거움을 누려보고자 한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부처님 경전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을 '4고8고(苦)' 라고 하여 모두 여덟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생로병사 네 가지와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득고, 오음성고이다. 그러나 결국은 오음성고(육체적, 정신적 괴로움) 한 가지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부(富)와 명예, 이성 등을 갖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욕망과 본능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사건, 사고를 일으킨다. 폭력, 절도, 성폭력 등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사회적인 범죄는 당하는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적 효과는 인성을 순화시켜서 문화적인 인간을 만든다. 교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인적인 인간을 만든다. 인간은 교육을 통하지 않으면 동물보다 더 잔혹한 짓을 하게 된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간절히 얻으려면 물음으로 묻지 말라



격절록 강설

㉓ 노조끽반 2

[評唱 2]

僧問 "如何是雙林樹" 祖云 "有相身中無相身" 僧云 "如何是有相身中無相身" 祖云 "金香爐下鐵崑崙" 又問 "如何是學人著力處" 祖云 "春來草自青" 僧云 "如何是不著力處" 祖云 "山崩石頭落 平川燒火行" 魯祖如此為人 諸公作麼生會. 試參詳看. 所以古人道 "欲得親切 莫將問來問"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쌍림수(雙林樹)입니까?"

노조가 말했다.

"상(相) 있는 몸 안에 상 없는 몸이다."

스님이 말했다.

"어떤 것이 상 있는 몸 안에 상 없는 몸입니까?"

노조가 말했다.

"금향로(金香爐) 아래 철곤륜산(鐵崑崙山)이로다."

또 물었다.

"어떤 것이 학인이 힘을 쓸 곳(著力處)입니까?"

노조가 말했다.

"봄이 오면 풀은 스스로 푸르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학인이 힘을 쓰지 못하는 곳입니까?"

노조가 말했다.

"산이 무너지니 돌이 떨어지고 잔잔한 시냇물이 불길을 태운다."

노조가 이렇게 사람을 위한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시험 삼아 참구해 보라! 그래서 고인이 이르기를 "몸소 간절히 얻고자 하면 물음으로 묻지 말라(欲得親切 莫將問來問)" 고 하였던 것이다.

這僧致箇問端 魯祖便如此答 這僧如此進一轉語 不妨奇特. 爭奈魯祖是作家. 爐韛有大手段底 也出他不得. 後來雪竇傍不肯 便云 "好劈脊便打" 大眾好去這裏代這僧一轉語 免見雪竇恁麼道. 若是具眼腦漢 終不向言語裏作活計.

이 스님이 (이렇게) 물었기에 노조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스님이 이와 같이 일전어(一轉語)를 올리니 대단히 기특하다.

그러나 노조가 작가인 것을 어찌 하겠는가? 화로와 풀무를 쓰는 대단한 솜씨가 있어서 (이 스님이) 한 마디도 못한 것이다.

뒤에 설두가 곁에서 이를 긍정하지 않고 바로 말하기를 "그때 등판때기를 후려갈겼어야 했다" 고 했는데, 대중이 여기서 이 스님을 대신해 일전어를 했다면 설두의 이런 말(=질책)을 면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안목을 갖춘 사람(眼腦漢)라면 끝내 말속에서 활발하게 계교부리지 않을 것이다.

---

*崑崙山(곤륜산)

곤산崑山. 중국中國 전설 속에 나오는 산. 처음에는 하늘에 이르는 높은 산 또는 아름다운 옥이 나는 산으로 알리어졌으나 전국戰國 말기末期부터는 서왕모西王母가 살며, 불사의 물이 흐르는 신선경神仙境이라 믿어졌음.

*欲得親切 莫將問來問(욕득친절 막장문래문)은 선림승보전(禪林僧寶傳)에 남원혜옹(南原慧顒)의 말씀으로 전한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㉓ 이해의 길 3

불교는 인간의 종교

"번역은 반역이다."

흔히 번역의 어려움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번역은 단순히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는 일이 아니다. 언어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철학이 총체적으로 담겨있기 때문이다.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 번역에 오역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번역은 문화와 역사 전체를 옮기는 작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Religion을 '종교' 로 번역한 것은 단순한 오역을 넘어 문화적 배경을 담지 못한 반역의 대표적 예다. 지난 호에서 언급한 것처럼 릴리전은 신과 인간의 재결합을 의미하지만, '종교' 에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한자로 종교(宗敎)란 글자 그대로 '으뜸가는(宗) 가르침(敎)' 이다. 그런데 왜 종교를 으뜸가는 가르침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종교가 인간의 근원적인 물음, 즉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위대한 학문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분야에서만 의미를 가질 뿐, 궁극적인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오직 종교만이 그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에 으뜸간다고 한 것이다.

아직도 종교가 불교용어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중국인들은 인도어로 된 불교경전을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능가경〉에 있는 '싯단타(Siddhanta)' 를 '으뜸' 이라는 뜻을 지닌 '종(宗)' 자로 번역하였다. '싯다(Siddha)' 는 '성취된 것' , 그리고 '안타(anta)' 는 '극치' 라는 뜻이다. 두 단어를 합치면 싯단타는 '성취된 것의 극치' 를 뜻하는데, 이를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언어의 길이 끊어진(言語道斷) 깨달음, 열반이 된다. 그리고 '데샤나(Desana)' 는 '가르침(敎)' 을 뜻한다. 결론적으로 종교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 궁극적 진리(宗)를 언어를 통해 가르친다(敎)는 의미가 된다. '으뜸가는 가르침' 이라는 한자의 뜻과 꽤나 잘 어울리는 번역이다.

그런데 릴리전이 종교로 번역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상실된 채 신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그로 인해 종교의 '원조' 인 불교가 종교가 아니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불교 입장에선 통탄할 일이다. 이러한 왜곡은 잘못된 번역, 동양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역의 결과다. 그래서 서구의 종교학자들은 릴리전과 종교의 차이를 극복하고 동서양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거룩함(聖)' 을 통해 종교를 새롭게 이해하였다. 거룩함의 서구적 표현이 곧 신이며, 불교적 표현이 깨달음인 것이다.

종교학자들은 거룩함의 특징으로 초월성과 절대성, 궁극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불교의 깨달음은 상대적인 모든 것이 초월된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거룩함의 특성과 잘 어울린다. 우리는 돈이나 권력, 이념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이를 궁극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언젠가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종교는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가르침이다. 저명한 종교학자인 폴 틸리히(Paul Tillich, 1886-1965)는 이를 간명하게 종교는 '궁극적 관심(Ultimate Concern)' 이라고 정의하였다.

불교의 깨달음은 어떤 절대적 존재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종교적 체험이다. 불교를 자력종교(自力宗敎)라 부르는 이유다. 붓다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등불 삼고(自燈明) 진리를 등불 삼아(法燈明) 정진하라고 당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인간은 원죄를 안고 살아가는 신의 피조물이 아니라 우주의 주인공이라는 것이 불교적 시선이다. 각자가 우주의 중심인 이유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품, 즉 불성(佛性)을 본래부터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달음을 얻은 존재(覺者)를 붓다(Buddha)라고 부른다. 석가모니 붓다는 이를 직접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다. 불교는 신의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종교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일 주 문



백범 김구 다례재

원경 공주 마곡사 주지 스님은 6월 26일 마곡사 경내 특설무대서 '백범 김구(원종 스님) 70주기 추모다례재'를 개최했다.



2019 마음등불 개최

신공 사단법인 동련 이사장 스님은 7월 26~28일 내원정사에서 2019 마음등불 '나를 찾는 선-마음이 행복한 나를 찾아봐'를 개최한다.



'붓다의 철학' 특강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는 7월 10~31일 수요일 오후 7시 서울 다보빌딩서 '붓다의 철학' 주제로 대원불교문화대학 특강에 나선다.



지방자치 행정대상 수상

강창일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은 6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행정대상'을 수상했다.



호국불교조계종 무명용사 위령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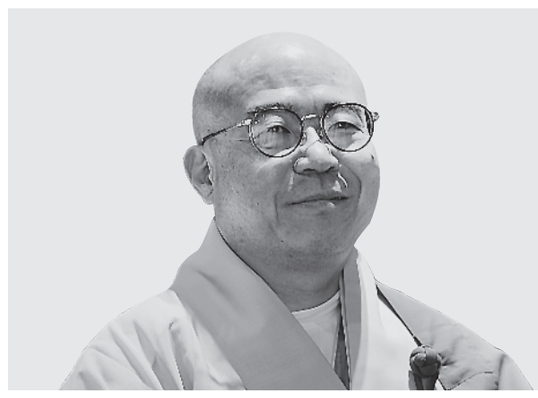
총본산 법전사서 6월 24일 봉행

(사)한국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본산 법전사(종정 혜륜)는 6월 24일 제42회 순국선열 호국전몰군경 육탄10용사 월남참전 무명용사 합동위령대재를 경내 대강당서 봉행했다. 위령재는 (사)한국호국불교조계종 의전단의 집전과 권공 의식, 살풀이, 헌화 및 분향, 추모재헌시 등으로 진행됐다.

(사)한국불교조계종 종정 혜륜 스님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과 미족을 위하여 순국하신 영령들과 일체 고혼, 애혼들을 위로한다. 이들을 천도해 이고득락토록 하며 나아가 이 겨레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위령재를 봉행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혜륜 스님은 이어 "부처님 자비광명으로 유주무주 중생을 제도하며 6.25의 참상을 거울삼아 국민들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르고, 나라사랑의 충성심을 일깨워 민족화합의 선구자적 역할과 남북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며 "앞으로 경건하고 알찬 국민적 행사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추모기념사를 했다.

한편 행사에는 종정 혜륜 스님과 대각교단 총재 석가산 스님, 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대불조계종 종정 월성 스님, 박희도 前육군참모총장, 최용주 육탄10용사 중앙회장, 윤한우 고엽제경북지부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가야불교문화는 우리 뿌리와 미래"

Interview

가야문화진흥원 2대 이사장 송산 스님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가야문화연구소 역할 확대
시민 위한 콘텐츠 개발 주력
학술연구 및 자료조사 추진

"소외된 역사, 가야와 가야불교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강조해야 합니다. 가야 역사는 우리의 뿌리이자 미래입니다."

(사)가야문화진흥원 제2대 이사장에 김해 불인사 주지 송산 스님이 취임했다. 지난 6월 21일 김해 휴앤락 메르시앙홀에서 열린 이사장 이·취임식에서 신임 이사장 송산 스님은 가야와 가야불교 역사를 재조명하고 연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송산 스님은 "삼국시대 한 축을 담당했던 가야국은 대가야가 멸망하기까지 42년~562년이란 장구한 역사를 가진 국가였다"며 "한국사에 큰 획을 그으며 자신들의 문화를 형성한 엄연히 존재했던 역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되고 소외된 가야 역사를 이젠 돌아봐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를 위해 송산 스님은 가야문화진흥원 산하단체인 가야문화연구소와 가야불교연구소를 통해 지속적인 학술대회와 연구 및 복원 사업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송산 스님은 구체적인 방향으로 △가야불교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인도 아요디아의 역사문화 및 불교 기록 연구 △인도에서 김해까지 전래된 육로와 해상루트 연구 △허황후, 장유화상, 파사석탑 및 연계 사찰 연구 △국내외 가야불교와 문화에 관한 원전 및 기록 수집 △가야문화, 불교문화에 관한 콘텐츠 개발 등을 꼽았다.

송산 스님은 특히 가야문화연구소 역할을 확대해 김해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역사를 소개할 것이라 말했다.

"그동안 학술대회 및 연구 활동을 통해 심도 있는 내용과 주장으로 가야불교를 증명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연구 활동의 중요성을 지켜나가며 지역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활동으로 관심을 유도할 것입니다."

송산 스님은 지역 내 사학자를 초대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가야 역사의 숨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UCC 공모전도 열어 참여도를 높일 방안이다.

"지금은 스토리 있고 내실 있는 문화선도 방법이 요구됩니다.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높은 참여율이 보장되는, 모두가 주인 되는 행사로 방향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또한 다큐 차마고도처럼 가야불교 전래에 관한 순례길을 다큐 영상으로 담고 싶습니다. 일반인의 관심을 높이고 가야 역사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토대로 삼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송산 스님은 1대 이사장 인해 스님을 비롯해 임원 스님들께 감사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화합하며 불교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송산 스님은 "초대 이사장인 인해 스님의 열정과 원력이 진흥원을 탄생시키고 초석을 다졌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 묵묵히 진흥원의 밑거름이 되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호국금강사 '호국영령 위령대재'

조계종 군종교구, 포천 소재 육군 5군단 법당서 봉행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한국전쟁 발발 69주년을 맞아 경기도 포천 소재 육군 5군단 법당 호국금강사에서 6월 25일 '제36회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봉행했다.

제5군단 호국영령 위령대재에는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 안준석 5군단장, 정동호 前5군단장의 미망인 구형선 불자, 5군단 호국금강사 주지 혜문 장세훈 법사 등 사부대중 350여 명이 동참했다.

위령대재는 지작사령부 보경 함현준 법사 등 지작사령부 예하 현역 군승 20여 명의 천도의식으로 시작됐으며, 호국금강사 금강보전에서 추념법회가 진행됐다.

위령대재서는 한국전쟁에 전사한 국군과 참전국 장병, 그리고 북한군 전사자의 왕생극락 기원이 이어졌다.



제36회 6.25 전몰장병 호국영령 위령대재서 참석자들이 순국선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모습.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은 "16개국 참전영령과 국군영가들께 부처님의 광명이 깃들어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나서 설법의 인연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보경 함현준 법사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소중한 목숨을 바쳐 조국과 민족을 지켜내 주신 호국영령들의 거룩하신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숭고한 얼과 뜻을 기리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숭고한 정신을 모든 대중들과 장병들 마음에 영원히 살아숨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군단장 안준석 중장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과 물질적 풍요로움은 거져 얻어진 것이 아니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이 있었기에 갖게 된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호랑이 유격대' 안내판 제막

불암사 · 육사 함께 전사 사관생도 기려



불암사(회주 일면)는 6월 19일 육군사관학교, 남양주시와 함께 사찰 입구 호랑이 유격대 새 안내판을 제막했다. 육군사관학교는 과거 1996년 호랑이 유격대를 기리고자 불암사에 철판으로 된 안내판에 설치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안내판이 낡고 녹이 슬어 6·25 전쟁 69주기를 앞두고 남양주시가 이번에 나무로 된 새 안내판을 새로 제작하게 됐다. **신성민 기자**

"젊은 불자 육성 발원"

대불련 총동문회, 제17회 전국동문대회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백효흠)는 6월 22~23일 고창 선운사 일대에서 제17회 전국동문대회를 고창 선운사일대에서 개최하고, 젊은 불자 육성 발원문 및 결의문을 채택했다. '화합과 정진으로 하나되는 대불련'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국동문대회는 대불련총동문회 전북지부(지부장 홍수기) 주관으로 500여 명이 참가했다. **노덕현 기자**

전국 청년불자 통일 기원

대불청, 6월 22~23일 전국불교청년대회 개최



대한불교청년회(중앙회장 하재길)는 6월 22일부터 1박2일간 파주 임진각에서 창립 99주년 기념 제38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600여 명의 청년불자들이 참가해 '조국통일기원 전국 청년불자 통일선언문'을 결의했다. 또한 올해 불청대상은 지난해 불청대회 주관지구인 울산경남지구의 강인식 회장이 수상했다. **노덕현 기자**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3, 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51호 | A13 | 전면광고

온갖 형상을 그릴 때에 좋고 추한 것이 화공을
따르듯이 착하고 착하지 못한 업의 인연은
모두가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네.



부처님 말씀 읽기 - 《제법집요경》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천도재,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최 면 (역 학)

- 최면개인지도(속성, 개인, 그룹)
- 최면심리치료상담
- 역학(명리)개인지도(속성책임지도)
- 전생체험, 퇴마

부산법향선원
010-7595-4366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사주명리,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 (5개월) 기문둔갑 : 150만원 / 사주명리 : 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책-검색★

①천기누설운(運비밀공개)
②종교의본질(비교종교)
③대박재테크운(運재테크)
④천기소설예언자(삶인도)
⑤기도와명상(최상수행법)
⑥자기계발핵심(성공기술)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스님께만 전수

돌도 깨고 쇠도 깨는 특수 원력을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신차·외제차·중고차

#리턴 포인트로 100% 캐시백 받으세요#
(물건을 사면 100%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❶ 찻값에 10%만 내시고 할부 끝날 때까7지 공짜고 타세요.
❷ 1년 지나면 소멸되는 자동차 보험도 100% 캐시백 받으세요.
❸ 삼성, LG 가전제품도 100% 캐시백 받으세요.

010-9469-1256

단원 정통 명리학

- 교육 : 수시접수 | 초급, 중급, 연구(격국)반 접수 | 1년 과정 — 수강료 : 360만원
- 단원 정통 명리학 : 실증철학 정규과정 수강생 접수 — 단원역리학협회 법인 자격증 제도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 학문

지현명리연구원 : 역학전문교육처 志晛 : 韓 基子(恩炅)
명리학 / 작명학 / 육효학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특허)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54-1 3층 웹사이트 cafe.daum.net/3332han cafe.naver.com/3332han

단원역리학협회 010-4470-6314

(종)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

귀의 삼보하옵고, 미래 사회를 밝혀나갈
새로운 종단〈**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에서
함께 할 지역 종무원장을 모십니다.

입종 서류 및 기타 문의

총무원 - 산청	경남종무원 - 창원
010-9422-1233	010-4582-3366

소小 평平 원院

소 소중한 인연들의 평 평안과 치유를 원 기원하는 곳



소암 김지엽

사주명리
신점신병 전문
자녀문제

경북 청도군 금천면 사전1길 6-9

010-8007-1680 / 010-4254-8274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세 미만
• • •
경북 포항
010-4448-375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대중불사 인연을 모십니다

- 위치 :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804번지
- 토복건축허가 득하였으나 건축 자금 8천만원이 부족하여 지면으로 좋은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불교 천일종 청룡암 | 주지 도광
농협 351-0678-9831-53 한상오
010-2385-3789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명산 상운사
• • •
010-3764-3661
033-482-3382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40 - 50대
• • •
경상남도
010-3942-6003

결혼상담실

- 나라에 충성
- 부모님께 효도
- 짝을 만나 행복

매월 관음재일 모임
결혼상담실 **광복사**
010-5624-1365
02-306-7988

대한민국 조달청에서
인증한 우수제품
나무가 부식되지 않고
불에 타지 않는 **칠공법**
환란을 사전 대비합니다.

열린음악회 한번 하시요
七光스님 合掌 기원정사
010-6257-6795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을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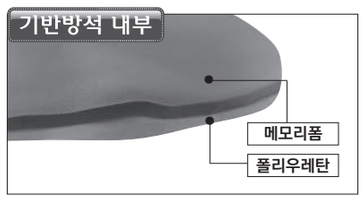
구입 문의 | 02-2004-8216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 행 도 우 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3, 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51호 | A14 | 전면광고

만약 법을 듣기를 좋아하여
싫증을 내지 않으면
불가사의한 법을 깨닫게 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화엄경》에서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임야 안내

- 위치 : 진도군 지산면 앵무리 산19번지, 21-2번지, 22번지
- 임야 14,600평 정도
- 가액 : 1억 1천만원
- 사정 상 급매

010-8666-6210

사찰 안내

- 위치 : 창원역 15분. 마금산 온천 5분 거리. 신도시 개발지 인접 ● 대웅전(단청완료). 삼성각. 주지상담실(황토방). 요사채. 공양간. 대형 저온창고 대형창고 2개. 차고. 주차장 500평 ● 총면적 : 6,200평
- 사찰 총 불사비용 35억 투자함
- 가액 : 16억(대출금 5억 포함) ● 계약 시 5억 주시면 등기부등본 넘겨줌. 나머지 6억은 5년간 연차적으로 불사금으로 완납 가능
- 신도시 개발로 4차선 도로 공사 중

010-9647-0723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5421-1536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2140번지(도로명:남양길 200)
- 대지2건. 총 약 460평
- 하천부지,공지 약80평 사용중
- 건평 50평 중 20평 신축중
- 관음보살님과 약사의약수 신통영험의 도량
- 금액 : 3억 8천 5백만원(가격절충 가능)

054-371-2229
010-6781-7890

광진불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300평
◎ 법당 : 50평 외
◎ 요사 : 70평
◎ 매가 : 36억 5천

◎ 위치 : 충남
◎ 부지 : 900평
◎ 건평 : 50평
◎ 산및사찰,교통편리,여건좋음
◎ 매가 : 3억 5천만원 정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 신행상담, 사찰순례,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북천
- 총부지 : 임야 2000평
- 건물 : 법당 16평. 요사 30평 조립판넬 구조
- 자연경관 수려하고 공기 좋음
- 이명산, 지방문화제, 마애불 있음
- 북천 코스모스 축제 하는 곳
- 가액 : 1억 7500만원
- 대출 : 2500만원 안고 1억 5천만원

010-5325-3068

포교당안내

- 위치 : 충남 공주 계룡
- 평수 : 약 30평. 큰방. 거실. 중간방 2개. 마당. 기름보일러
- 독채 전세. 위치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3293-170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전원주택/임법당

- 위치 : 경남 합천군 쌍백면 소재 쌍백초교 바로 뒤
- 대지 : 135평
- 건물 : 35평(모두 수리함)
- 모든 비품 드립니다.
- 가액 : 9천 8백만

010-8585-0961
010-3549-0962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소재. 진주와 합천 중간지점(각 20분 소요)
-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정자 3m×5m 원목. 산사음악회 무대
- 총 대지 300평. 정원 조성 잘 되어 있음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벽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언제든 양도 가능
- 가액 : 2억(상담가능)

010-2607-7114

사찰 안내

- 위치 : 전주 중심지 한옥마을 인근
- 이성계 태조대왕 천년 영험 기도터
- 법당. 요사채. 극락전(최근2년신축)
- 토지 : 총 약 500평. 국유지 1만평 무상 사용
- 천년기도 용궁 약수터. 대나무 숲 울창 편백나무 3천그루(풍수명당 길지)
- 석불 1억 5천만원 설치함
- 가액 : 6억(2억포함). 전세 2억 가능함
- 계약 시 2억 받고 등기이전 해드림 잔금 2억(3년 간 불사하셔서 분할 납부)
- 땅값만 받고 급매(5층 신축 가능 토지)

010-9647-0723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에 있는 전망좋은 사찰
- 대지 : 35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 (1동은 3집 월세받음)
-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 13억 5천만원
- 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010-3269-1023

포교당급매

- 위치 : 부산 기장 역세권 시장 3분. 역사 2분 거리
- 3층 건물. 2층 80평. 3층 주택 50평
- 삼존불 지장독불 시설 완벽 옥상 사용 가능
- 가액 : 2층 보증금 2천/월 60만. 3층 보증금 1천/월 50만
- 2층만 하여도 됨
- 기장에 이보다 싼 건물 없음

010-6520-585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상남면
- 대지 : 약 100평
- 법당. 아미타 삼존불. 신중32 후불 미타. 관음. 지장108불
- 요사채 방 5개. 화장실(내외) 2개 다용도실(창고) 2개
- 가액 : 1억 4천. 현 성업 중
- 절충가능

010-9146-3568

암자용 구옥 매매

- 위치 : 경북도청 새청사에서 6km
- 대지 : 약 70평(문중 땅으로 영구임대)
- 구조 : 방3. 주방1. 화장실2 (태양열 온수)
- 대지사용료 : 연간 20만원 텃밭있음
- 가액 : 1천 5백만원(분할가능)

010-8588-992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토굴(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 미양
- 방향 : 남서 간방
- 건물 : 요사채 1동 법당 1동
- 대지 : 184평
- 가액 : 1억 5천

010-9859-3680

암자안내

- 위치 : 울산 북구 대안동
- 총면적 3900평
- 법당 13평, 삼존불
- 주변산세 수려함
- 보증금 3천 / 월 50만원

010-6782-6460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추부면
- 종교부지 280평. 임야 50평. 총 330평
- 법당 23평(철재경량골)
- 삼성각 : 30년된 목조기와 7평. 단청
- 요사채 : 철재스레트 30평
- 방5개. 거실. 주방. 화장실(실내1, 실외1)
- 사찰 뒤는 산, 앞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망좋은 곳
- 가액 : 2억(융장 6천만원)

010-3875-6305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이서면 마을 안. 186평
- 조립식 법당. 15평
- 청동, 삼존불, 후불, 104위신중, 독성, 산신 탱화, 요사채, 냉방, 온히터, 앰프시설 완비, 주차시설 완비, 창고 등
- 보증금 1000만 / 월세 30만
- 시설비 3700만. 절충가능

010-9150-0029

사찰안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절터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 836번지
- 836번지 : 약 300평, 835번지 : 임야 약 130평, 총 430평
- 암자 지어서 수행 하실 분 (깨끗한 약수샘물 나옴)
- 사정 상 급양도 4000만원

010-6431-0408

사찰안내

- 위치 : 경기 파주 지역
- 대지 : 90평
- 건평 : 1층 70평. 요사 2층 30평. 법당
- 주차편리. 공기최상
- 가액 : 4억 7천만원

010-4012-5500

토굴안내

- 위치 : 충남(대전, 세종 3-40분 거리)
- 대지 : 약 200평
- 법당 : 컨테이너 하우스 1동
- 요사 : 약 20평. 방사2. 주방. 해우소
- 개인선방 하실 분 적합
- 가액 : 전월세 모두 답사 후 절충
- 각종 집기 및 가전제품 구비 몸만 오셔도 가능함

010-3977-2123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 177
- 토지 118평. 컨테이너 5.5평
- 진입로. 전기. 급수 있음
- 가액 : 2천 9백만원. 주인직

010-8899-8899

사찰/포교원안내

사찰
- 위치 : 종로구 평창동 54-1
- 건평 : 약 70평
- 건물1 : 방3. 욕실2. 다용도실
- 건물2 : 황토방1. 욕실1 주방. 거실. 다용도실
- 건물3 : 법당. 원룸1
- 전 : 약 200평. 5필지
- 주차 약 10대 가능
- 가액 : 19억

포교원
- 위치 : 종로구 평창동 193-1 A동
- 4층 건물. 근린상가
- 건평 : 약 270평
- 주차 약 9대 가능
- 대지 : 약 108평
- 가액 : 29억

010-2325-1014

사찰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326번지
- 162평
- 생활 및 영업할 수 있음
- 가액 : 7억 5천만원

010-8666-6210

전국사찰안내

- 사찰 / 사찰터 / 암자 / 포교당 수익성 부동산 거래하실 분
- [30년] 전문 경험으로 연결하겠습니다.
- 망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주십시오.
- 보물불감(작은 법당. 3존불 조각) 30년전 천만원 매입. 개인사정 급하여 파격으로 거래(상담환영). 원통지름 12㎝×높이 25㎝

불자공인중개 공신공인중개사

010-3382-0555

별장같은 토굴

- 위치 : 경북 영양군 수비면 일월산 자락
- 친환경 현대식 목재건물
- 건평 30평, 대지 밭 1천평
- 앞, 뒤 소나무. 10대 이상 주차 가능. 주차장 완비
- 가액 : 2억 3천(가격 절충 가능)

010-5424-4969

토굴임대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남로 (남한강변)
- 건물 : 약 50평(법당. 큰방. 거실. 중간방2. 주차공간 넓음)
- 주변 환경이 매우 좋음
- 즉시 법회 가능

010-3188-0511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진전면 오서리
- 법당 : 38평 ● 요사 : 65평
- 대지 : 1천평 ● 임야 : 4천평
- 가액 : 12억(대출 2억 5천)

010-4547-4990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남구
- 2층 상가 60평
- 거주가능
- 삼존불, 탱화 시설완비
- 다량주차 가능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 1억 2천만원

010-2857- 2811

수행관(기도처)안내

- 위치 : 김천시 지례면 거물길 379-21
- 아주 조용한 산사. 면소재지. 도보 가능함
- 수행자(기도인) 딱 맞는 수행관 안내합니다.
- 원룸. 투룸. 쓰리룸. 한옥독채가 있습니다.
- 금액은 보신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010-5822-2452
010-5807-2452

토굴 겸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북 경산 갓바위부근
- 임법당 40평. 크고 아득함
- 주차시설 좋음. 텃밭있음

010-2395-8891

日本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오사카 쯔루하시와 조선 이찌방 사이. 재래시장 입구. 대각사 포교당
- 무속인, 신명제자, 법사 운행하는 자리로써 위치 최고 좋음.
- 한국사찰 운영 관계로 급히 안내합니다.
-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80-5358-5060
070-8836-5060

암자(전/월세)구함

- 위치 : 경남 및 부산 암자 구합니다.
- 보증금 1천만
- 월세 10 ~ 20만
- 포교당은 사양합니다.

010-3288-9406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처의 지혜, 과학자들 실천해야"

'부다페스트 LA' 연사로 나선 로버트 서먼 교수

티베트 비구계 받은 첫 미국인
일문일답 인터뷰 '불교는 과학'
물질 · 마음 비롯된 '세속' 같아
불교과학 실천할 때 해소 가능

박정현 객원기자

"불교는 과학적 세계관을 갖는다. 나아가 불교는 현대 과학보다 덜 독단적이다."

티베트불교 비구계를 받은 최초의 미국인, 로버트 서먼(Robert AF Thurman · 사진)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불교와 과학을 이 같이 정의했다. "부처님은 과학자"이며 "부처가 설파한 지혜도 과학"이라는 주장이다.

서먼 교수는 6월 초 열린 '부다페스트 LA'에서 연사로 나섰다. 부다페스트 LA는 3일간 다양한 주제의 강연, 워크숍 등을 선보이는 축제다. 서먼 교수의 주제는 '부처님-시간을 거스른 위대한 의사이자 마음 과학자'였다. 불교 매체 트라이시클(Tricycle)은 당일 서먼 교수의 강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인터뷰 기사를 6월 21일 보도했다.

서먼 교수는 비영리 티베트 하우스 미국(Tibet House US) 공동 창립자이자 미국불교학회(the American Institute of Buddhist Studies)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다음은 로버트 교수와의 일문일답.

Q. 강연에서 부처님을 과학자라고 한 말이 도발적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불교는 '세계 종교'로 분류되지만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예언자가 아니었다. 부처는 누구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으며, 힌두교 창조자인 브라흐마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대신 부처는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을 알고, 자신의 실체를 '관계형 존재'로 이해함으로써 스스로를 고통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부처님 가르침의 요(要)가 있다. 현대 의학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고통을 치료하면서도 맹목적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Q.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이를테면 '사성제'는 아유르베다 요법(고대 힌두교 브라만 경전 '베다'로부터 전승된 인도 전통 의학)을 따른다. 즉 장애 증상에 대한 인식(苦), 원인에 대한 진단(集),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滅), 치료법 이행(道)으로 볼 수 있다. 부처를 의사로 보는 것은 학계에서 실제 연구대상이기도 하다.

Q. 하지만 최근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의학 또는 과학으로 보는 시각에 반박한다. 일부 비평가들은 불교가 '과학'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불교가 성전 · 제단이 있는 종교이며, 이를 따르는 신도들이 있다는 이유로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미국인으로서 티베트불교 비구계를 최초로 받은 서먼 교수. 할리우드 배우인 우마 서먼의 부친이기도 하다. 사진출처=트라이시클

그러나 부처님은 인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깨우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즉 승단을 세웠다. 그것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기관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영적인 존재다. 하지만 과학은 영적인 것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과학이 현대 세계 종교'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그 말은 마치 불교가 자연과학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자연과학=과학'으로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개념으로 여기는 것처럼 들린다.

조금 더 공격적이다. 나는 불교가 과학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즉, 부처의 지혜를 과학자들이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들은 물질과학을 연구한다. 그런데 불교는 과학으로 발전한 이 시대 '물질주의'를 '세속주의'로 본다. 부처는 이러한 '물질'과 마음으로부터 근원하는 '세속'을 같은 시각으로 봤다. 그래서 이른바 '불교과학'을 실천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다른 종류의 책임감을 갖게 되고, 물질주의의 독단을 떨쳐낼 수 있게 될 것이다.

Q. 강연에서 부처님을 '사회적 혁명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라. 자신의 이름, 재산, 가족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처는 거리로 나섰다. 기존에 '가진 것' 대신 '삭발'과 '가사'를 택했다. 그는 강력한 인도의 신분제에 맞서 '평등'을 주장했고, 인도인들에게 '자아'라는 개념을 피력했다. 개인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당대 혁명적 사상이었다.

'여성차별' 주제 전시 취소 논란

日 정토진종, 중흥조 저술 포함되자 일방적으로

여성차별과 젠더평등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불교계서도 불교 내 성차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일본불교 거대 종단인 정토진종(淨土眞宗)은 불전에서 언급되는 여성차별에 대한 전시 패널을 연구자 동의 없이 철거, 여성 불교학자들의 대대적인 항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6월 18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집중 조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초, 정토진종의 본산 동본원사(東本願寺)에서 열린 기획전이었다. '경전 속에서 말하는 차별'이라는 주제의 전시회에서 여성 불교학자인 미나모토 쥰코 간사이대학 교수가 제작한 7장의 패널 중 3장이 종단 측 요구로 전시 취소됐다.

미나모토 교수가 제작한 패널은 '경전속의 여성차별'을 주제로,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는 '여인오장(女人五障)' 설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이 중 종단이 전시를 취소한 3장의 패널에는 정토진종의 중흥조인 렌뇨(蓮如) 스님이 자신의 저술에서 "여성이 성불하기 위해선 남자의 몸을 받아야 한다"고 기술한 내용이 포함됐다.

미나모토 교수는 즉각 항의했으나 동본원사 측은 "종단 측의 교의해석에서 경전속의 여성차별에 관한 정식견해가 나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에 미나모토 교수는 "불교의 이름으로 생각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라며 공개 질의서를 제출, 다른 여성 불교학자들과 연대해 지난 5월 하순 불교내의 성차별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열었다.

동본원사 측은 정토진종 총무원장 명의로 공개 질의에 회답하면서 "(경전 등의 불전에는) 저술된 시대적 · 사회적 상황이 강하게 반영되기에, 현대인들에겐 수용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다"며 전시가 취소된 점에 대해 "(여성차별에 대한) 종단의 정식견해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본산의 이름으로 전시가 진행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차별에 대한 항의에 대해서는 "정토진종은 여성의 시점에서 교학을 바라보는 필요성을 중시해, 일찍이 여성 불교학자들을 지원해왔다"며 종단이 성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토진종은 "향후의 문제해결을 위해 종단차원서 연구를 이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제11차 아시아평화 불교도총회 성료

몽골 울란바토르서… 한국태고종, 북한도 참가

불교의 가르침을 기치로 세계평화와 정의,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11차 아시아평화 불교도 총회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됐다. 6월 24일 '부디스트 글로벌도어'와 '더티베트넷'은 성황리에 회향한 총회를 집중 보도했다.

아시아평화 불교도총회(ABCP)는 1988년 UN총회 옵서버로 정식 등록됐으며, 옵서버로 등록된 종교단체 중에서도 보기 드문 불교단체다. 1968년 러시아에서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아시아불교도협회'로 발기해 1979년 울란바토르에서 첫 총회가 개최됐다. 당시 참가국은 네팔, 러시아, 몽골, 스리랑카, 티베트였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21세기 불교의 유산과 그 가치'로, 몽골불교의 총본산인 간단 텍첸링 사원의 주최 하에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열렸다. 이번 총회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파하고, 그 속에서 평화를 이어나기 위한 지혜와 자비의 가치를 재평가하자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제11차 아시아 평화 불교도 총회에 참석한 각국 불교대표들. 사진출처=더티베트넷

총회에는 주최국인 몽골을 비롯해 러시아, 베트남, 대만, 인도, 스리랑카 등 아시아 각국의 불교도 대표들이 참가했다. 한국에서는 태고종이 대표를 보냈으며, 특히 북한의 '조선불교도총연맹'도 대표를 보내 이목을 끌었다.

총회 개막을 기념하는 영상메시지를 보낸 달라이라마는 "첫 총회가 몽골에서 열린 후, 다시금 원래의 장소에서 열린 것을 축하한다. 불교의 가르침은 논리적이고 그 특별함은 연기법에 있다. 이러한 법을 위해 불교도들이 모인 것은 많은 이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치하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불교도, 도 넘은 이슬람 혐오 조장

스리랑카 일부 불교지도자
전국 송출 TV방송 출연해
근거 없는 이슬람 폄하발언

지난 4월 21일 스리랑카에서 일어난 연쇄 폭탄테러사건 이후, 사건의 배후자로 지목된 이슬람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현지에서 거세지고 있다. 특히 불교계가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6월 23일,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평화기구(The Organization for World Peace)'는 스리랑카 현지 상황을 특별 보도했다.

테러의 배후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소행으로 밝혀진 이후, 현재 스리랑카에서는 소수자인 이슬람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테러가 일어난 후 단 몇 주 만에 스리랑카에선 이슬람교도들의 집과 사업장들이 불교 극단주의자들에게 습격을 당하는 등, 국가가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140만 명가량의 인구를 가진 스리랑카에서, 이슬람교도는 약 10%, 불교도는 70%에 달한다.

이러한 불교도들의 이슬람교에 대한 폭력에, 스리랑카의 불교지도자들이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제평화기구는 스리랑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하며 "스리랑카 내에 가장 영향력을 가진 불교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이슬람 혐오발언을 하고, 무슬림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리랑카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출가자협회 '아시기리야 승단(Asigiriya Chapter)'의 지도자 그나나라타나(Gnanarathana) 스님은 최근 스리랑카 전국에 송출되는 TV방송에 출연해 "스리랑카 중부에서 4000명 이상의 여성 불교도들이 사악한 무슬림 의사들에 의해 비밀리에 불임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스님은 이어 "무슬림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교도 손님들에게 불임을 유발하는 약품이 들어간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무슬림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불교도들이 보이콧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이와 관련해서 "(무슬림에게 불임수술을 받은) 여성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등의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전했다.

스리랑카의 이슬람 단체들은 이 발언을 '증오연설'로 규정, 스리랑카 대통령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극단주의적인 논평이 스리랑카의 급진적인 불교민족주의자들에게 급격히 확산된다는 점과 발언자가 존경받는 불교지도자라는 점에서 스리랑카 내 이슬람교 측은 "무고한 무슬림들과 그 생활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 임박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러한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스리랑카 사회 내에서 무슬림들에 대한 증오심을 정상화시키는 한 축이 될 것"이라며 상황의 악화를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

〈10〉 9문–걷기명상

강명희

올바른 걷기로 읽는 마음 상태



좌선 많이 하면 몸 굳어진다
적당히 움직여서 풀어줘야 해
움직이는 걷기명상 行禪 해당
조심스레 발바닥 느낌 집중을

수행으로 가는 8가지 방법

수행으로 들어가는 방법에는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행선(行禪)은 행위를 하면서 관찰하는 것인데, 걸으면서 걸음에 집중하는 걷기명상이 행선에 들어가지요. 주선(住禪)은 걷다가 멈추거나 서면서 동작이 멈춘 상태에 집중하는 명상법입니다. 말을 하다 멈추는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주선이지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버스를 한 대 보내 보세요. 버스를 보내고 머물면서 주선을 하면 좋아요. 목적을 향해 가다가 멈추고 그 자리에 있어 보세요. 목적이 뚜렷한 사람일수록 멈추고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매일 정해진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수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가는 건 되는데 안 가는 게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잘 되는데 약속을 어기면 불편한 사람도 있지요. 약속을 지켜도 되고 약속을 깨도 됩니다. 움직이고 멈추고, 긴장하고 이완하는 행선과 주선이 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둘의 균형이 맞아야지요. 행선과 주선을 결합해서 행위하고 멈추는 행위를 50 대 50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3시간 걸었으면 멈추면서 관찰하는 것도 3시간 해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것에 많은 시간을 쓰고 멈추거나 쉬는 것은 잘 안 하는데,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는 데 성실한지 노는 데 성실한지, 자기 패턴을 잘 모릅니다. 어떤 경우든 균형이 맞으면 괜찮아요. 물 흐르듯이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도 흐르면 문제가 없어요. 막혀 있거나 눌려 있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이 문제지요.

좌선할 때도 장좌불와가 좋다고들 하는데 실제로는 좋지 않습니다. 앉아서 수행하기만 하고 눕지 않으면 몸이 굳어요. 사람들은 수행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장좌불와를 칭송합니다. 앉아서 관찰하고 서서도 관찰해야 하는데, 대개 앉는 것만 오래 하고 서 있는 것은 오래 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만 오래 하고 쉬는 것은 그만큼 안 해요. 이것이 모순입니다. 합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거의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래 누워 있으면 기력이 없어지고 몸이 무거워져요. 피로할 때 누워서 자면 피로가 풀리지만, 그것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8시간 자면 될 것을 12시간 자면 바로 무거워져요. 좌와 우가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와선(臥禪)은 누워서 몸과 마음의 반응에 집중하는 명상법입니다. 잠잘 때 의식이 어떻게 활약하는지 관찰합니다. 와선이 좌선보다 탁월한 점이 있습니다. 좌선하면서 지성을 관찰하다가 눕거든요. 누운 상태에서 나를 관찰하다가 자면 관찰이 지속됩니다. 꿈속에서 관찰이 돼서 꿈꾸는 나를 봅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도 바로 일어나지 말고 그때의 상태를 관찰하면 좋아요. 누워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과정을 관찰하는 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와선입니다. 왜 이런 꿈을 꾸는지 알아차리기도 하고 꿈을 중간에 끊기도 해요. 좌선은 의도적인 수련인데, 와선은 의도적인 수련이 아닙니다. 자연스레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건드려 주지요. 좌선에서 건드리지 못하는 것을 와선에서 건드려 주거든요. 눈도 귀도 닫은 상태에서 안에서 활동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요. 불안이 쌓여 있을 때 무섭거나 도망가는 꿈을 꾸는 경우가 많아요.

어선(語禪)은 두 가지입니다. 말을 할 때도 관찰하고, 말을 안 할 때도 관찰합니다. 말하면서 말 속에 들어 있는 물질, 감정, 생각, 의도를 관찰해요. 말할 때 관찰하는 게 중요한데 무척 어렵지요. 거의 못합니다. 말할 때 관찰하면 말실수를 덜하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단정적이고 확실하고 물질적인 말만 합니다. 명령형, 지시형 말밖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말은 무기가 되지요. 말을 안 할 때 관찰하는 것도 중요해요. 말수가 적으면 다 얌전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속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표현만 안 할 뿐입니다.

묵선(默禪)은 속으로 하는 말이나 생각, 의도, 판단, 시비 같은 것을 관찰하는 명상법입니다. 묵묵히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하는 듣기명상이지요. 상대방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의도나 생각이나 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하면서 들어주면 탁월한 명상이 됩니다. 어선과 묵선을 짝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긴장과 이완, 작용과 쉼, 드러남과 감춤의 상대적인 마음을 어디서나 관찰할 수 있어요.

동선(動禪)은 움직이거나 일하거나 춤추거나 먹거나 행동할 때 그 행동에 집중하는 명상법입니다. 동선을 잘하려면 동선부터 하면 안 돼요. 좌선으로 훈련하고 동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동선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일은 똑같은 동작을 반복할 때가 많거든요. 풀 매는 것도 똑같은 동작이지요. 그걸 선수행으로 하면 동선이 됩니다. 어쨌거나 자기가 자주 하는 것을 잘 관찰하면 그것이 곧 마음관찰이지요.

정선(靜禪)은 움직임을 멈추고 행동을 고요히 하고 생각을 고요히 하면서 고요함에 집중하는 명상법입니다. 고요할 때 관찰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고 편안한 상태가 유지되면 사람들은 명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정선입니다. 감정이 파도치고 업장이 일어날 때만 명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센 것이 올라와서 힘드니까 하지요. 살다 보면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잦아들 때도 있습니다. 흐릴 때도 있고 맑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흐릴 때만 명상하고 맑을 때는 안 합니다. 몸 아플 때는 명상하고 몸이 나으면 명상을 안 해요.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어느 경우든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명상법입니다.

걷기명상의 방법

걷기명상은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니 행선입니다. 수행은 좌선만 많이 하면 고(苦)입니다. 면벽하고 좌선만 하면 마음을 볼 수는 있지만 몸은 굳지요. 굳은 몸이 다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행선이 필요하지요. 좋은 차를 사서 아깝다고 모셔 두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 납니다.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몸이 소중해서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몸이 굳어집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적당히 써 줘야 운용이 잘됩니다. 몸은 물질입니다. 몸이 마음에 들어 있으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거지, 마음이 딱 떠나면 물질과 같습니다. 저 바위, 나무껍데기나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몸을 중요하게 여겨서 안 쓰고 잘 모셔 둡니다. 그러면 몸이 딱딱해져요. 딱딱해진 몸을 풀어주는 게 행선이지요.

행선은 부분부분 적당히 움직여 주다가 고요해지는 것을 아는 수행법입니다. 움직이고 멈추고를 골고루 하거나 눈이건 귀건 코건 입이건 5관을 골고루 쓰면 원만한 사람들입니다. 몸을 적당히 굴리면 원만한 인간형이 되면서 정신적인 영역이 넓어져요. 적당히 움직이면서 관찰하는 것이 걷기명상, 행선이지요. 움직이면서도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명상기법이지요.

걷기명상을 하는 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천천히 걸을 수도 있고 빨리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는데, 뛰거나 걷거나 똑같은 폭으로 합니다. 그것이 사마타 기법입니다. 걸을 때 다리를 높게 들었다 낮게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뛸 때도 똑같은 폭으로 똑같은 속도를 내면서 뜁니다. 똑같이 반복하는 그 자체가 사마타거든요. 일정한 속도로 걸으면서 힘을 때는 힘든 그 자리에 집중합니다. 힘을 빼고 걷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걸으면서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더 사나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이 들어가야 합니다. 관찰 안 하고 걸으면 업장이 제거되는 게 아니라 힘만 세집니다. 걷는 방법, 행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매우 천천히 걷기입니다. 처음에 똑바로 서서 주선을 하면서 마음을 모읍니다. 마음이 모이면 발뒤꿈치부터 천천히 떼면서 발을 올리고 다음 발이 나가는 것을 주시하면서 관찰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뗄 때마다 그 순간에 일어나는 발의 느낌과 행위에 집중합니다. 발의 느낌과 행위에 어느 정도 의식이 집중되면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의 느낌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같은 속도로 걸으면서 느낌이 온몸으로 퍼지는 과정을 관찰하세요.

둘째, 천천히 걷기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의 느낌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이때 생각이 올라오면 발바닥으로 눌러 없애고 곧바로 발바닥 느낌에 집중합니다.

셋째, 보통 걸음으로 걸으면서 느낌에 집중합니다. 계속 같은 속도로 걸으면서 몸에서 강한 느낌이 일어나는 부분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넷째,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서 발바닥 느낌에 집중합니다. 이때 올라오는 생각을 바로바로 알아차리면서 몸의 반응에 집중합니다. 땅이 견고하기 때문에 발바닥을 통해서 몸의 느낌을 관찰하면 강한 지성이 관찰되거든요. 이때 지성을 계속 관찰해서 마음의 강함과 굳어진 개념을 없앱니다. 발바닥을 통해 땅 기운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가 강하고 욕심 많은 사람은 욕심이 강한 지성에 부딪혀서 없어집니다. 거친 에너지가 순화되지요.

다섯째, 뛰거나 산에 오르면서 발바닥 느낌에 집중합니다. 계속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숨이 차오르는 것을 알아차려 보세요. 숨이 차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면서 계속 뛰어나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 쉬면서 몸의 현상을 알아차려 봅니다.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걷기명상을 하면서 힘을 빼고, 고도가 높고 힘든 데를 올라가야 합니다. 힘이 빠졌을 때 앉아서 좌선하면 관찰이 잘됩니다.

이 글은 강명희의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담앤북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공 고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장 추대과정에서 선정되지 못함에 불만을 가지고 종정스님의 교시를 위조하여 총무원에서 경고 조치를 하였으나, 총무원에서 봉행하는 종조 다례재에 종도 스님들의 참석을 방해하여, 종단에 분열을 책동했으므로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를 주도한 전원에게 멸빈을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징계대상자 –

명덕사 주지 해륜스님, 세심사 주지 광혜스님
만덕사 주지 운성스님, 벽조사 주지 고우스님
묘련사 주지 법문스님, 정암사 주지 선담스님
흥원사 주지 청봉스님

대한불교조동종 징계위원회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나라는 아집만 버린다면 거기 뭐 붙을 게 있겠습니까

모든 업을 녹이고 자성을 발견하려면

질문 모든 업을 녹이고 자성을 발견하려면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처님께서는 "고, 집, 멸, 도" 이랬습니다. 고덩어리.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왜 '고' 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악업 선업이 거기 포함해서 여러분 육신의 세포에, 이것이 인간에게도 혹성과 같아서, 이 육신으로 봐서는 이게 법망입니다. 세균이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이게 적응을 할 수 있는 세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악업 선업이, 예를 들어서 부모의 인연이든 자식의 인연이든, 자식이 부모가 되고 부모가 자식이 되고 이런 인연들, 또는 짐승이 사람 되고 사람이 짐승으로 퇴보되고, 병신으로 퇴보되고, 승화되고 이러한 인과가 모두 접해서 거기에서 수십억 마리가 지금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즐거운 일도 생각이 나오고, 때로는 속상하는 일도 나오고, 때로는 아주 우환이 생기고 때로는 병고가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이러한 것이 수없이 발산을 합니다, 그 악업 선업에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기에 속지 말라 이러셨습니다. 환상에 속지 말라. 모든 거, 거기에서 일어나는 대로 모든 것을 거기 놔라. 이렇게 '방하착 하라' 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어떻게 해야만 되나. 우리는 모든 거, 거기서 나오는 거든지 또 오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든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주도 있고 생활도 있고, 생존도 있고 부처도 있고, 모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떤 게 먼저냐?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부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면 일어날 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그 자리에 놓는다. 거기 맡겨 놓는다. 이것은 여러분이 생활하시니까, 생활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안 하면 공덕은 없는 겁니다. 바깥에서 타력 신앙으로서 믿는 분들은 공덕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복은 좀 받을지언정, 위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공덕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그 업보를 녹일 수도 없거니와 이 모두를 놓지 않는다면 하나하나 자기 이 모든 그 수십억 마리의 악업 선업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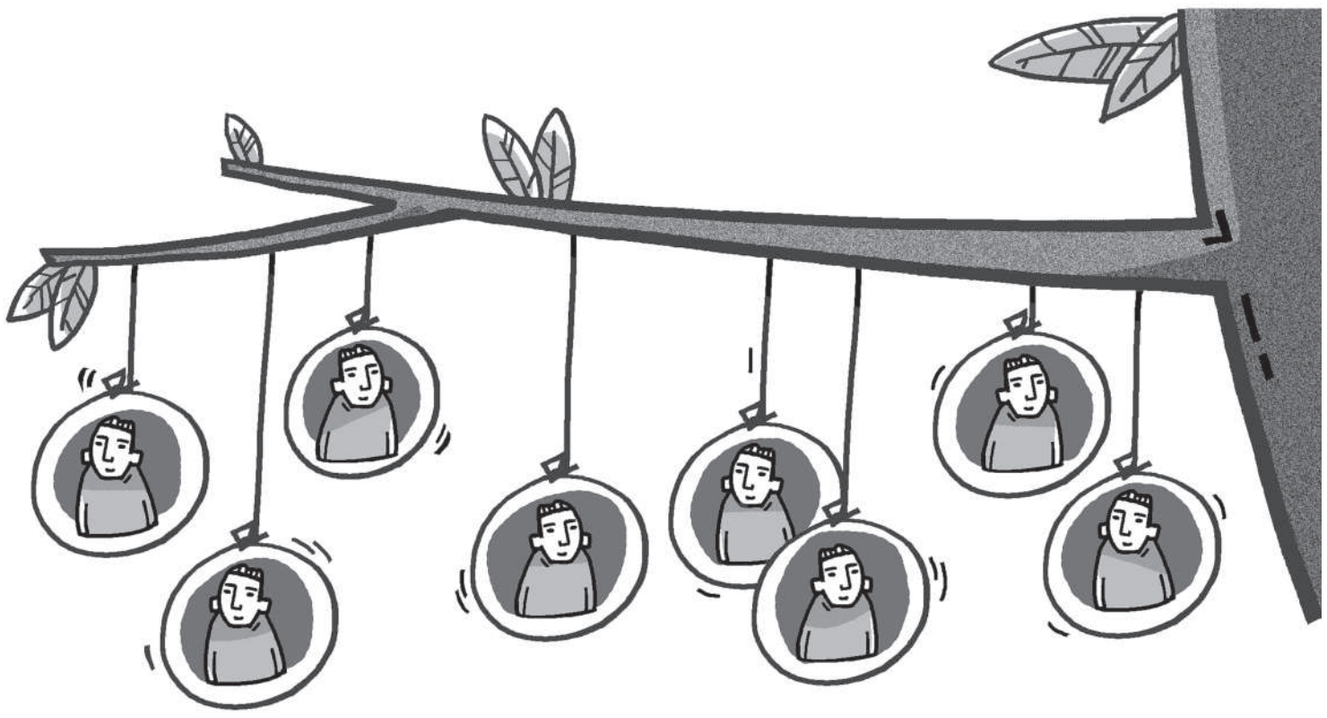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거기에 모든 악한 마음이 나오든지 선한 마음이 나오든지, 선하게 마음이 나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악한 마음이 나오면 '내 주인공만이 나를 악하게 안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잘되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병신 안 되고 이렇게 성한 몸으로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나' 라는 아집을 버려야 하고, 욕심을 버려야 하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나라는 아집만 버린다면 거기 뭐 붙을 게 있겠습니까? 나라는 것만 죽는다면 뭐가 붙을 게 있습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따로 놓고, 내 주인공에 나도 놓고 나오는 대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대로,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대로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하나하나 놓는다면, 그 수십억 마리 중에, 육신 속에서는, 즉 말하자면 간장 공장이니 위 공장이니 이자 공장, 방광 공장, 소장 공장, 대장 공장 이 공장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내 마음, 그 지배인 사장은 항상 두뇌로부터 사대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거기에 놓는다면 하나하나가 자동적으로 진화돼서 보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 놓지 않는다면 자기가 악업 선업 지은 대로 독 안에 들어도 면칠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하나 용광로에 쇠를 넣듯이 그러면 쇠가 생산이 돼서, 새 쇠로서 생산이 돼서, 또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나가듯이 이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중생들도 보살들로 화해서 털구멍을 통하고, 목구멍을 통하고, 콧구멍을 통하고, 귓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는다면, 그대로 그것을 다 녹인다면 금강신이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그것을 다 녹일 때는, 그렇게 녹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철저하다면 우리가 물이 없는 아주 마른 땅에, 갈라진 땅에 물을 촉촉이 주는 거와 같다. 돌을 골라내는 거와 같고, 체로 치는 거와 같고, 또는 풀 뽑아 버리고 고렇게 해서 잘 물을 주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갈라지지도 않고 손색이 없이 싹이 나와서 바로 발현이 돼 가지고 자라서 열매가 열리고, 물을 먹어서 만 가지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성을 깨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지 않고는 절대로 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성 삼보에 귀의한다는 말은

질문 자성 삼보에 귀의한다는 말이 제게는 좀 생소한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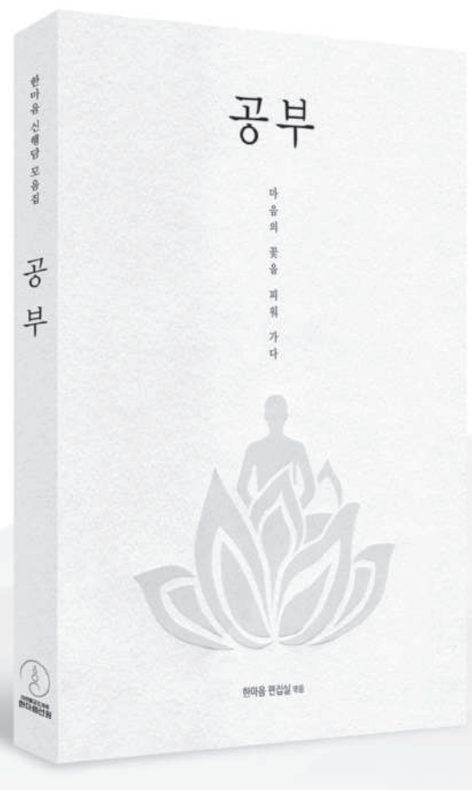
답변 보통 여러분은 어떤 일이 생기면 현재 의식에서만 알거든요. 거기서 복작복작하다가 해결을 하고 거기서 복작복작하다가 그냥 병이 들고 그러지요. 그래서 "지견으로 살아라. 소견으로 살면 병든다." 이러는 겁니다. 또 소견으로 살면 모든 게 나한테 다복하게 오질 않아요. 지혜롭게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잠재의식 쪽에다가 조금만 여유 있게, 뭘 하면서도 생각은 급히 하면서, 회사를 가든지 일을 하든지 하면서도 잠재의식 속에다가 좀 '아하! 이 세상에 나기 이전에도 바로 내가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몸은 비록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뼈와 살을 빌려서 몸이 났어도 내 몸속의 수십억 마리에 관한 의식은 바로 인으로 인해서 과가 돼서, 내 몸뚱이 속에 모두 이렇게 소임을 맡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은 지배인과 같아서 내 마음 한생각을 하는 데에 모두 따라 줍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따라 주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잘 포용력 있게 해 나가는 것, 바깥에서 따라 주고 이렇게 해서 안팎이 없이 이 생활을 진행하는 것이 그 삶의 보람을 느끼는 우리 자유인의 생활이 아닐까 이렇게 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절에 오면 삼배를 하게 합니다. 즉 말하자면 "법당에 들어오면 삼배를 너희 스스로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일배는 모든 천지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에 직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공생이자 공심이다 이겁니다. 우린 혼자 사는 게 없어요, 독불장군 없듯이. 사장이 있으면 직원이 있고 직원이 있으면 사장이 있듯이, 사장이 없는데 직원이 어떻게 삽니까? 직원이 없는데 사장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 생명들은 공생 · 공용 · 공심 · 공체 · 공식화하고 있지요. 그런 것이 이게 한데 합쳐서 모든 것을 내 자성 삼보에 귀의한다. 즉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의 근본, 내가 마음을 내면 법, 마음을 내니 몸뚱이가 움죽거리니까 승. 이래서 삼보에 귀의한다 이런 겁니다. 자기 삼보에 귀의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한테 결국은 고개를 숙여서 자기가 겸손한 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절하는 거지, 이 고깃덩어리한테 뭘 하게 절을 하겠어요? 이걸 대상을 두고서 한번 이 몸뚱이에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거기다가 내가 겸손하게, 즉 말하자면 지견으로써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주인공에 자기가 바로 절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내 주인공을 믿고 거기다 맡기고 '거기서밖에는 해결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우리가 눈 뜨고 눈 깜빡거리는 이것이 다 진리예요

☞ A17면에서 계속

해 줄 수 없다.' 앞으로도 그렇고 모든 일에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서 '바로 내 주인공밖에 나를 이끌어가 주는 게 없다.' 한다면 자성 삼보는 첫째로 기름, 영원한 생명의 근본, 또 생각을 냈다 하면 운전수, 또 차는 이 몸뚱이와 같아요. 마음이 움죽거리지 않는다면 몸뚱이가 움죽거려지지 않아요. 의식이 빠지면 송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성 삼보에 귀의한다는 거예요. 차가 없어도 안 되고 기름이 없어도 안 되고 운전수인 나가 없어도 안 되고. 그러니 삼위일체가 다 구성돼서 서로 공해서 찰나 생활을 하는 거지요. 찰나찰나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세상의 진리는 공했다. 진리는 쳇바퀴 돌듯 하는 거며 인간이라면 우리가 체로 쳐서 거르는 거와 같아요, 이 삼차원의 중세계가. 체에다 쳐서 상세계로 올리고 하세계로 떨어지고, 중세계에서 윤회에 말려서 그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 한생각이면 이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의 의식도 다 한마음을 따라 줘야 돼요. 따라 주게 만들어야 돼요. 바깥에서도 그렇고. 이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세균이 있다, 영계가 있다, 유전성이 있다…. 이런 게 그냥 들어오는 줄 모르게, 여러분이 주장심을 가지고 믿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기 주인공을 믿지 않는다면 바로 주인이 없는 거와 같아서 바깥에서 세균이 들어오든 영계가 들어오든 유전성이 들어오든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집 안에 주인공이 있어야만이 바깥에서 나그네가 와도 "게 누구요?" 그렇게 해서 아는 사람이면 들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들이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만이 내 몸을 잘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이 세상이 있는 거지, 내가 없고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믿을 게 뭐 있겠어요? 대신 죽어 주지도 않아요. 아파 주지 못하죠, 먹어 주지 못하죠, 똥 눠 주지 못하죠, 자 주지 못하죠. 그러니 현재의 나는 바로 내가 나기 이전 영원한 자기의 근본을 안 믿을 수가 없지요. 그 근본으로 인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정자와 난자와 자기 영혼이 거기 포함됐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구성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어찌 믿지 못해요?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 광년을 흘러 내려오면서 쫓고 쫓기면서 진화돼서 사람까지 됐는데 자기 끌고 나온 거를 믿지 못해요? 어림도 없지요. 자길 믿지 못하면 자기 몸뚱이가 벌써 구덩이에 들어가서 일어나지 못하고 구덩이에 빠져서 허덕이고, 이러는 문제들이 한두 건입니까, 어디? 죽어도 살아도, 변소엘 가도 항상 나하고 같이 있는 건 내 주인공밖에, 나를 이끌어 주는 건 내 주인공밖엔 없어요.

삼형제가 있는데 서로 의가 상해서…

질문 저희는 삼형제가 있는데 부모의 유산 분배 문제로 서로 의가 상해서 이제는 서로 보려고도 하지 않는답니다. 전생에 무슨 악연이 있어 이렇게 만났을까요? 어떻게 이 인연을 풀고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 그것이 지혜가 넓은 그러한 마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겸손과 지혜, 의리와 사랑, 값싼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 이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다면, 왜 엇각이 되고 싸움을 하고 가정이 화목지 못하고 그러겠습니까. 만날 네 거 내 거, 더 갖는다 덜 갖는다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네가 더 속 썩였지. 너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속 썩어 죽겠어." 어쩌니 저쩌니 하도 많으니까요, 뭐.

그래서 인간이 살아나가는 이 도리, 이 법을 빼놓고 부처님 법은 없어요. 우리가 눈 뜨고 눈 깜빡거리는 이것이 다 진리예요. 쉴 사이 없이 눈 하나 깜짝깜짝하는 대로요,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헛되게 이 몸뚱이를, 이 고상하고 귀중한 이 몸뚱이를 타고 나서 그대로 그래 허탕하게 그냥 옷을 벗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옷도 여러분이 말이에요, 이 맘에 들든 안 들든 내가 어차피 옷을 샀으면 바로 입고선 그게 더러울 때 벗어야지, 그냥 입지도 않고 후딱 벗어 버리면 그게 시원하겠습니까? 제아무리 친절하고 사랑을 한대도 아마 나와 나밖에는 없을 거예요. 내 몸뚱이, 내 마음, 내 생명 이것이 제일 근중한 겁니다.

글쎄, 집 안에서 불이 났는데 말이에요, 뭐, 불투성이니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구경을 하는데, 그냥 애고 뭐고 다 그냥 그냥 자기들대로만 나오더란 얘기예요. 또 "불이야!" 그러니깐 그 옆집에서는 팬티만 입고 나오는데, 또 한 남자는요, 여자 속치마를 끼고 나온 거 있죠. 어떻게 생각도 없이 그걸 끼고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에 모든 게 달려 있다는 얘깁니다. 모든 게 한번 생각을 이렇게 돌리는 데에 사람이 체면도 차리고 이러고 사는 거지, 사람이 한생각이 돌아가지 않는데 무슨 체면이 있고 거기에 무슨 분별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래 분별이 없으면 부처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분별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거를 맡겨 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잠재의식 속에 다 쟁여 있으면서, 쟁이면서 없어지고 쟁이면서 없어지고….

테이프에 다 녹음을 해서 넣는데 내가 그거를 지우려면 거기다가 다시 녹음을 해야 그 앞서 녹음한 게 없어지죠. 연방 한 데다가 또 녹음을 하고 한 데다 또 녹음을 하고, 그래야만이 그 앞서의 인과응보나 유전성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연방 담으면 없어지고 연방 담으면 없어지고 이렇게 되지요. 그 자리에다 놓지 않으면 앞서 녹음한 것이 안 없어집니다. 딴 테이프에다가 아무리 녹음을 해도 앞서 녹음한 테이프가 안 없어져요. 그러니 녹음한 그 테이프에다가 다시금 하면 앞서 한 거는 자꾸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고 그냥 여여하게 가느니라." 하는 그거나 똑같은 얘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생각으로 '아이고, 나는 전생에 무슨 업보를 이렇게 타고 나서 이러할까?' 그러면 벌써 자기가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겁니다. 벌써 테이프는 억겁을 돌아오면서 다 지워 버리고 왔는데, 자기 마음으로 지우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쟁여 있는 거예요. 지나간 어저께를 회상하고 아무리 해 봐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뒤를 돌아다봐도 어차피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왜 뒤를 돌아다봐요? 지금 앞을 보고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도 그냥 옆댕이, 가지 붙은 거를 다 그걸 돌아다 밟으며 가려니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물질이 있는 거라면 그렇게 팔방으로 그렇게 눈을 돌리고 귀를 돌리고 그렇게 다니다 보면 그것이 인과응보가 되고 유전성이 돼서 자기가 받은 것대로 자기가, 즉 말하자면 맡은 바대로 나와서 그 맡은 바대로 출현을 해야 하거든요.

영화배우들이라고 얘길 하죠. 영화배우들이 자기 맡은 바대로 역을 맡아 가지고 나와서 지금 잘 출현들 하고 있다고 그러죠. 머슴으로 나왔으면 머슴, 정치인으로 나왔으면 정치인…. "야, 영화배우들이 역을 참 잘한다." 영화배우가 뭐 따로 있나요? 그거를 갖다가 다 해 가지고 아마 영사기를 돌린다면 굉장치도 않을 거라고요. 천분지 일 만분지 일, 거기에서 쪼금 그저 써 가지고, 원고를 써 가지고선 그걸로다가 영화를 하는 거지, 진짜 무대는 지금 이 자리라고. 이 지금 세상 자리가 진짜 무대예요.

어저께 사신 거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지요? 그것이 바로 이 잠재의식 속에 컴퓨터처럼 적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쟁여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뚱이가 없어졌어도 그 어저께 한 일을 내가 알듯이 죽어도 사후에 내가 그것을 알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자기 몸뚱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꿈을 꿔 보셨죠? 아, 꿈에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뭘 그러세요? 사후에도 그렇게 그렇게 하고 다닐 겁니다. 자기 한 것대로, 본 것대로, 들은 것대로…. 자기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인연이 닿지 않는 사람 만난 사람 보셨어요? 다 인연에 따라서 보고 듣고 서로 싸우고, 그래 가지고 그게 남아 가지고 찌끄러기가 항상 돌아가면서, 내 몸뚱이가 없어졌어도 그게 세세생생에 그 모습을 지어 가지고서는 돌아다니면서 서로 싸우고 아픔을 당하고 그러죠. 그래서 살아 있을 때는 아픔이, 죽으면 이게 살은 안 아프지만 이 마음이 아픈 거는 세세생생에 그게 가거든요, 그 마음이.

분별이 없으면 부처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 분별을 끊으려 하지 말고
모든 거를 맡겨 놓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끊어질 줄 모르고 가기 때문에, 이 지금 생시의 아픔은 잠시 잠깐이지만, 이 마음의 아픔은 세세생생에 끊임없이 꽁지가 꽁지를 물고 쫓아다닌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전자에 어떠한 그 아픔을 당했을 때에 지금까지도 그것은 지우지 못하고 있죠.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런 건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세세생생 흐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지우지 못한 추억들, 모든 그런 것을 다 자기가 녹음해 놓은 데다가 다 도로 녹음을 해 버리면, 지금 살아나가는 대로 녹음을 해 버리면 전자에 녹음됐던 건 없어지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사후에 또 그러한 여건들이 결부돼서 돌아가진 않을 테니까요.

죽은 후에도 영적 발전이 가능한지요

질문 어느 책에서 사람들이 죽은 후에도, 자살이나 사고로 죽은 사람들도 영적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육체 없이도 영적 발전이 가능한 것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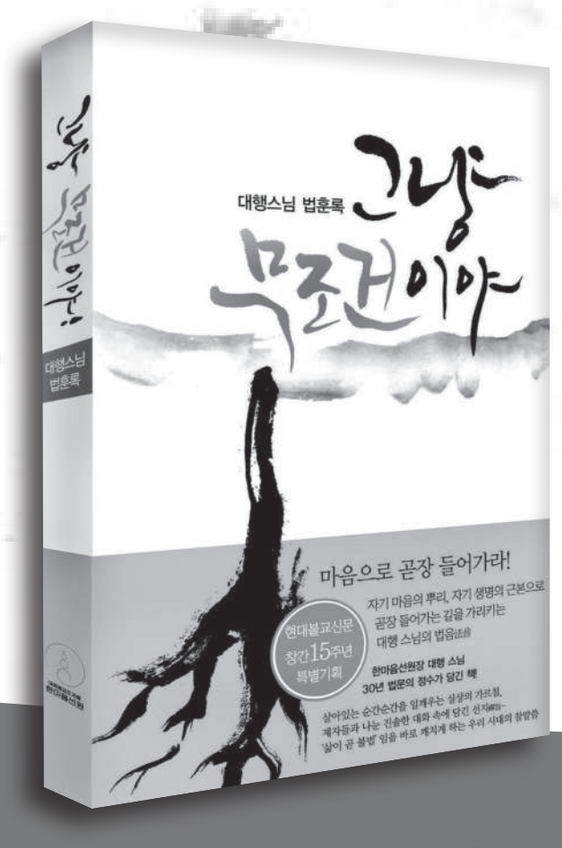
답변 우리가 정자 난자가 이렇게 한데 합치면 그게 합치는 동시에, 말을 하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그 자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영혼이라는 건 뭘 하는 거냐. 바로 자기 불성을 싸고 있는 겁니다, 자기 불성을. 생명력을 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어도 이 의식과 이 모습이 없어질 뿐이지, 그 불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 어떠한 일을 저질렀든지 좋은 일을 했든지, 거기에 따라서 또 차원이 높아지기도 하고 차원이 낮아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은 거기다가, 삼합이 개입하는 데 넣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그것은 모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데에 따라서 모두가 가는 거니까요.

은하계의 별성도 모습은 다 떨어지지만 그 원소는 남아서 다시 이 옷을 입어요. 별성의 옷을 입는다고요. 그렇듯이 사람도 그렇게 원소는 남아서 더함도 덜함도 없이 남아서, 즉 말하자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주어지면 차원이 주어지는 대로 또 진화되는 거지요. 그래서 살아나가고 진화돼서 또 생존하게 되는 거고, 또는 거기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짐승의 모습도 될 수 있고, 짐승의 모습인데 사람의 모습도 될 수 있고, 차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는 과거지만 어저께에 살 때는 오늘이었고 삼천 년 전도 오늘, 내일은 미래지만 내일도 오늘입니다. 내일도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원히 오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있으나 찰나찰나 바뀌어 가지고 가니까 공했다. 그냥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돌아간다, 모두가, 하나도 없이. 하다못해 개미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이 돌아가고 있고 지구에 살고 있다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생명들은 나무 하나도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그냥 죽는 게 아니다. 죽으면 목신이라는 원소가 있다. 그래서 그 나무들하고도 같이 교류가 돼서 그건 또다시 싹이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영혼이 죽으면 더하고 덜함도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닥침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마음공부 하는 사람이 자손이 된다든가 부모가 된다든가 이런 연결성이 있다면 틀림없이 죽은 사람도 공부할 수가 있고 개혁할 수가 있고 계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 써 놓은 거를 볼 때 "그냥 죽어도 그냥 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 산 사람도 지금 어떠한 한생각을 해서 실천을 옮기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한생각을 하지도 않고 실천도 옮기지 않는데 뭐가 보수가 나와요? 에너지가 안 나오지. 그런 것과 같은 거다 이겁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현불 논단

수치심이란 미덕

이미령
칼럼니스트



드라마 '보좌관'서 나오는 대사
"수치심, 정치하며 먼저 버렸다"
현실 다선 국회의원들이 떠올라

수치심 '부끄럽다' 두 한자 구성
자신이 바르지 못함 부끄러워해야

부처님 "수치심 끝까지 지닐 미덕"
불교에선 수치를 '慙愧'라고 말해
수치심 · 참괴심, 정치인에게 절실

언젠가 언론인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 분이 대학에서 정치학과를 다녔다는 말을 듣자 내가 물었다. "정치학과에서는 뭘 가르쳐요?" "권력!"

기다렸다는 듯 대답이 척 나왔다. 이 대답을 듣는 순간 기분이 묘해졌다. 정치란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덕으로 다스리는 것이라던 동양고전의 문장들에 푹 젖어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내놓은 그 대답 속에는 권력 하나만을 쟁취하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를 마다하지 않는, 노회한 자들의 계략과 합종연횡의 비열함만이 느껴졌다.

며칠 전 TV드라마 '보좌관'을 보다가 흥미로운 장면을 만났다. 법무부 장관 자리를 노리는 4선 국회의원 송희섭이 드라마 속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정치하면서 제일 먼저 버린 게 뭔 줄 알아? 수치심이야."

찌릿했다. 그건 분명 베테랑 연기자 김갑수의 연기가 워낙 출중해서 드라마가 드라마로 보이지 않고 뉴스를 보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인 탓도 있다. 하지만 딱히 누구라 할 수는 없지만 현실의 다선 국회의원들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저들이 대놓고 이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 저들의 속마음이 이 대사 속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처럼 느껴지는 건 무엇 때문일까.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은 물론이요, 필요할 때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기라도 하며 적과도 손을 맞잡고, 필요 없을 때면 평생 동지와 보좌관도 단칼에 쳐내야 할 텐데, 그럴 때 인간이기에 느끼게 되는 부끄러움 즉 수치심은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수치심 같은 거야 진즉에 내던져야 하지 않겠는가.

'수치심(羞恥心)'은 '부끄러워할 수(羞)'와 '부끄러워할 치(恥)'. 부끄러워하다는 뜻의 글자 두 개를 함께 쓸 정도로, 사람이라면 자기가 바르지 못하고 착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말이다. 자기의 선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니, 남의 선하지 못함도 즐거울 리가 없다. 이런 마음이 바로 '수오지심(羞惡之心)' 아니던가. 그런데 드라마 속의 국회의원은 보란 듯이 말했다. "정치를 하면서 내가 버린 것이 바로 수치심이다." 권력을 쟁취할 때까지는 사람다움을 포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진 수치심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뜻밖에도 부처님은 인간이 끝까지 지녀야 할 미덕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있다. 심지어는 수치심에도 두 종류가 있으니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보았을 때 자기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심(참, hirī)과, 남을 대할 때 남 보기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심(괴, ottappa)이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부끄러워할 참(慚)'과 역시 '부끄러워할 괴(愧)' 두 글자를 묶어서, 불교에서는 '참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부끄러움은 믿음, 계행, 배움, 보시, 지혜와 함께 성자의 '일곱 가지 재산(칠성재)' 속에 들어간다. 이 부끄러움이 있어야 사람이 스스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이웃과 세상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런 떳떳함에 스스로 행복해짐은 물론이요, 세상도 그 덕을 입게 되니 모두에게 참 좋고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수치심이요 참괴심이다. 설마 정치하는 사람 모두가 이 수치심을 버렸을까마는, 드라마 속 작중인물의 저 말이 자꾸 맘에 걸린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지 법을 지키는 곳이 아니라는, 얼토당토 않는 우스갯소리가 상식인 듯 통하는 입법부에서, 그 많은 영감님들이 수치심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재산으로 여겨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일하지 않고도 꼬박꼬박 챙겨가는 저들의 세비가 덜 아까워질 텐데 말이다.

社說

문화재청 불통 행정 언제까지

문화재구역 입장료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문화재청이 답습하는 모양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을 위촉하면서 조계종과 협의 없이 스님 문화재위원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조계종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입법부인 중앙종회가 문화재청의 불통 행정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사실 불교계에 대한 문화재청의 불통 행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2017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문화재청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전에 무관심하고 관료조직에 안주해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는 등 소통에 취약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문화재청은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조계종과 해당 사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불교계의 항의에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불성실한 답변을 내놓으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불교계는 각고의 노력 끝에 7개 산사를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때도 조계종 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컸지만 문화재청은 일반 언론 인터뷰에 나와 자신들의 치적을 알리는 데 바빴다.

문화재청은 이제 불교계의 항의에 공식적으로 답해야 한다. 더 이상 비공식 접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 문화재청이 불교문화유산의 보전 주체인 불교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자비나눔으로 백중 맞이하자

올해 백중(百中)은 오는 8월 15일이다. 이를 앞두고 전국 사찰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조계종 8대 총림을 비롯해 전국 교구본사와 사찰들에서는 백중을 앞두고 백중 기도 입재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선지식 법회 등 법공양을 비롯해 공승재 등도 열릴 계획이라고 한다.

백중은 많은 대중에게 공양하는 날이라 백중(百衆), 많은 음식을 공양해서 백종(百種), 안거가 끝나는 날이라 백종(百終)이라고 한다. 또 우란분재(盂蘭盆齋), 우란분회(盂蘭盆會), 우란분절(盂蘭盆節)로도 불린다.

우란은 산스크리트어 'Ullambana'로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극심한 고통이라는 의미다. 아귀도에 떨어진 모친을 제도하기 위해 목련존자는 갖가지 음식을 담아 스님들을 공양했다. 이를 통해 승보에 대한 공양으로 어미니를 천도했던 목련존자의 효심과 함께 나눔으로써 자비를 실천했던 백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최근에는 보시와 공양으로 백중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서울 조계사는 6월 28일 백중 입재와 함께 조계종이 진행하는 백만원력결집 불사에 적극 동참하는 백만원력결집 보시바라밀을 시작했다.

서울 국제선센터는 승보공양 법회를 계획 중이다. 용인 법륜사는 자비도량참법기도로 백중기도에 입재했으며 8월 15일 회향 시까지 108배를 통한 참회기도가 진행된다. 회향일에는 수행정진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공승법회가 함께 이뤄진다.

공덕을 베풀어 선망부모의 천도를 기원하는 불자들의 효심에 이제는 나눔의 실천이 함께 이뤄지는 백중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해본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몇 해 전, 일곱 살이었던 아들이 바닷가재를 사온 적이 있었다. 그릇에 옮겨 놓으니 기포를 만들며 숨을 쉬었고, 손으로 잡기라도 할라치면 꼬리를 거세게 파닥거리며 버둥거렸다. 집게발은 1cm 너비의 빨간 고무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아들이 바닷가재를 사온 이유는 단순했다. '관찰하기 위해서' 였다.

바닷가재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 아이다운 호기심이 전부였다. 그러나 바닷가재의 움직임이 약해지면서 아이의 관찰이나 관심이 시들해질 무렵이면 그 바닷가재는 내 차지가 되었다. 살아 있는 것을 내 눈으로 지켜 본 그 너석을 수돗물로 헹구어 씻고 찜 솥 위에 올려놓은 뒤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는 것이 내 몫이 되는 것이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나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이 생명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어린 시절 나는 산골에서 자랐다. 집에서 직접 가축을 길렀고 그 가축 중에서 일부를 양식으로 취하기도 했다. 직접 키워 왔던 것들이기에 그것을 취할 때는 그것들을 향한 측은지심과 고마움은 각별했다. 내가 키우던 생명을 먹는다는 자각은 그 음식을 모든 이웃과 골고루 나눠 먹음으로써 그 생명의 가치를 최대로 높이려 노력했다.

그런데 요즘 나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 음식은 어떠한가? 나는 내 앞에 놓인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수많은 과정을 거의 모른다. 나처럼 뜻하지 않게 살아 있는 것을 요리해 본 적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봤을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잡고, 죽이고, 다듬는 과정까지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준다. 말끔하게 손질되어 제품화되고 포장된 쇠고기나 생선에서 생명력을 느끼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손끝에서 느껴지는 퍼덕거림, 살고자 하는 몸부림의 과정은 모두 생략된 음식을 무감각하게 먹기가 쉽다. 바빠진 일상에서 인스턴트식품을 먹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미세하게 쪼개진 생명은 그저 포장지 속의 상품일 뿐이다.

사는 동안,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으며 살 것인가? 그것은 선택의 문제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면 오늘 내가 먹는 한 끼의 밥상에서 생명 존중과 지구 환경 보전의 덕목까지 챙겨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육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채식이 좋다거나 하는 명제보다 모든 음식에 깃든 생명에 눈을 뜨는 감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감성이 살아나면 욕망에 의한 폭식과 과식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음식을 골고루 나누어 그 가치를 최대화하는 일에도 관심이 갈 것이다. 나눔과 절제, 건강한 음식을 생산하기 위한 지구 환경 보전의 큰 그림 속에 자신의 좌표를 찍을 수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자문으로 시작하는 공양게송이 요구하는 자각도 그런 것이리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들과 함께 식탁 앞에 앉으면 수도 없이 해 온 이야기가 있다. "양배추야, 고마워. 내가 너를 먹고 지혜롭게 잘 살게." "생선아, 고마워! 네가 나를 위해 생명을 줬으니 너 대신 지혜롭게 자라서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할게."

매 끼니마다 음식이 되기 전의 생명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품 있는 식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지구, 내 몸같이

내 몸은 지구와 같고, 내 몸속의 생명들은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같습니다.
지구는 우리와 함께 돌아가는 생명체입니다.

대행선사 법어



만물만생이 더불어 사는 지구를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주세요!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끊어진 길 끝서 시작되는 '길'

바람도 머문 곳, 암자

⑤ 경북 문경시 묘적암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등산로 없음, 참배객은 조용히" 암자 입구에 걸린 안내문이다. 더 이상 길은 없다. 길은 끊어지고, 그 길 끝엔 깊은 고요뿐이다. 그리고 그 적적함과 적적함 속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 '길 없는 길'이다. 어디를 보아도 길은 없고, 어디를 보든 그것이 길이다. 닿고자 하는 만큼 길은 보이고, 보고자 하는 만큼 길은 다가온다. 다른 길을 찾아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깊은 적요가 내어주는, 길 아닌 길을 나서볼 것인가. 적적함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보이는 길. 그 길의 이름은 묘적암(妙寂庵)이다.

불산(佛山)에 깃들다

경상북도 문경시 사불산(四佛山). 공덕산(功德山)이라고도 한다. 587년(진평왕 9) 죽령 동쪽 산꼭대기, 사방에 여래상이 새겨진 커다란 바위가 하늘에 떨어진다. 사면석불상이다. 이때부터 사불산으로 불렀다. 물론 전설이다. 지금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의 생각이라는 것 역시 먼 훗날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이다. 하늘에서 불상을 새긴 바위가 떨어졌다. 어느 시절의 생각이 그 시비(是非)를 끊을 수 있을까.

임금이 사면석불상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를 찾아 예배한 후 서쪽에 가람을 연다. 대승사다. 묘적암은 대승사 산내 암자 중 하나다. 대승사에서 약 1km정도 거리에 있다. 대승사에서도 묘적암에서도 사면석불상이 보인다. 불상이 따로 필요 없다. 역사에서 바라보면 대승사와 묘적암의 주불은 산꼭대기의 사면석불상이다. 산꼭대기에 부처님을 모신 사불산은 그야말로 산 자체가 도량인 셈이다. 어느 곳이든 마음 내려놓는 곳이 법당이다. 묘적암도 그 중의 한 자리다.

소리 없는 자리

더 이상 길이 없다는 안내문을 지나면 그때부터 산문이다. 작은 철제 바리게이트에 걸린 몇 자의 글이 세상을 둘로 나눈다. 산문의 안과 밖. 더 이상 길이 없다는 안내문이 아니라면 산문은 어디서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글 몇 자에 마음은 둘이 된다. 마음이라는 것이 안에 있는 것인지 밖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안내문에서 도량이 가까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지만 도량의 그림자는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걸까. 걸음은 막연하다. 볼 수 없다는 것은 막연한 일이다. 막연한 걸음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20M 정도의 언덕길을 오르고 나면 홀연히 암자가 나타난다. 원목의 무늬를 드러낸 목조의 집 한 채, 세월보다 더 세월처럼 보이는 집 한 채가 소리 없는 편액과 함께 서있다. 최소한의 담장과 최소한의 마당 그리고 최소한의 문과 창호. 묘적암이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빠옥 총림에서 생활 〈2〉

B4 책세상
월호 스님의 〈선가귀감 강설〉

B5 문화
영화 '나랏말싸미' 7월 24일 개봉

B6 학술
국보 지광국사탑 110년만에 귀향

오늘, 어디서 어떻게 머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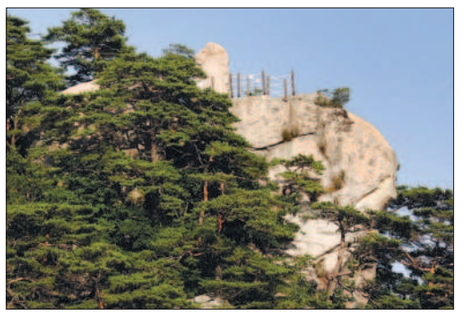
묘적암은 대승사 선원대중이 대중의 이름으로 한 철 한 철을 사는 '선방'이다. 이번 안거엔 명원 스님이 방부를 들였다.



나옹선사 진영(경북 유형문화재 제408호)



묘적암 법당 내부.



묘적암에서 올려다본 사면석 불상.

'문경 묘적암'

B1면에서 계속

어떤 길로 어떻게 왔는지에 따라 묘적암은 다르다. 산 아래 큰 절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다면 더 이상 길이 없다는 입구의 안내문과 그 끊어진 길 끝에 서있는 암자의 풍경은 설법으로 다가온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만난 것들, 품은 것들, 버린 것들이 있어 길은 시간이었고 기회였다. 그 길이 없었다면 '끊어진 길'은 없었을 것이며, 끊어진 길 끝에 설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길이 없는 길에 서있는 '나'를 본다.

한 걸음 한 걸음 지나온 길 없이 바로 묘적암 앞에 섰다면, 그 최소한의 풍경은 어느 조사의 이름에서도 본 적 없는 선문(禪門)으로 다가온다. 수많은 답을 품고 물어온다. 오늘 이 자리, 놓을 수 없는 것, 말할 수 없는 것, 잊을 수 없는 것. 마음이 바빠진다.

안내문 그대로 더 이상 발로 걸어야 할 길은 없다. 올라야 할 길은 없다. 소리 없는 것들이 만들어낸 풍경과 그 풍경에 머무는 길 뿐이다. 7월 어느 날의 햇살. 같은 자리에서도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는 푸른 나무들. 그래서 또 한 번 완벽해지는 숲, 숲. 무릎을 접고 땅이 되어야 볼 수 있는 개망초의 얼굴. 우리보다 훨씬 넓은 세상을 가진 개미들.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들과 함께 사는 나비들. 불가적 지붕과 고요한 편액. 그리고 한 철 조용히 깃든 법손. 모두 소리 없는 것들이다.

또 다른 길, 묘적암

남을 것도 모자랄 것도 없는 법당. 문수보살과 금강경, 목탁과 죽비, 조사의 진영. 소리 없는 자리. 끊어진 길 끝에서 또 다른 길이 되려는 이 자리는 언제부터였을까. 누가 열었을까.

묘적암은 신라말에 부설거사가 열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의 기록은 사라졌다. 1668년 성일 스님이 중건했고, 1900년 취원 스님이 중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먼 시절에 남아 있는 조사의 이름은 나옹, 무학, 함허 스님이 있고, 가까운 시절에서는 경허, 청담, 성철, 법전 스님의 이름을 볼 수 있다. 유난히 많은 선지식의 이름이 묘적암의 기록 속에 있다. 법당 한 쪽에 모신 조사의 진영은 나옹 선사의 진영(경북 유형문화재 제408호)이다. 보우, 경한과 더불어 여말삼사로 칭해지는 동시에 지공, 자초와 함께 증명삼화상이 되는 나옹 스님은 여말선초의 불교사에서 가장 중심에 있던 선지식이다.

나옹 스님은 묘적암에서 출가했다. 1340년 나옹 스님이 스무 살 때였다. 스님은 가까이서 친구의 죽음을 보았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마음을 힘들게 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물을 수는 있어도 답은 없는, 고단한 질문에 갇힌 스님은 답을 찾아 길을 나선다. 스님이 가닿은 곳은 부설거사가 열어놓은 묘적암. 요연 스님이 머물고 있었다.

신라말 부설 거사 창건
나옹 선사 출가 도량
요연과 문답 후 유행길 시작
사면석불 내려 보는 자리
나옹 · 무학 · 함허 등 수행처
근현대, 경허 · 청담 · 성철도
안거철엔 묘적의 선방

"무엇 때문에 출가하려 하느냐?"

"삼계를 뛰어넘어 중생을 이롭게 하려고 합니다. 스승께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곳에 온 것은 어떤 물건인고?"

"네, 능히 말하고 들을 줄 아는 것이 왔습니다. 그런데 보려고 하면 볼 수 없고, 찾으려 하면 찾을 길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스님, 어떻게 공부해야 찾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 공부가 부족하여 너의 질문에 답을 줄 수가 없구나. 다른 선지식을 찾아 가거라"

나옹 스님은 일대사를 해결하기 위해 스승의 곁을 떠난다. 유행을 이어가던 스님은 몇 해 후 어느 겨울날에 눈이 쌓인 뜰을 거닐다 일찍 핀 매화를 보고 부처님과 같은 생각에 이른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나옹 스님의 설법이다. 친구의 죽음으로 묻게 된 생사의 비밀. 그 비밀을 찾아 나선 멀고 먼 길. 그 길은 더 이상 길이 없는 길 끝에서 시작됐다. 어디를 보아도 길은 없지만 어디든 바라보는 곳에서 길이 시작되는 자리, 묘적암에서 시작됐다. 그 옛날, 제자의 삭발을 위해 삭도를 들었던 스승은 길이 끊어진 곳에서 또 다른 길을 열었다. 그리고 선사는 닿고 싶은 만큼, 보고 싶은 만큼의 길을 보았다. 어찌 보면 그 옛날 스승의 일구는 입에서 빚어진 가르침이 아니었으며, 귀만 연다고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었다. 조용한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은 법이었다. 적요 속에서 마주한 '길'이었다.

고요가 스승이고 길

나옹 스님의 길이 시작됐던 묘적암. 그 자리엔 오늘도 길을 찾는 이가 있다. 묘적암은 대승사 선원대중이 대중의 이름으로 한 철 한 철을 사는 '선방'이다. 이번 안거엔 명원 스님이 방부를 들였다. 그야말로 묘적의 자리다. 스승도 없고, 길도 없다. 있다면 오직 고요뿐이다. 고요가 스승이요 길이다. 명원 스님은 이번 한 철 살면 자리를 옮겨야 한다고 했다. 적적하고 적적한 자리에서 또 하나의 길이 만들어지고 있다.

고요뿐인 묘적암에도 새는 지저귄다. '묘적'의 그림자일까. 고요의 깊은 곳을 간간히 지나간다. 산새의 지저귐을 따라 산문을 나선다. 들어올 때 보지 못했던 부도가 눈에 들어온다. 숲이 시작되는 조용한 곳에 부도 2기가 나란히 서있다. 동봉당과 동산당일초선사의 부도다. 눈을 돌려 숲을 올려다보니 약 20M 위에 또 하나의 부도가 보인다. 나옹 스님의 부도다. 부도엔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다. 명원 스님의 이야기 속에 있었다. 부도 위로 지나는 나뭇가지에 산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는다. 지저귀지 않고 한참을 머문다. 모두는 머물고 또 머문다. 그리고 그 머물고 머무는 자리에서 길을 시작한다. 오늘, 어디서 어떻게 머물 것인가.

묘적암 가는 길

대승사 산내 암자인 묘적암은 사불산 기슭 끊어진 길 끝에 있다. 대승사에서 길을 시작해서 걸어갈 수도 있고, 윤필암에서 걸어갈 수도 있다. 아니면 바로 묘적암으로 가도 된다. 윤필암부터는 길이 조금 가파르다. 사면석불상이 있는 곳에 오르면 묘적암을 내려다 볼 수 있다.



포살 철저… '律' 중요성 깨닫다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⑫ 빠옥 총림에서 생활 〈2〉



빠옥 총림을 거닐고 있는 스님들. 상좌부 불교전통을 가진 빠옥은 윗 · 중간 · 아랫 절로 구분해 철저한 포살을 진행한다. 포살에는 상좌부 승가만 참여가능하다.

빠옥 총림에 도착한지 둘째 날(2012년 1월 23일)이다. 어제 선원 입방 절차에서 주지 스님이 선원 일과표를 주면서 직접 설명해 주었다. 찬찬히 들여다보니 일상의 일과는 앞선 마하시 선원과 다소 차이가 있다. 마하시 선원에서는 단체 좌선 후 경행이 한 시간씩 배정됐다면 빠옥 선원은 인터뷰와 함께 오전 9~10시와 오후 2~3시정도로 약 2시간이다. 마하시가 1시간 단위라면 빠옥은 1시간 30분 단위로 좌선에 집중하도록 했다.

빠옥의 일정은 위빠사나를 위한 선정과 사마타를 중시한 시간 안배다. 아무래도 선정과 사마타는 앉고 일어서는 입정과 출정의 주기가 짧은 것보다 긴 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하시의 경우 외국인 수행 일과표였는데 빠옥은 외국인과 미얀마인을 구별하지 않았다. 한국의 태안사 정중당에서도 1시간 단위로 앉고 일어서기를 반복했던 기억이 있다. 즉 50분 좌선하고 10분 경행이었다. 물론 입정의 정도에 따라 경행을 생략하고 좌선을 지속했던 기억도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월정사의 '오대산 자연명상마을'과 해인사의 국제선센터 '가야산선림원' 그리고 문경 봉암사가 '세계명상마을'을 준비하고 있다. 월정사의 경우는 2017년 준비 과정에서 필자가 수행 일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는데 시행여부는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전통사찰에서 명상이라는 말속에 간화선 수행을 포함시키고 있는 듯하다. 간화선 전통에서 선원 수행의 일과표가 어떻게 구성될 지가 자못 궁금하기도 한다. 간화선이 중심이라면 간화선 특성에 맞는 일과표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무대에 나아가려는 한국불교의 절박한 상황에서 외국의 세계적인 수행처의 일과표는 참고가 될 것이다.〈표1. 참조〉

표1. 빠옥 총림의 수행 일과표

오전 3:30	기상
오전 4:00 – 5:30	아침 예불 및 단체 좌선
오전 5:45	아침 공양(정확한 시작의 시각은 일출 시간에 따라 달라짐)
오전 7:00 – 7:30	청소 및 개인 시간
오전 7:30 – 9:00	단체 좌선
오전 9:00 – 10:00	인터뷰, 경행 정진과 개인시간
오전 10:10	점심 공양
오후 1:00 – 2:30	단체 좌선
오후 2:30 – 3:30	인터뷰 및 경행 정진
오후 3:30 – 5:00	단체 좌선
오후 5:00 – 6:00	인터뷰와 울력 및 개인시간
오후 6:00 – 7:30	저녁 예불 및 법회
오후 7:30 – 9:00	단체좌선

아침에 한국 출신 스님이 머물게 될 산등성이의 꾸띠를 둘러 본 후 돌아왔다. 곧바로 외국인 사무실에 보관 중인 짐을 챙겨 내가 머물 방으로 옮겼다. 같이 방을 쓰는 사람은 스페인 사람이다. 온화한 성격으로 보인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심 공양 때가 되었다. 오늘 설날이어서 점심 공양 또한 다채로운 메뉴다. 공양청에서 돌아와 짐 정리를 다시 하고 오후 4시부터 열리는 비구 스님들의 포살행사를 참관하러 계단 건물(Sima Hall)에 올라갔다. 이 선원에서는 윗 절 · 중간 절 · 아랫 절로 구분되어 세 군데서 같은 시간에 포살이 행해졌다. 사회 보는 스님이 각각 스님들의 출신국과 법랍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 법랍 순으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앉았다. 족히 300~400명 정도로 보이며 호명하는 데만 약 1시간가량 걸렸다.

윗 · 중간 · 아랫 절로 구분돼
같은 시간 포살법회 봉행
빠알리 율장 한 명이 독송
대승권 스님은 참석 불가
율장 근본한 포살 강조해

불교학을 공부하면서 포살을 직접 참관하기는 처음이었다. 이제까지 짐작으로 구족계 227계를 참여 스님들 모두가 함께 암송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짐작했다. 그런데 빠알리(Pali)로 된 조항을 한 스님만이 나서 독송하는 형식임을 이제야 알았다. 상좌부로 출가한 우리나라 스님도 보이며 마침 한 서양 스님과 눈이 마주치니, 먼저 나의 국적을 묻는다. 답한 뒤, 스님의 국적을 묻고 법랍을 물으니 독일인이고 법랍은 4년이라 한다. 곳곳에 서양인 출가자가 보였다.

뒤로 물러나 계단 쪽에 자리하여 참관하고 있으려니 아래쪽에서 한국 승복을 입은 네 명의 스님이 걸어온다. 그 중 한 스님은 나를 알아봤다. 나 역시 기시감이 있지만 바로 기억이 나지 않았다. 잠시 후 스님이 먼저 "오래 전 내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다"며 알아보고 이곳서 수행한지 3~4년이 되었음을 전했다.

안타깝게도 대승불교 승복을 입은 한국 스님들은 이곳 승가의 일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지금 포살에 참여하는 스님은 국적이 다르더라도 같은 구족계와 같은 승복의 상좌부 스님들만 이다. 같은 스님이라고 해서 또는 구족계를 모두 수계했어도 함께 할 수가 없다. 재가자인 나처럼 뒤에서 참관만이 가능하다.

거의 포살이 끝나갈 즈음 한국 스님들이 아는 스님의 꾸띠에 가서 차 한잔을 권했다. 스님들과 한참을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가보니 석양이 보이는 멋진 곳에, 냉방 시설까지 갖춘 훌륭한 개인 수행처가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스님이 건립한 것이라고 했다. 함께 한국불교식으로 절을 하고, 둘러앉아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나아가 미얀마 불교, 한국 불교 등의 많은 이야기를 비교적인 관점에서 자유롭게 나누었다.

스님들 이야기는 위빠사나는 결국 사마타가 바탕이 되어야하고 사마타가 배제된 위빠사나 주장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으로 나아갔다.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이다. 국내에서 나에 의해 제기되고 논쟁이 되었던 점을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던 중 한 스님이 호주의 아잔 브람(Ajan Brahm) 스님을 화제로 꺼냈다. 아잔 브람 스님은 영국 출신 스님으로 태국 스승 아래 출가하여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을 세계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사실 마하시 선원에 있을 때 한국 스님이 영문으로 된 아잔 브람스님의 간략한 소책자를 주면서 읽고 설명을 부탁했던 적이 있다.

설명을 해주기 위해 소책자를 읽었는데 깜짝 놀랐다. 필자는 지난 1999년 10월 〈한국선학〉 창간호에 발표한 '초기불교에 있어 지(止) · 관(觀)의 문제' 논문에서 수행의 중심 개념인 사띠(sati)를 수동적 주의집중(passive attention)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후 10여 년간 사띠 논쟁을 유발시킨 바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관(止觀)의 관계를 차제설로 강조했다.

그런데 아잔 브람 스님도 필자처럼 수동적 주시(passive observing, passively observing)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데에 놀랐다. 국내에서는 필자가 제시한 이 용어을 쓰는 것으로 지관 수행의 성격에 있어 '수동성'과 '능동성'의 논쟁은 오래 지속되었다.

극히 드물게 수동성 개념을 수용하는 학자(김성철 교수)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한국 연구자들은 중립의 입장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능동성'이라는 주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적극적으로 나의 주장을 옹호하는 연구자는 없었다. 그런데 미얀마에 와서야 아잔 브람 스님의 주장에 마치 동조자를 찾은 듯 놀랍고 흥분이 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현재 미얀마의 빠옥 총림까지 두루 거친 수행자들이 마지막 찾아가는 수행처는 아잔 브람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호주라는 이야기이다.

다시 빠옥에서 오래 수행하는 스님의 표현으로 '능동성'과 '수동성'은 자동차 운전 시 '운전수'와 '승객'으로 비유하며 설명해 주었다. 즉 운전자는 능동적으로 애쓰는데 반하여, 승객은 수동적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경치를 단지 바라볼 뿐이라는 것이다. 아주 적절한 비유라 생각했다. 후에 아잔 브람 스님의 저서를 구입해 본 후로 이러한 비유는 바로 아잔 브람 스님의 설명임을 알게 됐다.

한국 스님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가운데 가장 내 마음에 걸린 점은 포살과 관련한 승가개념 문제였다. 이곳 승가는 한국의 대승을 같은 승가의 일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곳에서 한국 스님들이 상좌부 승복을 입는 것은 수행을 위한 임시적이며 방편적인 차원이 아니고 한국 대승에 대한 영원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 선원 입방 시 대승으로 남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와 입장을 분명히 요구받는다. 같은 일불제자의 승가라고 하지만 빠옥에서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간, 현장 스님이 여행기에서 언급한 7세기 경 인도의 '대소승 공주(共住)' 사찰을 다시 보는듯한 감회에 빠져 들었다. 오늘 이곳 빠옥의 포살에서도 한국 등 대승권 회색 승복 승려들은 전적으로 배제되었다. 이야기 도중 한 스님은 이곳 상좌부 스님들이 한국불교를 '외도'로 인식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중요한 이유가 한국불교에 출가자들이 '포살'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상좌부 승가는 포살을 행하지 않는 집단을 불교집단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지난 2012년 입적하신 조계종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여법한 포살 시행을 강조하셨던 기억이 났다.

계속해서 한 스님이 경험담을 풀어놓는다. 이곳에서 편의상 사미 수계를 받고 계속해서 비구계를 받으려고 한국에 들어가 환계를 하고 다시 미얀마로 돌아와 비구계 신청을 했다. 그랬더니 한번 상좌부 비구계 수계는 영원한 상좌부 스님을 의미하며 동시에 대승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대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니 약 10일간의 심의 끝에 비구계 수계가 거부되었다고 한다. 결국 스님은 이곳에서 비구계가 아닌 다시 한국에 들어가 계를 받아 이곳에 왔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 스님들은 대체적으로 이곳 스님들이 한국 스님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유 중의 하나는 출가자로서 율장에 나타난 위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율장에 나타난 위의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원인 분석으로까지 입을 모았다. 이래저래 율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는 하루였다.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외래교수〉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26~7/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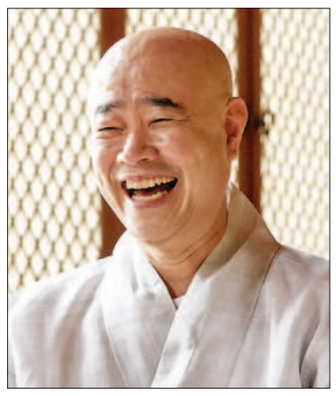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세상에 끌려 다니지 않는 단단한 마음공부	서광스님	학지사
2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7	신편 승가의범	보운스님	혜안
3	사찰의 비밀(불교 상징과 문화에 대한 안내서)	자현스님	담액북스	8	월호 스님의 선가귀감 강설	월호스님	조계종출판사
4	요가 디피카	B.K.S.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9	두려워하지 않는 힘	진우스님	불광출판사
5	정선 디가 니까야	이중표	불광출판사	10	마조어록 역주	마조도일/강승욱	운주사

"나는 이 몸과 마음의 소유자 아닌 관리자일 뿐"



선가귀감 강설

월호 스님 지음/조계종출판사 펴냄/1만7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조선 명종 19년(1564년), 청허 휴정은 당시 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의 자세와 승풍을 바로잡고 정진과 교화를 당부하기 위해 〈선가귀감(禪家龜鑑)〉을 지었다. 그리고 월호 스님은 현대 불자들의 헤이해진 정신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곡을 찌르는 글들로 선가귀감 강설을 새로 엮었다. 이 책은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삶에서 맞닥뜨리는 온갖 괴로움과 스트레스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그들의 마음공부를 돕는다. 원문의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은 월호 스님〈사진〉 특유의 명쾌한 문체로 풀어내 남녀노소에게 다가가고자 했다.

〈선가귀감〉에 따르면 '선(禪)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敎)는 부처님의 말씀'이며,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 데 이르는 것은 선이고, 말로써 말 없는 데 이르는 것은 교'라고 하면서 선에 이르기를 강조한다. 또한 〈선가귀감〉은 돈오(頓悟)와 점수(漸修)를 모두 아우른다.

교문(敎門)에서 말하는 일심법(一心法, 한마음)이란 우리가 매일 쓰는 마음인 중생심(衆生心)을 말한다. 한마음에는 진여문(眞如門, 진리에 합당한 본마음자리)과 생멸문(生滅門, 마음자리와 몸자리)이 있다. 즉 일심법은 본마음과 마음, 그리고 몸을 모두 포괄한다. 중생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진여문을 열었다가 생멸문을 열었다가 하면서 살아간다.

선문(禪門)서 말하는 견성법(見性法)이란 성품을 보는 것이다. 여기서 성품은 바로 '본마음', '참 나'로, 항상 크고 밝고 완전하다. 우리의 본마음 자리는 이미 계정혜(戒定慧) 삼학을 다 갖추고 있다. 성품은 그 자체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며 공(空)한 것이다. 이 본마음 자리에 철저히 초점을 맞춘 것이 참선이다. 몸과 마음은 물거품이나 아지랑이처럼 계속 변하므로 늘 수련이 필요하다. 몸은 늙고 병들어 죽기 때문에 이에 초점을 맞춘 수행은 끝이 허망하지만, 실재하는 우리는 몸과 마음이 있어야 허기를 채우거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수행이 실감이 난다. 월호 스님은 결국 성품을 '디지털식'으로 단박에 보고, 몸과 마음은 '아날로그식'으로 꾸준히 닦아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본래면목은 '마하반야바라밀'
다시읽는 선의 교과서 〈선가귀감〉
참선 수행자들의 귀감이 되는 책
깨달음은 단박에, 수행은 꾸준히

월호 스님은 개인의 삶이 절대 신이나 부처의 소유물이 아님을 거듭 역설한다. 또 '나'는 이 몸과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일 뿐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참 나'는 무아(無我)다. 무아는 대아(大我)요, 대아는 시아(視我)다. '고정된 나'는 없으며, 그렇기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부처의 행을 하면 부처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성품을 단박에 보고, 그 공한 자리를 '선으로 채울 것인가 악으로 채울 것인가'는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바로 내가 결정한다. 내 작품이다.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의 입장에서 내 몸과 마음, 주변 사람들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불교의 성(性)과 상(相)에 입각한 삶이다. 성품이나 형상, 어느 한쪽에만 애착하거나 무시하거나 치우치는 것이 아닌 '중도적 삶'이 훌륭한 삶이라고 월호 스님은 강조한다.

이 책 〈월호 스님의 선가귀감 강설〉은 2010년 출간된 〈할!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어났도다〉의 개정판이다.

두려움 없는 힘의 핵심…'생각은 짧고 빠르게'



두려워하지 않는 힘

진우 지음/불광 펴냄/1만 6천원



힘이 필요할 때가 있다. 지치고 두렵고 답답하고 눈물이 차오를 때, 일에 치이고 감정에 치이고 사람에게 치일 때, 스님이 전해주는 간곡한 한마디에 어느덧 응어리진 마음이 풀리고 삶이 쉬워진다.

10년 전 진우 스님〈사진〉은 담양 용흥사 몽성선원을 개원하고 나서 스스로 공부를 점검하고 정진을 다짐하는 결심으로, 예불을 끝낸 이른 아침 가장 맑은 정신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쓴 글이 4천여 편, 그 가운데 90편을 엄선해 묶었다. 인생의 핵심을 가르는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문장들이 가슴을 파고들며 힘을 북돋워준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영원한 평안과 자유자재한 삶의 길이 펼쳐진다.

"'스스로 마음을 평정하게 다스리면 대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행복 방편으로도 인과(因果)에 따른 불편함과 불행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일으켜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인과의 과보로 인해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生)의 불편함을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해법을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은 삶이 어디 있을까. 살다보면 도처에 무수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고, 인생은 때때로 가혹한 시련을 안겨준다. 나에게 닥친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슬픔과 두려움에 휩싸여 극심한 좌절의 고통 속에서 무기력한 존재가 된다. 인생의 고해(苦海)에서 속수무책으로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와 세상을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인생에 대해 정면돌파하는 법을 알려준다. 그것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가벼운 짐도 힘겨워하지만 건장한 청년은 무거운 짐도 거뜬히 짊어진다. 이처럼 마음의 힘을 키워나가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편안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진우 스님에게도 인생의 고비와 위기가 여러 번 있었다. 열세 살 어린 나이에 할머니 손에 이끌려 절에 맡겨졌다. 3대 독자인데, 절에 들어오지 않으면 스무 살까지 밖에 못 산다는 어느 큰스님의 말씀에 '강제 출가'를 당한 셈이다. 억지로 절에 들어가 살다보니 도통 출가 생활과 불교에 관심이 가지 않았다. 그러다 19세 때 우연히 이광수의 장편소설 〈원효대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가 됐다. 대자유의 세계와 생사를 뛰어넘는 공부에 마음을 빼앗겼다. 이제 됐으니 그만 절에서 나오라는 가족들의 간곡한 부름을 뿌리치고, 스스로 수행의 길에 매진했다.

10년 동안 쓴 글 4천편 중 90편 엄선
마음 키우면 人生 정면 돌파 가능해
'오늘의 명상' 가입자 1,700여 명 넘어

그런데 이십대 중반을 넘어서며 또 한번 고비가 찾아왔다. 혈기왕성한 시기, 세속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린 것이다. 그때도 스님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책이었다. 법무부장관을 지낸 황산덕 선생이 쓴 〈중론송〉과 소천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통해 불교의 위대함과 부처님 말씀의 진의를 온전히 체감하게 되었다. 이후 스님은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진정한 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진우 스님이 처음 글을 쓰게 된 건 10년 전 담양 용흥사에 선방(몽성선원)을 개원하면서부터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을 비롯해 구참 수좌들과 함께 참선 정진하던 때였다.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입선(入禪)한 후, 아침 6시 공양시간까지 1시간 남짓 여유가 있었다. 하루 중 가장 맑은 기운으로 정제된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너무도 아까웠던 스님은 자신의 공부를 점검하고 다짐하기 위해 짤막한 글들을 써내려갔다. 하루도 거르지 않는 스님만의 의식이었다.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글쓰기였지만, 스님의 글을 본 지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 가까운 지인들과 글을 나눠 읽던 중 그 수가 수백 명으로 늘어 결국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진우 스님의 '오늘의 명상'(https://band.us/@jinwoo) 가입자는 현재 1,700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 스님의 맑은 기운이 담긴 글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음을 다잡는 것이다.

이 책은 어느 페이지를 펼쳐봐도 좋다. 짧다. 쉽다. 단숨에 읽힌다. 그러나 쉽게 잊히지 않는다. 마음에 새겨진다. 세상의 이치를 바로 꿰뚫어보게 하는 지혜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읽는 순간 힘이 되는 것이다. 나를 억누르고 괴롭혔던 문제들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두둑한 배짱이 생긴다. 가령 이런 것이다.

발 빠른 지네에게 물었다.

"지네야 너는 발이 수십 개인데 어느 발부터 움직이느냐?"

그 말을 들은 지네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많은 생각은 오히려 번뇌(煩惱)가 되리니….

이 짧은 우화를 예로 들며 스님은 무심(無心)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스님은 이어서 말한다.

"지네의 그 많은 발들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움직이는지는 지네 자신도 모른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어느 발이 먼저일까를 생각하다보면, 이 발 저 발 수많은 발을 점검하다가 결국 한 걸음도 못 떼고 난망한 상태에 이르고 만다. 따라서 어떤 일에서나 생각은 짧고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은 무심한 마음가짐이다. 어떤 일을 하든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넘기는 습관을 잘 기른다면 궁극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의외로 무심함은 간단하다. 모든 것을 인과(因果)와 인연을 믿고 맡기면 된다. 더 이상 복잡한 생각일랑 지금 바로 그쳐라.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해가 지면 다시 떠오른다."

결국 두려워하지 않는 힘은 습관의 힘이다.

김주일 기자

조사선의 선풍을 확립하다!

전심법요·완릉록



임제 의현의 스승이기도 한 황벽은 간명하고 평이한
언어로 선의 이치를 펼치고 있어,
이 어록은 선의 정수이자 개론서로 꼽힌다.

황벽희운 저, 정운 강설/양장/288쪽/값 15,000원

금강경의 근본 종지와 낙처를 정확히 드러내다!

금강경삼가해



선사들의 선적 표현을,
원전의 심원하고 원융한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정확하게 현대적 감각으로 번역하였다!

전재강 역주, 고우스님 감수/양장/768쪽/값 35,000원

중국 백림선사의 정혜스님 법문집!

생활선의 열쇠



어떻게 인생의 질곡에서 벗어날 것인가?
불법과 세간이 둘이 아니고,
사람노릇과 성불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

정혜 지음, 이명한·안영주 옮김/양장/464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한글 창제 숨은 주역 '신미 스님'

영화 '나랏말싸미' 7월 24일 개봉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 그려
신미 스님 · 박해일, 세종 · 송강호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글 창제의 숨은 주역은 신미 스님이다?" 7월 24일 개봉하는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 는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다.

유네스코가 최고의 언어로 평가한 한글.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적고 있는 그 위대한 역사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 역사에 세종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은 없었던 것일까. 영화는 세종과 함께 한글을 만들었지만 우리 역사가 적지 못한 이름과 그들의 이야기를 스크린에 적고 있다.

1443년, 훈민정음이 세상에 온다. 불굴의 신념으로 한글을 만들었으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문자와 지식을 권력으로 독점했던 시대. 모든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세종의 8년. 그 8년이라는 위대한 세월 속에는 세종의 이름 말고도 적어야 할 이름들이 많았다. 그 중 가장 먼저 적어야 할 이름은 '신미', 신미 스님이다. 신미 스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글은 없었을지 모른다. 있었다고 해도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다.

"난 공자를 내려놓고 갈 테니, 너는 부처를 내려놓고 와라" / "나는 부처를 타고 가겠습니다. 주상은 공자를 타고 오십시오!"

시절은 억불숭유의 조선. 승복은 시대를 거역하는 옷이었으며, 불서는 나라를 거역하는 글자였다. 시대가 버린 옷과 글자를 따르는 불제자 신미 스님은 불경을 기록한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파스파 문자에 능했다. 억불의 정치를 가장 왕성하게 펼쳤던 임금, 세종이 시대의 정반대편에서 살아가는 신미대사를 만난다. 그리고 한글 창제의 역사는 실마리를 찾는다.

중국의 각종 언어학을 섭렵했음에도 세종은 한글 창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실마리는 시대의 글자가 아니었던 〈팔만대장경〉에 있었다. 세종은 신미대사를 통해 소리글자 산스크리트어를 접하고 '소리글자' 라는 답을 찾는다.


한글창제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던 신미 대사. 그는 세종을 도와 한글을 창제했다.

세종은 신미대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신미대사는 나라의 글은 백성의 것이야 한다는 세종의 뜻에 공감하고 한양에 법당을 지어주는 조건을 달아 세종의 뜻을 받아들인다. 가장 높은 곳에 살았던 임금 세종과 가장 낮은 곳에 살았던 신미 스님, 두 사람이 뜻을 모아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쉽게 쓸 수 있는 나라의 글자를 만들기 시작한다.

영화는 한글이 그 형태를 갖추어 가는 과정을 언어학자와 종교학자 등 전문가들의 자문과 고증을 거쳐 역사적 사실성의 드라마를 완성한다. 시대의 질서와 약속과는 상관없이 신미대사를 수양과 안평의 스승으로 삼는 세종의 모습에서 '한글 창제' 자체가 시대를 상대로 한 커다란 모험이자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해 한마음으로 달려가는 한 시대의 개척자들. 신미 스님을 비롯한 그들의 이름은 세종이라는 이름 뒤에 있었을 뿐 역사에 기록되지 못했던 이름들이다. 영화는 먼 훗날을 위해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낸 그들의 이야기다.

한글 창제의 숨은 주역 신미대사 역은 배우 박해일이 맡았다. 박해일이 연기한 신미 스님은 유교의 나라 조선이 금지한 불교에 귀의한 인물로 자신이 귀의한 불법(佛法) 외엔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는 단단한 불제자다. 배우 박해일은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등 많은 사찰을 찾고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며 '신미' 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한글 창제의 과정을 다룬 영화 '나랏말싸미' 에는 기존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쉽게 갈 수 없는 역사적인 공간들이 등장한다. 시나리오 작업 과정에서 세종과 함께 뜻을 모아 한글을 만든 신미 스님의 행적을 따라갔다. 영화는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부터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안동 봉정사, 곡성 태안사, 순천 송광사 국사전 등 유서 깊은 도량이 등장한다.

"이 땅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는 팔만대장경과 훈민정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영화인으로서 오랫동안 품고 살아왔습니다. 몇 년 전, 그 두 가지 이야기 사이에 '신미' 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화 '나랏말싸미' 는 새 문자가 탄생되는 위대한 역사를 씨줄로, 그에 얽힌 많은 인연을 날줄로 엮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조철현 감독은 30년 동안 제작과 기획, 각본 등 '영화 만들기' 의 여러 영역을 거쳤다. 그는 이번 영화 '나랏말싸미' 로 마침내 감독으로 데뷔했다. 영화 '나랏말싸미' 는 그가 20년 동안 품고 살았던 화두였다. '신미' 라는 이름을 만남으로써 그 숙원은 영화 '나랏말싸미' 로 회향했다. 그는 '한글의 탄생' 을 둘러싼 통념을 깨고 불제자 신미를 되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면서 쉽고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이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을 강한 개성과 매력을 가진 인물들을 통해 역동적인 드라마로 그려냈다.

백제왕도서 백제문화 모든 것 만난다

7월 8~14일 공주 · 부여 · 익산서 '백제문화유산주간' 개최

백제 왕도였던 공주 · 부여 · 익산에서 백제문화를 만날 수 있는 문화행사가 열린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공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정림사지박물관, (재)백제세계유산센터 등 9개 기관과 협력해 오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공주, 부여, 익산 등 백제왕도에서 '백제문화유산주간' 을 개최한다"고 6월 25일 밝혔다.


지난해 열린 '백제문화유산주간' 중 정림사지에서 열린 프로그램의 모습.

'백제문화유산주간' 은 백제역사유적지구(8개소)가 2015년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백제 문화유산이 갖는 역사적 · 문화적 중요성을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해 지난 2018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7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개최하는 행사다.

주요 프로그램은 △명사 특강 · 강좌 △체험학습 · 활동 △답사 프로그램 △사진 · 그림 전시회 △유물 · 유적 연계 프로그램(백제문화유산 녹턴) 등이 진행된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백제문화유산 녹턴' 은 백제왕도의 중요유적과 출토유물을 연계한 참여기관의 공동 협력사업으로 이번 행사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이다. 한여름 밤에 열리는 전통 · 퓨전 음악회와 체험이 결합된 행사로 전통공연을 즐기며 박물관 소장품이자 유적지에서 나온 유물을 유적지와 연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7월 9일부터 13일까지 공주, 부여, 익산에서 총 4회에 걸쳐 즐길 수 있다. 각 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도 백제왕도를 주제로 한 강연과 포럼,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만들기 체험, 백제왕도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진과 그림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행사 기간 내내 즐길 수 있다.

문화재청은 "백제문화유산주간은 백제왕도를 역사교육현장이자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하는 행사로, 지난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과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면서 "올해도 백제왕도를 대표하는 고품격 문화재활용 · 홍보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국립경주박물관 작은 음악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신라미술관

국립경주박물관(관장 민병찬)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신라미술관 로비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할 수 있는 박물관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박물관 작은 음악회는 9월까지 정기적으로 열린다.

6월 29일 열린 첫 공연에서는 '앙상블의 조화' 라는 주제로 소프라노 솔로 가곡 '꽃구름 속에' 를 시작으로 포항시민합창단의 중창, 클라리넷 앙상블 연주 등으로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다양하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선보였다.

문화행사는 별도의 입장권이나 사전 예약은 없으며, 박물관을 방문하시는 관람객은 누구나 음악회에 참석할 수 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에는 전시품 해설 프로그램인 '문화재 돋보기' 와 '영화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국립경주박물관 작은음악회.

이번 문화행사에 대한 자세한 행사 내용은 054-740-7519로 문의하거나 또는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http://gyeongju.mus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굴곡진 역사 지광국사탑, 원주로 환지본처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 6월 20일 이전 결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911년 日人 의해 일본 반출
한국전쟁 폭격 파손 등 고난
110년 만에 고향인 원주 회귀
최종 이전 장소는 추후 결정

2016년부터 해체 · 보수 작업
모르타르 제거 · 결실부재 대체
올해 중 보수 작업 완료 예정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에 의해 반출됐다가 한국에 돌아왔지만 제자리로 가지 못했던 지광국사탑이 본래 자리였던 원주 법천사지로 돌아간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6월 20일 열린 건축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결과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하 지광국사탑)을 원래 있던 곳인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의 법천사지로 이전을 결정했다"고 6월 21일 밝혔다.

지광국사탑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에 세워졌던 고려 국사 해린(海麟, 984~1070)의 승탑이다. 독특한 구조와 화려한 조각, 뛰어난 장엄장식으로 역대 가장 개성적이고 화려한 승탑으로 꼽힌다.

탑, 오욕의 역사를 겪다

문화재적 가치가 높았던 만큼 지광국사탑은 근현대시기 고난의 시간을 겪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자료에 따르면 지광국사탑이 본래 자리인 법천사지를 떠나게 된 시기는 1911년이다. 탑을 매입한 주인은 일본인 와다 쓰네이치로 당시 서울 명동서 일본인이 운영하는 개인병원에 조경용으로 전시하게 된다.

1912년에는 이를 남산 기슭의 저택으로 옮겼다가, 다시 일본 오사카 귀족에게 팔아 불법으로 반출시켰다. 오사카 귀족은 지광국사탑을 자신의 가문 묘지 정원 장식품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를 안 조선총독부가 반환명령을 내리면서 와다는 탑을 돌려받아 조선총독부에 기증했다.

그래도 지광국사탑은 본래 자리인 법천사지로는 갈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가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가 열린 경복궁의 장식재 구실을 하기 위해 옮겼기 때문이다.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환지본처까지

1911 원주 법천사지 반출 → 서울 명동(무라카미 병원)
1912 서울 남창동 이전(와다 저택의 정원)
일본 오사카 반출(5월, 후지타 헤이타로 남작)
국내 반환(10~12월 중)
1915 경복궁 내 조선물산공진회 미술관 앞 정원으로 이전
1923 경복궁 내 경회루 동편 근정문 부근 이전
1932 경복궁 내 해체 및 재건립 (경회루 동편 사정전과 아미산 사이)
1957 국립중앙박물관의 재건보수공사(11월)
1990 국립고궁박물관(당시 국립중앙박물관) 뒤뜰 이전
2016 국립문화재연구소로 해체, 보존처리 중
2019 문화재위원회 원주 법천사지로 이전 결정

6.25전쟁은 지광국사탑에 치명상을 안겼다. 1951년 지광국사탑은 폭탄에 맞아 상륜부와 옥개석이 파손됐다. 당시 피폭으로 탑의 상륜부와 옥개석은 1만2000여 조각으로 쪼개졌다. 전쟁 이후 195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복원기술자 故 임천 선생이 탑을 복원 · 수리했고, 후에도 해체와 이전을 반복하다 1990년에 이르러서야 국립고궁박물관 뒤뜰로 자리를 잡았다.

해체보수로 새로운 모습을

이후 지광국사탑은 2005년과 2010년 시행된 정기조사와 2014년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2015년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등에서 다수의 균열과 모르타르(mortar) 복원 부위 탈락 등이 확인됐다. 특히, 모르타르로 복원된 옥개석(屋蓋石)과 상륜부는 구조적 불안정까지 더해져 석탑의 추가적인 훼손이 우려되면서 2015년 9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면 해체 · 보존처리가 결정됐다.

이에 자광국사탑은 2016년 3월 22일 해체보고식을 갖고, 4월 5일 해체가 완료돼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이송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확인한 석탑의 상태는 심각했다. 우선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957년 시멘트 모르타르로 복원한 부분이었다. 전체 탑의 10.6%가 시멘트 모르타르로 복원됐으며, 상륜부와 옥개석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옥개석의 경우 48%가 복원 부재로 시멘트 모르타르가 사용됐다. 또한 이를 지탱시키기 위해 59개의 철심이 탑에 박혀 있었다.

석탑의 풍화도 '중간에서 높은 단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백화와 흑화 현상도 상당히 진행됐으며, 탈락 · 박리 · 생물 피해 · 조류 배설물 등의 피해도 확인됐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모르타르 제거, 파손 부재 접착을 비롯해 결실된 부재들에 대해 새 돌로 제작하는 등의 보존처리를 해오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석재의 산지(産地) 분석, 결실부재에 대한 복원도상 연구, 무기질 결합재의 성능개선 연구 등 부차적인 성과도 보이고 있다.

탑 이전에 남은 과제들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지광국사탑의 원주 법천사지 이전을 결정했으나, 최종적인 이전 위치 선정은 과제로 남았다. 현재는 법천사지 승탑 위치에 보호각을 세워 복원하는 방안과 법천사지 내 건립을 추진 중인 전시관 내부로 탑과 탑비를 함께 이전하여 보존 · 전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원주시는 지난 15년간 진행된 법천사지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종합 전시 · 홍보하는 전시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법천사지 본래 위치에 복원은 보호각 설치가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주변 경관 저해 문제가 된다. 반대로 전시관 이전은 최적의 보존환경은 보장되지만 이전 복원의 역사적 진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올해 보존처리가 완료되는 지광국사탑 최종 이전 위치는 향후 보존환경이 석탑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관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면서 "외부 환경 등으로부터 탑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 채식주의 전통 '능가경'서 시작"

함형석 전남대 교수
호남불교硏 콜로키움서

초기불교 청정육 섭취 가능
능가경 중심으로 한 세력이
'세 가지 청정' 비불교화해



초기 불교에서 '세 가지 청정한 고기'를 허용했다는 사실은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알려진 이야기다. 그렇다면 한정적 육식이 가능했던 불교가 완전한 채식주의 전통을 갖게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

함형석 전남대 철학과 교수<사진>는 6월 19일 전남대 호남불교문화연구소가 개최한 제1회 콜로키움에서 "불교의 채식주의 전통이 〈능가경〉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육식의 기억을 조작하기- 〈능가경〉은 어떻게 불교에 채식주의를 도입하였는가'를 주제로 발제한 함형석 교수는 〈능가경〉의 8번째 품인 '비(非)육식에 관한 장'을 주요 텍스트로 채식주의 전통이 어떻게 확립됐는지를 분석했다.

함형석 교수에 따르면 기원 후 400년 이후 나타난 몇몇 대승불경이 도입한 새로운 변화는 '채식주의'였다. 채식주의는 데비닷타가 붓다에게 제안한 다섯 가지 중 하나였고, 당시 이들의 주장은 불교 승가를 분열시키는 행위였다.

함형석 교수는 불교의 식사 문화는 불교 교리보다는 사회적인 압력 아래서 진화했음을 밝힌 선행 연구들을 전거로 채식주의 전통도 비슷한 과정으로 도입됐음을 추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비(非)육식에 관한 장'에 깊게 배어 있는 타인에 대한 염려는 타종교 경쟁 그룹과 대중의 비판적인 시선 아래서 이뤄졌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능가경〉은 청정한 고기의 세 가지 조건을 살생의 양상으로 대치시켰다. 함형석 교수는 "'비(非)육식에 관한 장'은 세 가지 지점에서의 청정이라는 기존 규칙을 비불교 전통서 비롯되는 살생의 정의로 대체했다"면서 "이를 통해 '비(非)육식에 관한 장'은 기조의 권위를 완전히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새로운 교설을 정당화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非)육식에 관한 장'은 나아가 선제적으로 동료 불교도들의 미래 저항을 예언하고 이들을 사이비 불교도로 낙인찍었다"고 분석하며 "이 같은 방식으로 '비(非)육식에 관한 장'은 불교도들의 미래 기억을 편집했고 불교의 미래 역사를 완전한 채식주의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국보 지정

문화재청 공고… 대둔사 삼장보살도 등 보물로

부여 왕흥사지서 출토된 사리기 일괄이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로 지정됐다. 또한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 등 고려~조선시대 조성된 불화, 불상이 잇달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이름을 올렸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리기인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를 국보로 지정하고, '조선왕조실록' 96책을 확인해 국보로 추가 지정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

국보 제327호로 지정된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는 지난 2007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백제 왕실 사찰인 왕흥사지 목탑지에서 발굴한 유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사리기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사리기는 겉에서부터 순서대로 청동제사리함-은제사리호-금제사리병 순의 3가지 용기로 구성돼 있으며, 청동제사리합 겉면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577년(위덕왕 24년)에 만들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제작 시기가 명확한 사리기로서, 연대가 가장 빨라 우리나라 사리기의 선구적인 위치에 있다.

문화재청은 "6세기 전반 사리공예품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는 백제 왕실 공예품이라는 역사 · 예술적 가치,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절대 연대를 가진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6월 26일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 등을 비롯한 불교문화재와 초기 철기 시대 거푸집과 청동거울, 통일신라 시대 도기(陶器) 등 10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2025호로 지정된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는 1740년(영조 16년)에 영산회상도 · 제석도 · 현왕도 · 아미타불도와 함께 조성돼 대둔사에 봉안됐던 작품으로, 이중 삼장보살도만 유일하게 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리기인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일괄.

'김천 직지사 괘불도'는 보물 제2026호로 지정됐다. 1803년(순조 3년)에 제작된 김천 직지사 괘불도는 현재까지 알려진 19세기 괘불 중 시기가 가장 빠르고 규모도 가장 크다.

보물 제2031호로 지정된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은 고려말~조선 초에 유행한 두건을 쓴 지장보살좌상이다. 보주를 든 두건 지장의 정확한 도상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여말 선초의 지장 신앙과 지장도상 연구에 귀중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신성민 기자





대안 스님의
24절기 사찰밥상
⑫ 하지(夏至)
오이땅콩탑 · 감자뭉생이 · 가지콩살말이

자외선 버티는 '싱그러움' 한 입

햇살이 반갑지만은 않은 절기가 하지다. 자외선이며 오존농도며 높다고 하니 고마운 햇살이 잠시 꺼려지는 시기다. 아무리 옷을 입어도 섬유를 뚫고 들어오는 햇살은 체온을 높이고 만다. 잠깐 움직여도 땀이 흐르는 시기다.

수많은 추억을 간직한 단오가 지나고 농부의 일손을 잠시 쉬게 하는 하지다. 큰절에서 지내는 단오제도 못 본지 오래고, 매화산에 소금 묻으러 다니던 날도 단오다. 큰절 대중이 나누어 축구시합을 하고 가야산 중봉산행도 함께 했던 단오가 잊히고 있다. 세월이 흐르니 점차 변화하고 있다. 온고지신의 전통을 그나마 불교가 지켜내고 있지만 세월을 견디기가 어렵게 전통이 변하고 있다.

마을로 내려오니 모내기도 마쳤고 콩을 심기 위한 논둑정리를 하고 있다. 오이는 씨앗 틔우기가 어려워서 모종을 사서 심는다. 지리산에 깃들어 살면서 해뜨기 전 채전밭을 둘러보며 관찰하는 습관이 오래 되었다. 채전밭의 채소들은 제각기 바쁜 생명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오이는 잔가시가 많아 살갗에 스치기라도 하면 이내 상처가 난다. 오이의 천적은 개미다. 개미는 오이수액을 얻기 위해 오이밭 주변에서 때를 기다리지만 오이는 결코 만만치 않다. 오이는 개미가 자신의 살에 오르도록 곁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개미는 용기 있게 오르지만 따가운 가시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한다.


오이땅콩탑

절집의 채전밭에서 키워지는 오이는 많은 이들에게 더위의 갈증을 식히는 좋은 식재료이다. 오이를 소금물에 통째로 넣어 오이지를 담고 더러 간장을 끓여 붓기도 한다. 소금은 한 번 절이면 되지만 간장에 절이게 되면 대여섯 차례 반복해서 간장을 끓여 부어주어야 곰팡이가 자라지 않는다.

오이무침, 오이만두, 오이와 감자를 적당히 돌돌 말아서 땅콩소스를 만들어 오이땅콩탑을 만들어 접빈음식으로 선을 보이기도 한다. 리처드 기어의 사찰방문은 많은 이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했다. 총무원장 스님과 오찬을 하게 된 리처드 기어의 사찰음식 경험은 미국에 돌아가서 잡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먹어본 세상의 모든 음식 중 단연 으뜸이라고 하였다. 다음해 나는 미국 방문 때 리처드기어를 다시 만났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바로 만나는 장소로 찾아온 그는 무척 반가워하며 맞이해 주었다. 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채식 만찬으로 준비해준 배려의 마음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다.


감자뭉생이

오이 옆에 가지는 햇살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을 낸다. 짙은 보라색의 가지는 갖은 음식의 재료로 여름을 지나서까지 애용하게 된다. 요즘은 건조기가 있어서 무조건 남는 채소를 말려두었다가 사용하니까 버려지거나 상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사찰의 가지음식은 찜기에 쪄서 참기름과 집간장, 깨를 넣어 무쳐내는 것이 다반사다. 조금 손길을 거치려면 십자로 가지를 자른 후 고추와 깨, 표고버섯을 다져서 빈자리에 끼워 넣어 냄비에 조려서 먹는 가지조림, 얇게 썬 가지를 마른 팬에 기름기 없이 구워서 콩살과 버섯과 작은 채소잎을 넣어 돌돌 말아서 만들어내는 가지콩살말이, 기름기 많은 음식이 부족할 때는 콩기름 듬뿍 넣고 산초기름 한 방울 더하여 볶아내는 가지볶음.

일찍 심은 감자를 캐어서 포슬포슬하게 쪄먹는 시기이다. 감자의 역할이 변화무쌍한 여름철이다. 감자를 갈아서 전을 부치기도 하고 같은 생감자지만 옥수수와 풋콩, 잣을 넣어 쪄낸 다른 모습인 감자뭉생이. 감자는 강원도의 전유물처럼 전래되어 왔지만 지금은 곳곳에서 재배하고 있고 사찰의 채전밭에서도 빠지지 않는 작물이다.


가지콩살말이

오이땅콩탑
재료: 오이 1개, 감자 2개, 볶은땅콩 ½컵, 채수물 2T, 소금 약간, 후추 약간, 조청 2T, 브로콜리 2꼭지, 소스(산야초효소 1t)
1. 볶은 땅콩을 껍질을 까고 채수물, 소금, 조청을 넣고 갈아준다.
2. 감자는 쪄서 으깨 소금, 후추로 간한다.
3.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데쳐서 수분을 제거하고 곱게 다진다.
4. 오이는 필러를 이용해서 슬라이스를 한다.
5. 슬라이스한 오이에 감자를 펴놓고 1에서 만든 땅콩소스를 발라서 어슷하게 돌돌 말아서 탑처럼 만든다.
6. 그릇에 놓고 다진 브로콜리를 뿌린다.
7. 산야초효소를 땅콩탑에 뿌린다.

감자뭉생이
재료: 감자(대) 3개, 밤 2개, 풋콩 2T, 대추 2개, 잣 1T, 죽염 ½t, 참기름 1T
1. 벗긴 감자를 강판에 갈아 베보자기에 국물을 짜낸다.
2. 밤은 3–4조각을 내고 대추는 씨를 빼낸 후 돌돌 말아 둔다.
3. 콩은 풋콩을 써도 되고 말린 콩은 하루 전날 불린다.
4. 감자와 모든 재료를 섞어 뭉친 후 찜기에 찐다.
5.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물에 참기름을 타서 뿌린 후 접시에 담아낸다.

가지콩살말이
재료: 가지 2개, 새싹 150g, 콩살 1개, 소금 약간, 들기름 약간, 후추 약간, 겨자소스(겨자가루 1t, 배즙 3T, 식초 2T, 소금 약간)
1. 겨자는 미지근한 물에 개어 20분정도 띄운다.
2. 가지는 길게 슬라이스 한다.
3. 새싹은 씻어서 물기를 빼고, 콩살은 가늘게 채 썰어 들기름으로 팬을 닦은 후 덖어준다.
4. 들기름을 두른 팬에 가지를 구워낸다. 구울 때 소금, 후추를 약하게 간을 한다.
5. 구워낸 가지를 한 김 식히면 콩살, 새싹을 돌돌 말아낸다.
6. 숙성된 겨자에 나머지 소스 재료를 섞어 곁들인다.



김동일의 건강 한방
⑫ 안면홍조

안면홍조, 공황장애 · 불면 등 유발

안면홍조, 혹은 열성홍조는 안면과 전흉부의 발적을 의미한다. 이것은 혈관운동장애 증상의 범주이며, 야간 발한과 동반되기도 한다. 폐경전후에 빈번한 증상이며, 갱년기의 호르몬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나 젊은 여성이나 남성에게도 안면홍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어떠한 형태의 안면홍조이든 개인에 따라 다양한 정도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

갱년기 및 폐경기 여성의 3/4 정도가 안면홍조를 경험하며, 이들 중 20% 정도가 치료를 받는다. 유방암 치료 후 환자들의 65%가 안면홍조를 경험한다. 기타 요인의 안면홍조에 대한 구체적 유병률 연구는 찾기 어렵다. 안면홍조는 한의학의 면열(面熱)에 대응하는 병증으로 인식할 수 있다.

안면홍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갱년기 및 폐경 후 안면홍조 △젊은 여성의 안면홍조 △암 환자에게 발생하는 안면홍조다.

갱년기 및 폐경 후 안면홍조는 여성의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형태의 안면홍조이다. 40대 이후의 여성에서 월경주기의 불규칙, 특히 월경주기의 단축이 생기는 시기에 근접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난포자극호르몬 상승과 동반된다.

젊은 여성의 안면홍조는 40세 이전의 젊은 조기 폐경 환자에게서 여성호르몬 감퇴 및 FSH 상승에 동반된 안면홍조가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정신적 요인, 기타 내분비 질환 등을 감별해야 한다.

암 환자에게 발생하는 안면홍조는 암 치료에 의한 폐경에 동반되거나 유방암 환자에게서 자주 발현되는 경향이 있다.

안면홍조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치료법에 관한 것들이다. 안면홍조-혈관운동장애의 병인학 혹은 원인과 관련된 연구들은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다.

갱년기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저하되면 안면홍조가 발생하는 것에 따라 이러한 호르몬변화를 안면홍조의 일차적인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안면홍조는 시상하부의 온도조절 기능에 변화가 생겨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시상하부 온도조절 중추의 설정값이 갑자기 하향되어 안면홍조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안면홍조는 단지 열감이 느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간의 중심부 온도의 실제적인 변화가 생긴 것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인자는 여성호르몬, β-endorphin, 중추성 신경전달물질(norepinephrine, serotonin) 등이 고려된다. 즉 안면홍조를 경험하는 갱년기 여성의 경우 낮아진 에스트로겐이 복잡합 신경내분비적인 기전(시상하부의 신경전달물질의 변화 포함)을 유발하고, 이것에 의해 기준체온점이 낮게 재조정되며, 안면홍조 증상이 없는 여성에 비해 온도평형구역이 좁아지게 되어 안면홍조가 잘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안면홍조의 60%에서 홍조 발생 15분 전에 중심체온이 약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중심체온 증가가 열발산 기전을 자극하여 표피혈관확장 및 발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갱년기 호르몬 변화 원인
미세다륜침 등 한방미용외치법

폐경과 관련되지 않은 젊은 여성의 안면홍조는 정신적 요인, 약물, 특정 음식 등에 의한 경우와 함께 다른 기저 질환에 의한 경우가 있다. 유방암 환자는 흔히 안면홍조를 호소하는데, 특히 타목시펜을 복용하면 그 정도는 더 해진다.

남성에게 안면홍조가 생기는 것은 전립선암 등에 의하지만 남성의 안면홍조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대부분의 여성호르몬 감퇴와 관련된 안면홍조는 보통 폐경 1,2년 전부터 일어나며,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10년 동안 지속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폐경 후 4,5년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소실된다. 그러나 일부 여성들은 4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현저한 정도의 안면홍조를 호소하기도 한다.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여성의 29%가 안면홍조를 자각한다고 하였다.

폐경, 음식, 알코올 등에 의한 안면홍조의 경우에는 특별한 심각한 합병증이 없다. 그러나 다른 원인 질환에 의한 경우 각 질환에 따른 합병증이나 동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면홍조는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폐경과 관련된 안면홍조는 다양한 정도의 열감, 발한, 허약, 심장박동의 변화, 공황장애, 불면 등을 포함한다. 불면은 반복되는 야간 안면홍조에 의해 일어난다. 이로 인해 집중력 저하, 피로, 지각장애 등이 생긴다.

우선 홍조가 발현되는 안면을 관할하는 위의 열을 내려서 중심체온이 얼굴을 통해 발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면홍조는 정서적 요인에서부터 위중한 악성 질환까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인 파악에 우선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임상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안면모세혈관의 확장이나 피부의 변화가 현저하여 미용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세다륜침 등 한방미용외치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1차적인 치료 기간은 중간평가를 전제하고 8주 정도 진행하도록 한다. 치료과정에서 증상의 호전이 없을 경우 안면홍조의 원인 중 드물지만 위중한 형태의 질환을 배제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少海, 少府 등의 자침 과정에서 말초신경 및 혈관 손상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침 전에 말초신경염의 발생이나 혈관천자에 의한 출혈과 멍 발생 가능성이 있다.

여성호르몬 감퇴와 관련된 안면홍조 등의 목적으로 일정기간 여성호르몬 대체요법을 시행한 환자의 경우에는 저농도의 호르몬요법에 병행하여 침 치료 및 한약 치료를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호르몬 복용을 중단하게 하여 급격한 증상의 되돌림 현상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유방암 치료와 관련된 안면홍조의 경우 유방암 수술 측 상지의 림프 부종 유무를 확인하고, 환측 상지에 대한 자침을 금기하여 감염 등 이차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안면홍조를 유발하는 음식과 약물 등은 간과하기 쉬우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치료 과정에서도 그러한 요인에 대해 일정한 시기에 반복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동국대 일산불교한방병원장〉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주십시요"

달마대사께서는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시며 선을 대표하는 인물이시고 깨달음의 징표이십니다.

중국 소림사 한국본부 문화원 운영위원장겸 미술원 원장이신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으로 한점 한점마다 수호신이 되어 집안을 지켜줄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하고 가족의 건강과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7



8



9



남인도의 대바라문국의 셋째 왕자로 태어나신 달마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부터 28대 조사가 되시는 분으로 인도에서 일어난 대승불교의 씨앗을 중국으로 가지고 와서 중국 선종의 초 조사가 되시는 분이시다, 양나라 무제와 결별하고 갈대 한가닥을 타고 양자강을 건너 숭산 소림사에 은거하며 9년 동안의 면벽좌선으로 크게 깨우침을 얻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내리고 중국 선종을 크게 부흥시키신 분이시다.

10



11



12



달마의 모습은 원래 왕자로 태어나 귀하고 잘생긴 모습이었으나 어느날 한 마을을 지나다가 어디선가 고약한 냄새가 풍겨나고 마을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근원을 찾아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 죽어 썩어가고 있어 달마가 자기 육신을 벗어놓고 뱀속으로 들어가 뱀의 몸을 움직여 깊은 바다속에 버리고 돌아와 보니 그사이 험상궂게 생긴 신선이 지나다가 달마의 몸을 발견하고 자기 몸을 벗어 놓고 달마의 몸을 가지고 가버린것이다. 하는수 없이 그 몸속으로 들어간 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달마의 모습인 것이다.

규격 : 54x120Cm 가격 : 100,000원, 2점 이상주문시 90,000원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TEL.02)2004-8216~4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